제14장
종교

제 1 절 불교
제 2 절 기독교
제 3 절 천주교
제 4 절 동두천 유림(儒林)의 성장과 변화
제 5 절 기타 종교
제 6 절 동두천의 민속신앙



DONGDUCHEON HISTORY OF


동두천제일감리교회
30 YEARS 1981-2011
56U 9702

제1절 불교

1. 개관

한국에 불교가 들어온 것은 4세기경이다. 전진의 왕 부견이 보낸 순도가 불상과 불경을 고구려에 전하였고, 동진에서 호승 마라난타가 백제에 불법을 이었던 것이다.

당시의 동두천, 양주를 포함한 한강유역은 삼국이 각축하던 내내 그 패권의 향방을 가른 전략적 요충지요 거점이어서 이 지역을 차지했을 때가 그 국가의 전성기라 할 수 있다. 오늘날 동두천 지역의 불교문화와 신앙의 형태를 살펴볼 수 있는 유적이 풍요로운 편은 아니다. 그러나 소요산 자재암이 원효의 수행처였으며, 원효가 우리나라 불교계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배려해볼 때, 이 지역의 불교문화가 일천하다고는 못할 것이다. 또한 조선조에 들어서도 양주의 회암사는 전국 최대의 종찰이요, 소요산의 소요사 역시 국가가 공인한 36사찰의 하나로서 국가로부터 적지 않은 사원전과 승려를 배당받았음을 보게 된다. 이 역시 이 지역 불교문화의 성세를 볼 수 있는 단면이라 하겠다.

이제 동두천 지역의 불교사를 개관함에 있어 사적과 근거가 있으면 그것을 토대로 하되, 용이치 않으면 각 시대별 불교계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봄으로써 이해를 돕고자 한다.

1) 삼국시대의 불교

한반도에 불교가 공인된 시기는 삼국이 고대국가로 발돋움하던 때라 하겠다. 불교가 처음 전래되던 어간의 동두천 지역은 백제의 중심지역에 속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초기의 백제는 한강유역을 중심으로 건국하였는데, 북으로는 예성강, 동으로는 춘천에 이르렀던 것이다.

삼국 공히 초기 불교의 수용은 왕실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왕실의 보호에 힘입은 바가 컸다. 백제는 침류왕 원년(384년)에 불교가 공인되었는데, 당시의 동두천 지역은 유력 호족인 진(眞) 씨 일문의 영향권 내에 있었다. 따라서 이 지역의 불교 수용과 신앙도 그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현재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당시의 불교관계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백제불교의 전반적인 흐름을 통해 그 일단을 짐작해볼 수 있을 뿐이다. 백제불교는 대체로 계율을 중시했다. 성왕 때 인도에서 돌아온 겸익은 율부를 번역했고, 담욱과 혜인도 율학에 깊었다. 그런 영향으로 일본의 선신니 등이 율학을 배우러 유학 오기도 했다.

동두천 지역을 둘러싸고 삼국 간에 끊임없는 각축전이 일어났다. 고구려 광개토대왕 때에 이르러 백제의 개로왕이 전사하고 한성이 함락됨으로써 백제는 웅진으로 도읍을 옮기게 되었다. 이때의 고구려 세력권은 한강 이남의 경기도는 물론 충청도의 북부까지 미쳤으니, 동두천 지역은 당연히 고구려의 세력 하에 있게 되었고, 이후 동두천 지역의 불교신앙 형태도 고구려 영향권 내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고구려의 경우 소수림왕 2년(372년)에 불교가 공인되었는데, 현재 동두천 지역을 중심으로 한 당시의 불교신앙과 관련된 자료나 근거 또한 찾아보기 어렵다. 고구려에서의 불교신앙 형태는 인과적 교리불교 혹은 구복불교였으며, 삼론학에 대한 연구가 활발했다. 승랑은 중국 삼론종의 제3조가 되었고, 혜관은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삼론종의 시조가 되었다. 고구려말 불교와 도교가 대립하자 고승 보덕은 백제로 그 거처를 옮겼고, 이때부터 불교는 크게 위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신라가 전성기를 맞이한 것은 진흥왕 때로 볼 수 있다. 진흥왕은 문물을 정비하는 한편 영토 확장에 나서 한강 및 임진강 연안까지 그 영역을 확대해나갔다. 따라서 동두천 지역도 이때로부터 신라의 영토에 편입되었다.

신라는 상대적으로 늦은 법흥왕 14년(527년)에 불교가 공인되었다. 신라불교는 진흥왕 때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했는데, 신라 왕실이 찰제리종(크샤트리아)이며 따라서 왕실을 중심으로 한 전륜성왕적 정치이념을 구현하고자 했다. 따라서 신라는 불국토이며, 불국토인 신라에 흥륜사, 황룡사,

통도사 등의 대사원을 건립해나갔다. 또한 황룡사에는 장륙상이 모셔졌으며 목조 9층탑이 세워졌다.

당시 신라의 대표적인 고승으로는 원광, 자장 등을 들 수 있다. 원광은 고대사회의 새로운 윤리덕목으로서 세속5계를 지도 이념으로 제시했으며, 자장은 신라가 곧 불국토임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자장의 사상은 불교를 통해 삼국통일의 정신적 기반을 형성하였는데, 이는 호국불교라는 신라불교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사상이라 하겠다.

2) 통일신라시대의 불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로 동두천을 포함한 인근지역은 통일신라의 한산주에 속했다. 당시의 한산주는 지금의 황해도와 경기도 충청북도의 일부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지역으로서 전략적으로 중요시되고 있었다.

통일신라기에 불교는 더욱 꽃을 피워 많은 사원을 건립했으며, 많은 고승들이 배출되었는데, 원효와 의상이 대표적이다. 원효는 80여 부 200여 권의 저술을 남긴 대불교 사상가이며, 실천적인 종교가라 하겠다.

원효의 속성은 설(薛)로서, 법명이 원효이다. 황룡사에서 출가하여 수도에 정진하였다. 의상과 두 차례에 걸쳐 유학길에 나섰으나 당항성에 이르러 한 고총에서 잠을 자다가 잠결에 목이 말라 마신 물이 날이 새어서 해골에 괸 물이었음을 알고, 사물 자체에는 깨끗함도 더러움도 없으며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렸다는 것을 깨치고 되돌아왔다. 그 후 분황사에서 무애의 통불교를 제창하여 불교의 대중화에 힘썼다.

원효는 불교사상의 융합과 그 실천에 힘쓴 정토교의 선구자이며, 한국의 불교사상 큰 발자취를 남긴, 가장 위대한 고승의 한 사람이라 하겠다. 고려 숙종이 대성화정국사(大聖和靜國師)라는 시호를 내렸다.

통일신라기의 불교문화는 하나의 장엄한 꽃을 피웠다고도 할 수 있는데, 화엄종의 시조 의상의 문하에는 표훈, 진정, 지통 등의 10대 제자가 배출되어 신라 화엄종의 주류를 형성했다. 또한 유식학 분야에서는 원측과 태현이 있었고, 신문왕 때 국사인 경흥은 많은 저술을 남겼으며, 명랑은 신인종을 열었고, 진표는 점찰교법을 일으켰으며, 월명사, 충담사, 혜초 등 많은 불교사상가가 있었다.

한편 신라 말기에는 중국에서 새로운 불법인 선법이 전해졌는데, 이로 인해 선문 9산의 성립되었다. 선종의 확산은 신라불교에 새로운 가능성을 접목해, 귀족적인 교종의 한계를 놓고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불교의 지방 확산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겠다.

3) 고려시대의 불교

고려시대의 동두천 지역은 전시기를 통하여 양주 또는 남경에 속해 있었는데, 남경은 개경 동경과 더불어 3대 도읍지의 하나가 되었다.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의 제 측면에서 중요한 비중을 갖고 있었음을 뜻한다.

고려시대에 불교는 국교로서 신봉되었는데 호국불교, 귀족불교, 기복불교라고 할 수가 있었다. 국가가 보호하고 승인함에 따라 불가에는 왕자와 귀족 자제들이 출가했으며, 사원들은 국가로부터 토지를 지급받았고, 승려들은 면역의 혜택을 입었다. 국가나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는 불교행사가 성행했는데, 팔관회, 연등회, 인왕도량, 무차대회, 반승, 경행 등이 그 대표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었다.

사상적 측면에서 볼 때 고려시대의 불교는 신라 말기로부터 성장한 선종과 화엄종이 변증법적으로 대립하면서 발전했다고 볼 수 있다. 화엄종은 한때 선종에 의해 위축되기도 했으나, 광종 대에 이르러 균여가 화엄종 내의 대립을 극복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중앙집권 체제의 성립과 문벌귀족의 대두는 선종 대신 의천으로 대표되는 화엄종과 해린, 소현 등의 법상종이 고려 중기 불교계의 주류를 이루도록 했다. 뒤에 화엄종의 의천은 국청사에서 천태종을 성립시키고 선교의 일치를 주장했다.

무신난을 겪으며 선종의 수선사와 천태종의 백련사를 중심으로 결사운동이 일어났는데, 이는 기층사회의 신앙으로 확산되었다. 지눌의 정혜쌍수사상은 혜심 등에 의해 계승되었으며, 지겸, 일연 등과 여말의 보우, 혜근 등의 고승이 배출되어 선풍을 떨쳤다.

고려조의 불교문화를 살펴볼 때 고려대장경은 단연 최고의 유산이라 할 수 있다. 고려대장경은 몽고와의 항쟁 속에서 나왔는데, 동두천을 비롯한 양주 지역은 고려가 몽고와의 전쟁을 치루는 동안 격전의 전략적 요충지였다. 고려청자에는 고려인의 심성이 반영되어 있으며, 오늘날 남아 있는 불화와 탱화

그리고 금은자 사경을 통하여서는 당시의 불교신앙을 미루어 볼 수 있다.

그러나 고려조의 불교는 권력층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타락의 양상을 띠었다. 왕실과 결탁하여 대토지와 노비를 차지하고, 소작, 양조업, 고리대금업 등을 통해 막대한 부를 형성하는 등 부조리와 타락상이 극에 달했다. 이러한 불교계의 모순과 타락에 신흥사대부들이 척불의 칼날을 들이대게 된 것이다.

4) 조선시대의 불교

선개혁 후건국을 모토로 한 조선왕조의 신흥사대부는 고려 말기의 모순을 개혁함으로써 신흥국가의 면모를 일신하고자 했다. 이들은 불교사상을 배척하고 성리학을 지배이념으로 정착시켜나갔다.

따라서 조선시대는 불교의 수난시대라 할 수 있다. 초기 조선의 통치자들에게 있어서 불교는 개인적 신앙으로서 명맥은 유지했으나 정치적으로는 척불의 과정을 밟아나갔다. 국가에 의한 불교의 억압과 정비책은 왕권강화와 재정확보를 위한 현실정치의 희생양이 되었다.

특히 태종의 억불책은 강력하여 사원의 재산을 동결하고, 노비를 몰수하였으며, 종단을 기존의 11종에서 7종으로 정비했다. 이를 세종 재세 시에는 선교양종으로 통합하였으며 양종에 각 18개의 사찰만을 공인사찰로 인정하였다. 승려의 수를 억제하기 위해 도첩제를 실시하였으나 경우에 따라 축성이나 도로공사 등 국가의 큰 토목공사에 동원된 승려들에게 도첩 또는 호패를 주기도 했다. 당시 36사찰만을 국가 공인 사찰로 인정한 것은 왕실과 국가에 필요한 목적을 수행케 하는 한편, 불교계를 철저히 통제하여 대부분 사찰의 전지와 노비를 회수하고 특권을 폐지하려는 것이었다.

이때 국가로부터 가장 많은 사원전을 지급받은 사찰은, 조선 초기의 최대 사찰인 양주 회암사로서 500결의 토지를 지급받았다. 또한 동두천 소요산에 위치한 소요사는 승려 70명과 토지 150결을 지급받았다. 소요사가 세종조 36사에 포함된 것은 태조가 기거하며 참배한 주사찰이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소요사는 조선 초기의 지정사찰의 면모를 점차 잃어가기 시작했는데, 이는 지속적인 억불책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소요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는 미수 허목이 쓴 〈소요산기〉가 유일하다.

세종 말년과 세조대에 사찰의 중건과 불경의 간행 등이 실시되는 등 불교계의

부흥 움직임이 있었고, 왕실의 비호 아래 사원에 막대한 토지와 노비가 급여되기도 했으나, 조선왕조의 주조는 억불책에서 변하지 않았다. 특히 15세기 후반부터 16세기 전반에 걸쳐 불교는 암흑시대를 맞게 되었는데, 연산군의 불교탄압은 극에 달하여 승려를 관노화하고, 선교양종 본사를 폐지하고 관사로 사용했으며, 원각사를 기방으로 만드는 등 정도를 넘어섰다고 할 수 있다.

명종대에 이르러 섭정 문정왕후와 보우에 의해 불교계의 숨통이 잠시 열렸다. 봉은사를 선종, 봉선사를 교종의 본찰로 하여 선교양종이 부활되고, 승과제도가 부활되어 휴정과 사명 등의 인재가 이때 배출되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며 서산, 사명, 영규, 각성 등의 의병승은 국가의 위난을 구하고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위로하였다. 이 같은 노력은 쇠퇴한 불교를 중흥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조선 후기의 불승으로는 서산대사의 위명을 잇는 사명, 언기, 태능, 일선 등이 있어 4대 문파를 형성하였고, 선수 문하에 각성과 희언 등이 있어 명맥을 이었다. 또한 백파와 초의를 중심으로 벌어진 선론은 조선 후기 불교계의 뜨거운 감자라고 할 만하였다. 한편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등 개화당 인사들에게는 불교사상이 적잖은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이는 유대치로부터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의 불교문화를 개관할 때 억불숭유정책에도 불구하고 불전간행 사업은 꾸준히 진행되었다. 세조는 25종의 불전과 9종의 국역본을 간행했고 인수대비 또한 37종의 불전을 중인하였다.

현재 소요산 자재암에도 조선 세조 10년에 제작한 『반야심경 언해본(보물 제1211호)』이 전해지고 있다. 간경도감에서 발행한 이 책은 『반야바라밀다심경』의 한글본이다. 당시의 대학자 한계희가 국역했으며, 훈민정음으로 국역한 경전이란 측면에서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5) 근대의 불교

조선 말기의 소요사의 흐름은 동두천 지역의 불교계를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가늠자라고 볼 수도 있다. 세종 때 36사의 하나였던 소요사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억불숭유책으로 인해 쇠퇴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었는데, 조선 말기에 이르러서는 전폐의 지경에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이로 해서 고종 9년(1872년)에 원공대사가 수락산 흥국사의 제암 응화화상의 도움을 얻어

소요사를 중창하고 영원사로 개칭하였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전국적으로 의병이 창궐하게 되었다. 이때 허위가 이끄는 의병 100여 명이 이곳 소요산에 주둔했는데, 왜병의 공격을 받아 영원사의 사우가 전소되었다. 이를 백월화상이 1909년부터 복원하기 시작하여 영산전을 중창하고 단하각을 지어 원효, 의상, 윤필 3대사의 화상을 봉안하는 한편, 다시금 자재암으로 불렀다.

근대의 불교계는 간난과 핍박을 통해 새로 태어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고종 32년 승려의 입성금지령이 해제되었고, 관리서가 설치되었으며, 원흥사에 불교연구회가 설립되었고, 곧이어 국가적 교단인 원종이 성립되었다. 그러나 종정인 이회광이 한일 불교연합을 획책하자 박한영, 한용운 등을 중심으로 한 승려들이 임제종을 세우고 이를 막았다.

이후 총독부는 사찰령을 제정하여 한국 불교를 규제했다. 사찰령이 시행되면서 30본산제가 실시되었고, 주지권한이 비정상적으로 커졌으며, 승려들의 타락이 가속되었고, 불교내부의 자정기능이 없어져버리는 등 많은 문제가 생겨났다. 이에 대한 반동으로 한용운의 『조선불교유신론』 등 불교유신론이 대두되었다. 1920년대 이후부터 조선불교청년회와 조선불교유신회 등을 중심으로 사찰령 폐지운동과 교단의 체질개선 운동이 일어났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얻지는 못했다.

광복 이후의 한국불교는 일본불교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새롭게 불교를 정비해나갔다. 즉 1945년 10월에는 사찰령(寺刹令)과 사법(寺法)을 폐지했으며, 초대종정으로 박한영 스님이 활동하였다.

한국전쟁 이후 불교계의 자각이 높아져가면서 불교정화운동이 일어났다. 선학원을 중심으로 정화운동이 시작되었으며, 이승만 대통령의 '불교정화유시'는 이러한 흐름에 불을 붙였다. 1954년 9월에는 선학원에서 전국 비구승려대회를 개최하여 '비구승단'을 발족하였으며, 종정에 송만암 스님을 추대했다.

현재 한국의 불교종파는 대한불교조계종에서 1970년 대한불교태고종이 분리된 이래 대한불교법화종, 선학원, 대한불교일붕선교종, 한국불교법륜종, 대한불교원효종, 대한불교일승종, 대한불교조동종, 대한불교천태종, 대한불교정토종, 대한불교본원종, 대한불교관음종, 대한불교삼론종, 대한불교진각종, 대한불교원융종, 한국불교미륵종, 대한불교법상종 등 많은 교단이 성립되었다.

2. 동두천의 불교

1) 동두천 불교계의 최근 활동

(1) 사암연합회의 재건과 포교활성화

동두천 불교계의 새로운 긴장과 활력은 사암연합회의 재건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현재 40여 개에 달하는 동두천의 사찰 중에서 80%가 넘는 33개 사찰이 사암연합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런 흐름은 법해 스님이 지난해 12월 동두천의 대표사찰인 자재암의 주지로 부임해오면서부터 시작됐으며, 지역 내 각 사찰의 의견이 수렴되면서 점차 탄력을 얻어가고 있다.

이러한 결속의 결실은 연합봉축행사와 지역 내 포교활성화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우선 2005년 연합봉축행사는 사암연합회 소속 33개 사찰이 참여하여 동두천 불교 사상 가장 성대하게 치렀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포교의 외연 확대는 지역 내 군부대며 관공서까지 확산되어가고 있다. 자재암의 법해 스님, 중화사의 용하 스님, 덕수사의 혜성 스님 등을 중심으로 군부대 포교의 활로가 모색되었고 영도암, 선화사, 반야사를 비롯한 많은 사찰이 적극적으로 후원에 나서고 있다. 군부대가 많은 동두천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1사찰이 1군부대를 지원하자는 것이 이 지역 불교계의 바람이요, 교세가 약할수록 더욱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게 최근의 정서라 하겠다.

관공서를 중심으로 한 재가불자의 신행활동도 활발해지고 있다. 동두천시청불자회인 삼보회의 경우 보문사의 정오 스님과 용하 스님을 중심으로 더욱 활발해진 포교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게 단적인 예라 하겠다.

(2) 불교예술과 산사음악회

동두천 지역에서의 첫 산사음악회는 2005년 10월 11일 군 법당에서 태동되었다. 김대성(성원) 법사가 불자장병의 사기진작과 군 포교 활성화를 위해 진중 산사 음악회를 시도했다. 이날 동두천 28사단 태평부대 대강당에 군장병, 군간부 및 가족, 출연자 등 840여 명이 모였다.

음악회는 군악대, 금강정사 · 봉은사 혼성합창단, '메주와 첼리스트'의 도완녀 공연, 성악가 유현주 씨, 대한불교 소년소녀 합창단, 마애불 풍물패 등의 공연이

이어졌고, 사단장인 박종선 소장이 직접 색소폰을 연주하기도 했다. '그리운 금강산'과 '한오백 년' 등을 연주한 '메주와 첼리스트'의 도완녀 씨는 "군대 공연을 많이 했지만, 오늘처럼 청중과의 교감이 된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지역사회에서 호평을 받은 산사음악회는 몇 해 지나지 않아 그 폭과 깊이를 더해 불교전통문화와 현대음악예술이 어우러지는 축제로 전개되었다. 3,000여 명의 불자와 시민이 모인 가운데 경기북부불교사암연합회가 2009년 4월 18일 동두천 자재암 야외특설무대에서 음악예술제를 개최했던 것이다.

이날 예술제는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1부 봉축법요식과 원효대사의 생애를 음악극과 오페라로 재해석한 2부 원효대사, 3부 개최기 이양식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2부의 음악공연은 원효대사의 일대기를 5장으로 표현한 감동의 무대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1장은 고양시연합합창단이 '무상', '참 나를 찾아서'란 노래로 원효대사를 찬양했고, 2장은 의정부, 양평합창단이 '산은 산, 물은 물이로다', '애착을 끊어라'란 노래로 원효의 일심사상을 드러냈으며, 제3장에는 양주시, 남양주시합창단이 '해탈의 기쁨', '님을 따라 날고 싶어라'란 노래로 원효의 화쟁사상을 표현했다.

제4장에서는 동두천의 룸비니합창단이 '영겁을 하루 같이', '연꽃처럼'을, 북부연합 합창단이 '연꽃처럼 피어 오르리'를 불러 원효의 무애사상을 노래했으며, 마지막장은 바라오페라단, 세종국악관현악단, 경기북부불교연합합창단이 오페라 '아미타불'을 공연함으로써 대서사를 마무리 지었다. 세종국악관현악단이 전체 연주를 맡았으며 비보이 팀, 김서형 무용단, 28사단 군악대가 특별출연하기도 했다. 이날 공연의 의의는 조계종 포교원장인 혜총 스님의 자평처럼 "불교의 대중화에 앞장선 원효 대사를 다시 현현시킨 뜻 깊은 행사"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이..... 현대음악공연을 통해 도민들과 소통하는 어울림의 자리가 됐다"고 보았다.

⑶ 불교계의 사회복지활동

동두천 지역 사회의 포교를 위한 사찰의 노력이 점차 지역의 문화와 복지활동에도 적극성을 띠게 되었다. 이는 불교교양대학의 개설, 수련원 건립, 경로잔치 개최, 장학금 지급, 교도소 재소자 교화, 합창단 창단, 유치원 건립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교세가 큰 사찰은 다양한 포교사업을 전개하기도 하고, 교세가 작은 사찰일지라도 사찰 역량에 맞는 맞춤포교에 나서는 모습이 한층 활기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사찰에 따라 수 년간 동두천 노인대학에 점심을 공양했는가 하면, 시 차원의 경로잔치를 열기도 하고, 사비를 들여 약수터를 건립하기도 하며, 유치원을 통해 어린 꿈나무에게 보다 나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러한 활동의 근저엔 사찰이 사회적 회향을 잃어버리면, 지역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자성이 깔려있기도 하다.

(4) 생명문제와 합동위령제

동두천이라는 특수한 역사적 지정학적 배경 속에서 소외된 중생들을 향한 불교계의 손길이 연고가 없는 기지촌 여성의 분묘 합동 위령제의 형태로도 나타났다.

자재암(왕산 법해스님)을 중심으로 한 경기불교사암연합회가 2008년 11월 5일 오전 동두천시민회관에서 기지촌 여성인권단체인 두레방과 동두천새움터, 동두천시의 후원을 받아 기지촌여성의 묘지로 추정되는 상패동 공동묘지의 무연고 분묘 합동 위령제를 봉행했다. 이날 합동위령제는 살풀이와 분향, 위령제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공동묘지로 자리를 옮겨 위패를 소각하는 천도의식을 봉행했다.

행사를 주관한 법해스님의 표현처럼 "그들의 그늘졌던 삶의 영혼을 위로하고, 부끄럽고 아프지만 그들도 우리 역사의 한 부분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 천도재를 봉행한 이 지역민들의 아픈 인식이다. 또한 미군기지촌 여성 지원단체인 '두레방' 유영림 원장의 지적처럼 "지금도 국내외 많은 여성들이 기지촌에서 미군들을 상대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으며, 국가차원의 적절한 지원 및 보상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게 하나의 과제이기도 하다.

(5) 다문화포교를 위한 용수사 개원

지구촌 다문화 세대를 위한 불교계의 접점을 동두천에서는 용수사(지원장 우르겐라마)에서 볼 수 있다. 동두천 용수사는 2008년 5월 18일 개원식을 가졌는바, 네팔 재외 이주민과 근로자들의 쉼터와 정신적인 의지처가 되고

있다.

개원식에는 동두천사암연합회 회장 겸 자재암 주지 왕산 법회 스님, 총무원 호법부 조사국장이며 안산 보문선원 주지이신 보림 스님, 까말 프라사드 코이랄라 주한 네팔대사, 재외 네팔 한국대표, 대통합민주신당 노웅래 국회의원, 한나라당 김성수 국회의원, 동두천 시 김진왕 문화체육과장, 양주 울타리회 홍순평 회장 등이 참석했다.

그 자리에서 지광 스님은 지구는 한가족이라는 바탕 아래 용수사는 네팔 이주민들의 센터로 활용해나갈 방침이며, 어려움에 처한 미얀마와 중국 등을 도울 수 있도록 모금을 해나갈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동두천 용수사는 능인선원이 직접 법당을 인수하여 제공한 절로서, 능인선원청년 YBA에서는 파키스탄과 스리랑카 등 오지마을에 학교를 지어주는 등 어려운 곳에 지원하는 많은 활동을 해왔다.

⑹ 국제적 불교 교류

동두천불교계의 국제적 교류 노력의 일단을 캄보디아 왕사 텝봉(Aggamahasangharajadhi- pati Tep Vong) 대종정 스님의 동두천시 방문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캄보디아 왕국 왕사인 텝봉 대종정 스님은 2007년 11월 24일 동두천시청을 방문했다. 이날의 방문은 한국과 캄보디아의 불교협의회 발족식에 참석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온 텝봉 대종정 스님이, 한캄 불교협의회 발족을 위해 모범을 보인 동두천 불자들의 노력에 감사하기 위한 것이다.

오세창 동두천시장은 캄보디아 왕사인 텝봉 대종정 스님을 맞이하여 "동두천시는 한캄 불교 협의회와 함께 캄보디아와의 문화교류 및 상호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으며, 텝봉 대종정 스님은 "양국간 교류증진에 가교역할을 하는 한편, 본인이 동서독 통일에 많은 관여를 한 바 있는데 동서독이 통일됐듯이 남북도 반드시 통일이 되도록 기도를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텝봉 대종정 스님은 2006년 4월 29일 SamdechPreahAggamahasangharajadhipati라는 칭호를 받고 캄보디아 왕국의 최고 종정으로 임명된 인물로서 달라이 라마, 교황 바오로 2세, 몸고 종정스님, 코피아난 유엔 사무총장과 같은 종교 지도자 및 세계 정상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종교계의 원로이다.

2) 동두천의 종단별 불교 현황

기존 동두천에는 대한불교조계종, 대한불교태고종, 대한불교일붕선교종, 대한불교용화종, 한국불교법륜종, 대한불교총화종, 대한불교일승종, 대한불교법상종, 대한불교본원종 등의 종단에 속한 사찰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한국불교법륜종, 대한불교법상종, 대한불교일승종 및 대한불교본원종에 속한 사찰이 소속 종단을 바꾸거나 명맥이 끊어진 반면, 조계종삼화불교 및 대한정토불교조계종 소속 사찰이 새로 생겨났다. 또한 태고종에 속하였던 사찰이 조계종으로, 법상종에 속한 사찰이 태고종으로 소속 종단이 바뀐 경우도 있으며, 사찰명이 바뀌어졌거나 주지나 암주가 바뀌어졌거나 폐쇄되었거나 신설된 사찰도 다수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자세한 내면과 이력을 밝히는 것은 현 주제를 벗어나는 것으로 여겨져, 현재 동두천 불교계를 이루는 각 종단 종파의 개략적 흐름과 사찰의 내역만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자 한다.

(1) 대한불교조계종

대한불교 조계종은 자타 공히 한국 불교 최대의 종단이다. 신라 도의국사가 개산한 가지산문에서 기원하여, 고려 보조국사 지눌의 중천을 거쳐, 보우국사 태고가 구산을 통합하여 조계종이라 공개적으로 이름붙인 데서 비롯되었다. 창종의 정신은 보조국사의 정혜쌍수 곧 선교일치에 있다.

근대적 의미의 조계종은 일제 식민 치하에서 태동하였다. 한일합방 직후인 1911년 일제의 불교 통합정책에 의하여 사찰령이 제정되고 31본산제도가 생긴 이후이다. 1923년에 재단법인 조선불교중앙교무원 이사(理事)제도가, 1924년에 조선불교조계종이 설립되었다. 총본산은 태고사에 있었다.

해방 이후 대한불교조계종으로 출발하였으나 1954년부터 1962년까지는 비구 대처 승려간의 분규로 불교정화운동이 계속되었다. 불교정화운동의 결과로 1962년 4월에 비구 및 비구니만을 인정하는 통합종단으로서 대한불교조계종이 재발족하였다.

이후 대한불교조계종은 1980년 10 · 27 법난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였으나 시대적 상황에 맞게 극복해 나왔다. 1994년 4월 10일에는 종단개혁의 의지를 담은 전국승려대회가 조계사에서 열려 개혁종단이 출범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조계종단의 종지는 석가모니의 '자각각타 각행원만'의 근본교리를 받들어 수행 · 실천하여 '직지인심 견성성불'의 법을 전함으로써 중생을 제도함에 있다. 종단의 주요기구로는 중앙종정기관인 총무원과 최고의결기관인 중앙종회가 있고, 별도로 포교원 등이 있다. 총무원 직할의 서울 조계사를 비롯하여 25교구본사가 있으며, 이들은 그 밑에 말사를 거느린다. 동두천에 위치한 제조계종단 사암은 남양주시의 봉선사에 속한 말사들이다.

〈표 4-14-1〉 조계종 사찰 현황

종파	사찰명	소재지	전화번호	비고
조계종	보문사	생연동 147-1	865-3374	
	일연사	송내동 180	865-4120	
	원각사	동두천동 37	865-8503	
	보광사	동두천동 122-1	862-7488	
	자재암	상봉암동 1	865-4045	
	원통사	광암동 466-6	867-3593	
	약수암	상패동 산10-1	864-0399	
	청량사	상패동 932-2	863-2269	
	반야사	상패동 550	857-4848	구)보리암
	중화사	보산동 산30	865-5520	구)동원정사
	중화사	상패동 4-2	862-8229	구)선양사
	흥륜사	안흥동 172-1	862-5444	
	서광사	상패동 시서함 92-1	862-6231	
	광명사	26사단 법당		
	천마사	걸산동 산72		
	걸산암	광암동 520-21	868-1279	
	관음사	생연동	868-3684	
	생연암	광암동 132-2	867-4664	
	불연암	상봉암동 30-15	868-8768	
	반야사			

(2) 한국불교태고종

한국불교 태고종의 전신은 조계종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불교계는 해방 후 전국승려대회의 결의에 따라 '조선불교조계종총본사태고사법'과 조계종명을 폐지하고 '조선불교'라는 단일 종단으로 출범하였으나, 3대 교정(종정)인 송만암 스님에 의해 '조계종'으로 종명이 환원되었다.

1954년 5월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촉발된 비구, 대처간의 대립과 갈등은 5 · 16혁명 후 불교재건위원회에 의해 1962년 '대한불교조계종'을 종명으로

통합 종단이 성립되었다. 그러나 중앙종회 구성의 쌍방 이견 대립으로 1970년 1월 박대륜을 종정으로 하여 통합종단에서 분리하여 태고종 종단을 발족하고 '한국불교조계종'과 통합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고려시대 태고 보우국사를 종조로 하며 석가세존의 자각각타(自覺覺他) 각행원만(覺行圓滿)한 근본교리를 받들고 태고보우국사의 종풍을 선양하여 견성성불(見性成佛) 전법도생(傳法度生)함을 종지로 삼고 있다.

소의경전은 『금강경』과 『화엄경』이며, 사설사암을 중심으로 하여 3,000여 사찰이 있다. 종단의 주요기구는 총무원, 중앙종회, 중앙사정원, 승정원, 포교원 등이 있으며 전국 각 지역에 25개 교구본사와 미주지역에 해외특별교구가 있다.

태고종에서는 사찰의 개인소유를 인정하고 있고, 승려의 결혼문제를 자율에 맡기고 있으며, 출가를 하지 않더라도 사찰을 유지하고 운영할 수 있는 재가교역자제도인 교임제도를 두고 있다.

〈표 4-14-2〉 태고종 사찰 현황

종파	사찰명	소재지	전화번호
태고종	선화사	안흥동 92-2	864-5764
	광덕사	상패동 산11	862-2617
	덕수사	상패동 766-1	862-6686
	대도사	송내동 29-1	865-4892
	영도암	보산동 304-27	867-8513
	자비암	상패동 산34	866-5286
	무심정사	상봉암동 54	867-7053
	자원암	안흥동 343	864-5452

⑶ 대한불교일붕선교종

대한불교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하여 서울 신영동 일붕선원 대법당에서 창종되었으며, 1991년에는 재단법인 등록을 필하고 종단을 통합하였다. 석가모니불을 교조로, 태고 보우국사를 종조로 한다. 일붕선교종을 창종한 일붕스님은 1932년에 제주도에서 출가한 이래 1950년대까지는 교학과 교율에 열중하였다. 1960년대부터 포교에 나섰으며, 1965년에는 한국 최초로 해외포교사가 되었고, 1992년에는 세계법왕청에서 초대 법왕으로 추대되었다. 대한불교일붕선교종은 석가모니의 자각각타 각행원만의 근본교리를 봉체하고

직지인심, 견성성불, 전법도생을 종지로 한다. 소의 경전은 금강경과 화엄경, 전등법어로 하나 기타경전의 연구와 염불, 지송 등은 제한하지 않는다.

대한불교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해마다 일붕존자의 열반일에는 일붕존자 추모대제(의령 일붕사)를 봉행하고 있다. 1987년 이래 일붕삼장대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본산은 일붕선원이며 전국적으로 소속 사찰이 1,000여 개에 달한다.

〈표 4-14-3〉 일붕선교종 사찰 현황

종파	사찰명	소재지	전화번호
일붕선교종	쌍용사	생연동 403	865-8170
	미황사	생연동 43-1	865-3093
	칠봉사	탑동동 562-1	867-8661
	약사암	탑동동 650-3	867-6391

(4) 대한불교용화종

대한불교 용화종은 1932년 진공이 전남 구례에서 구성사를 창건하고, 용화신앙의 재가수행을 권장한 데서 비롯된 불교 종단이다. 1935년 경남 하동에 포교당을 세운 후 1942년에 상불사를 짓고 그 곳에 총림을 두었다가, 1947년 전북 완주의 위봉사로 옮기고 호남 일대에서 교세확장을 시도하였다. 1963년 12월 '대한불교용화종'으로 불교단체 등록을 한 후 김제에 용화사를 창건, 총본산을 삼았다가 전주시 동완산동 원각사로 옮겼다.

인도의 무착과 중국의 현장을 종조로, 한국 법상종의 시조인 진표를 중흥조로 삼았으며, 본존불은 미륵불, 근본경전은 〈미륵대성불경〉이다. 주요 행사는 불교의 일반적인 행사 외에 음력 7월 보름날의 우란분재법회가 있으며, 중요 의결사항은 승려중전체대회에서 결의한다.

〈표 4-14-4〉 용화종 사찰 현황

종파	사찰명	소재지	전화번호
용화종	선덕사	생연1동 239	865-5564
	화장사	상패동 산 29	862-0419
	용운암	상패동 43	865-5403

(5) 대한불교총화종

대한불교총화종은 1960년 4월 15일 화동회를 창립하고, 같은 해 12월 30일 대한불교총화회라는 회명으로 불교단체로 등록함으로써 창종하였다. 1969년 5월 15일에는 대한불교총화종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1996년 제12대 종정으로 이동광 예하를 추대하고 제13대 총무원장에 전남정 스님이 취임하면서 종단의 면모를 일신시켰다. 현재 재적사찰이 987곳에 이르며, 신도수가 120만 명을 웃돌게 되었다. 총화종은 1998년 9월 17일 남양주시 천마산 수진사로 종단 거점을 이전하여 새롭게 종단 중흥의 시대를 열고 있다. 이를 위해 총화종 원찰 건립불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매년 3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중앙종회를 개최하여 종단의 현안과 종단발전을 논의하고, 전 종도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교육과 청소년 불교학교도 매년 시행하고 있다. 총화종의 종조는 태고 보우국사이며, 『화엄경』과 『반야경』을 소의경전으로 삼고 있다. 종지는 석가세존의 교리를 받들어, 대승행원과 육화정신을 닦아 생활과 직결된 대중의 현대불교의 구현으로 안심입명, 광도중생, 보국안민하는 데 있다.

〈표 4-14-5〉 총화종 사찰 현황

종파	사찰명	소재지	전화번호
총화종	관음사	생연1동 194	865-5287
	복천암	지행동 산13	865-7701

(6) 대한불교정토종

대한불교정토종은 삼국시대 이후의 여러 고승들이 유통시켜온 염불의 맥을 계승하여 1965년 신동환(申東煥) 대종사에 의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현동에서 종맥을 잇고(1953년에) 1966년 대한불교정토종포교원으로, 1972년 대한불교정토종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아미타불을 본존불로, 정토삼부경 『무량수경』을 근본경전으로 한다. 살아 있을 때의 안락과 죽은 뒤의 왕생극락을 염원하는 자력과 타력염불신앙을

닦으며, 염불선과 참선 수행을 병행하여 성불을 목표로 삼고 있다. 주요행사로 음력 2월 15일의 열반절, 4월 8일의 석탄일 성도제일 미타제일 관음제일 지장제일 백중기도 등이 있다. 근대에 들어 모든 불교의 저변에 정토사상이 기본이며 미래적 미륵사상과 연결이 되는 독특한 정토종으로 발전하고 있다. 대한불교정토종의 주요 기구로는 교무를 통할 · 관장하는 중앙본부와 최고의결기관인 교정중앙위원회 외에 고시원 · 사정원 등의 특별기관을 두고 있다. 현재 전국 10곳의 교구원과 5지구 지교구가 있으며 200여 곳의 사암에서 불법을 포교하고 있다.

〈표 4-14-6〉 정토종 사찰 현황

종파	사찰명	소재지	전화번호	비고
정토종	미륵사	상패동 3-9	865-4890	구)성불암

(7) 조계종삼화불교(曹溪宗三和佛敎)

율종인 조계종삼화불교는 1989년 7월 '대한불교 조계종 삼화불교 율학원'을 설립함으로써 태동되었다. 이듬해인 1990년에는 삼화불교대학을 세워 불교학과와 유아교육부를 개설했고 2002년 2월에는 (율종) 조계종 삼화불교를 창조했다. 당시 75사찰, 135명의 승려가 있었으나 2009년 10월 725사찰, 906명의 승려가 있는 종단으로 성장했다. 조계종삼화불교는 600여 년 당나라 도선율사가 창수한 계율종에 그 기원을 두고 신라 자장율사, 백제 진표율사를 율조로, 손혜인율사를 종조로 한다. 석가세존이 자각각타 각행원만한 근본교리를 봉체하며 청정계율을 중심으로 직지인심 견성성불 전법도생함을 종지로 한다. 본종의 소의경전은 금강경과 범망경 그리고 사분율이다. 기타경전 연구와 염불지송 등은 제한치 않는다. 현재 삼화불교에서는 종단차원에서 입종 5년, 수행 30년, 65세 이상 스님들에게 9급 공무원 월급(기본급)에 준하는 연금을 지급, 스님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수행을 중단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표 4-14-7〉 삼화불교 사찰 현황

종파	사찰명	소재지	전화번호
조계종삼화불교	대원사	상패동 3-14	865-4893

제2절 기독교

1. 기독교의 한국전래

1) 기독교와 한국의 접촉

⑴ 외국인의 표착

① 벨테브레

일본은 임진왜란 이후 천주교 신앙을 금지하며 천주교 국가인 스페인, 포르투갈 등과의 교류를 단절하였다. 그리고 상업적인 목적을 위하여 네덜란드 상인의 주재와 왕래만을 허용하고 나가사키 지역을 주류지와 교역처로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 상인들은 현재의 인도네시아인 바타비아 식민지를 중계지로 하여 조선의 남부 해역을 통과하는 항로로 일본과 교역하게 된다. 그리고 이 항로를 항해하던 네덜란드 상선이 풍랑을 만나 제주도로 표착하는 일이 있었다. 바로 벨테브레 일행과 하멜 일행이었다.

벨테브레는 1627년 상선 오우벨켈크 호를 타고 일본으로 향하다가 일행 2명과 함께 제주도에 표착하였다. 벨테브레 일행은 훈련도감에 편입되어 포술을 지도하다가 병자호란을 만나 남한산성 전투에서 벨테브레를 제외한 2명의 동료는 장렬히 전사하고 그만 혼자 남게 된다.

이후 조선에서 박연이라는 우리 이름을 하사받고 조선 여인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으며 생애를 마치게 된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조용하고 교양있는 신사였으며 자신이 믿는 도(기독교)를 설명하고 전하였다고 한다.

② 하멜

1653년 벨테브레에 이어 다시 이번에는 하멜 등 22명의 네덜란드 상인이

제주도에 표착하는데 이들도 벨테브레의 통역과 안내, 교육을 받으며 역시 조선군에 편입된다. 13년이 지난 1666년 이들 중 하멜을 비롯한 8명이 조선을 탈출하여 일본으로 건너가는 데 성공하여 결국 본국으로 돌아갔고 이 중 하멜이 자신의 항해와 표류 및 조선에서의 생활을 기록한 『표류기』를 써서 서양 사회에 조선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첫 사례가 되었다. 하멜 일행 역시 기독교인으로서 이들도 자신이 처한 환경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기독교를 전한 것으로 보인다.

1) 「역사 I」, 130쪽

(2) 기독교와 한국의 공식적 만남

한국의 기독교 전래는 중국, 만주, 일본, 미국의 네 경로를 통해서 구미 제국의 동양 진출과 때를 같이 하여 이루어졌다. 구미 제국은 먼저 중국과 일본의 문호를 개방시켜 무역 거래를 트고 외교관과 상인들을 상주시켰는데, 이 틈새로 선교 활동이 주로 교육과 의료사업을 통해 전개되었다.

① 귀츨라프

개신교 선교사로 가장 먼저 내한한 사람은 유대계 독일 태생의 귀츨라프(Karl Friedrich August Guetzlaff)였다. 그는 1726년 7월 네덜란드 선교회 소속 선교사로 동남아의 바타비아(Batavia)에 도착, 산둥반도를 거쳐 마카오에 이르러 모리슨(Robert Morrison, 馬禮遜 : 영국인 중국 선교사)의 집에 머물렀다. 거기서 영국의 동인도회사로부터 군함 로드 암허스트(Lord Amherst)호를 타고 한국, 일본, 대만 등을 순방하는데 통역 겸 의사로 동승해 달라는 부탁을 받는다. 동시에 모리슨으로부터 기독교 전도 문서와 한문 성서 및 선물을 받아 반포하라는 요구를 받아 이를 수락하여 최초의 한국 방문 선교사가 된다.[1] 그는 황해도 장산곶 부근에서 지방관을 통한 정부 당국과 접촉하는 데 실패하고는, 충청도 홍주만에 정박하면서 지방관을 통해 국왕에게 보내는 청원서를 선물인 귀츨라프 자신이 갖고 있는 성서와 전도 문서와 같이 보냈다. 그러나 결국 조정의 허락을 받지 못하여 한 달 만에 돌아가야 했다.

② 토마스

그 다음으로 한국 선교에 가담하여 순교까지 한 사람은 토마스(Thomas, Robert Jermain) 목사이다. 그는 영국인으로 런던 선교회의 후원으로 처음에

중국 선교사로 파견되었다. 1865년 지푸항에서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책임자인 윌리암슨(Williamson, Alexander)의 소개로 한국에서 온 두 명의 천주교 신자를 만나 한국에 대한 선교의 뜻을 품고, 윌리엄슨의 후원 하에 미국의 무장한 상선 제너럴셔먼(General Sherman)호를 타고 중국역 성경을 싣고 1866년 8월부터 두 달반 가량 서해안에 체재하면서 한국말을 배우고, 성서를 배포하며 적극적 선교 활동을 벌였다. 이어서 이 배는 대동강을 타고 올라가면서 통상과 선교를 요구했고, 무장선에 공포와 적의를 느낀 한국의 관민들과 충돌하게 되었다. 대동강 물이 줄면서 양각도 모래톱에 좌초한 배를 그들은 화공(火攻)을 퍼부어 모두를 타살하였다. 이것이 저 유명한 '셔먼호 사건'이다. 토마스 목사는 이 과정에서 끝가지 순결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통상적으로 알려져 왔으나, 이 과정을 볼 때 순교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2] 그러나 이를 통해 기독교가 전해진 것만은 사실이다.

③ 만주를 통한 기독교의 전래와 최초의 교회 '소래교회'의 설립

다음으로 만주를 통한 선교는 한국어 성서 번역과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가장 무게 있는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872년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회 선교사인 로스(Ross, John)와 매킨타이어(MacIntyre, John)가 만주 선교사로 왔다. 그들은 윌리엄슨의 충고를 받고 한국 선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토마스 순교 1주기에는 고려문(高麗門)을 방문하고 거기서 의주 상인 이응찬을 만나 한국말을 배워 '조선어 교재'도 편찬하고 본격적 성경 번역에 들어간다. 그리고 그를 비롯한 백홍준, 김진기, 이성하 등은 위의 두 선교사에게서 세례를 받아 한국 최초의 세례자가 된다. 그러는 사이에 최초로 번역된 성경이 1882년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로 나타난다.

한편, 국내에서는 로스가 안식년 준비를 하던 해인 1879년부터 백홍준의 전도로 신자가 생겼고, 미제본된 성경을 만주에서 반납케 하였다. 1882년부터는 서상륜(徐相崙)이 대영 성서공회의 권서(초창기 기독교에서 책을 팔러 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람)를 맡고 많은 복음서를 반포하였다. 이것 때문에 국내 최초의 '의주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었다[3]. 한편, 평양과 서울에도 이미 복음서가 배포되었으므로 서상륜과 서경조는 황해도 '소래'로 돌아가 전도하여 1885년까지 열심히 전도하여 신앙 공동체를 만들고 한국에서 최초의 교회인 '소래교회'를 창립하였다.

2) 이만열, 『한국기독교회 100년사』, 35쪽~36쪽 참조, 성경읽기사, 1985. 이하에서는 『100년사』로 줄여씀.

3) 경안노회 70년 편찬위원회, 『경안노회 70년사』, 78쪽, 기독교문화사, 1992. 이하에서는 『노회사』로 줄여씀.

④ 일본을 통한 기독교의 전래와 이수정(李樹廷)

일본을 통한 기독교의 유입은 1882년 일본 수신사 박영효의 비공식 수행원으로 간 이수정(李樹廷)에 의해 이뤄진다. 개화된 선진 문물을 시찰,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그는 기독교인 농학자인 츠다센(津田仙)을 만나 성경에 대한 교훈을 듣고 한문 신약성경을 읽으며 기독교에 접근했다. 이미 천주교와 개신교에 대한 지식을 가진 이수정은 그 해 축지교회(築地敎會)의 성탄절 기념예배에 참석하여 큰 감동을 받고 이듬해 4월 29일에는 노월정교회(露月町敎會)에서 세례를 받았다.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세례를 받은 이수정은 동경에서 열린 일본의 전국 기독교도 대친목회에 참석, 한국어로 공중기도를 하고 그 다음날에는 요한복음 15장을 중심한 자신의 최초의 신앙고백서를 발표하는데, 이것은 아직도 남아 한국인 복음의 수용 모습을 보여주는 귀중한 사료이다.

이 사건은 한국 선교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일본 주재 미국 성서공회 선교사 루미스(Loomis, H.)를 자극, 이수정으로 하여금 한글 성서번역을 권하게 만든다. 이수정은 성경번역에 몰두하여 1883년에 한자 성경에 토를 단 『현토한한신약전서』를, 1884년에는 한글 성서 번역인 『신약 마가전 복음서 언해』라 이름 붙인 마가복음서를 완역하여 각각 그 이듬해에 출간하였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처음으로 한국에 입국한 선교사인 아펜젤러와 언더우드의 손에 이 마가복음이 있었다. 이수정의 노력으로 일본에 체류하는 한국 유학생들 사이에는 기독교 개종의 바람이 불어 1883년에는 유학생 신앙 공동체가 결성되고, 교회 내의 교리문답반 주일 모임은 점차 발전하여 성경연구회로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나중 독립운동의 물결에 영향을 끼친다.

⑤ 기독교의 공식전래

제너럴셔먼호사건과 신미양요로 인해 부정적으로 꼬인 한국과의 관계를 미국은 수교와 통상을 체결하는 기회로 삼고자 하였다. 미국 해군부는 타이콘데로가(Ticon- deroga)호를 슈펠트(Shuffeldt, Robert W.) 선장에게 맡겨 청나라의 알선과 권유를 받은 한국과 1882년 5월 22일 제물포에서 조선 측 전권인 신헌 및 김홍집과 한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였다. 그 이듬해 7월 견미사절단(遣美使節團)이 제물포를 출발 일본을 거쳐 9월에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다. 거기서 다시 동쪽으로 철도로 여행하는데, 이때 그들은 해외

선교에 깊은 관심을 가진 가우처(Goucher, John F.) 박사를 만난다. 사흘간의 만남은 그에게 한국선교에의 열정을 불타게 만들어 2,000불을 헌금하게 하고 또 일본에서 활약하는 미 감리회 선교사 매클레이(Maclay, Robert S.)로 하여금 한국 선교 사업 개시의 타당성 여부를 탐사하도록 요청하는 편지를 썼다. 이리하여 매클레이 목사 부부는 1884년 한국에 도착, 승정원 승지인 김옥균을 방문하여 한국의 선교에 대한 청원서를 국왕에게 제출했다. 그는 한국 정부로부터 '교육과 의료활동'에 대해 허락 받았다[4]. 그리고 그 이듬해 아펜젤러(Appenzeller, Henry G.)가 교육 활동을 위해서 그리고 스크랜튼(Scranton, M. F.)이 의료사업을 목표로 입국했다.

이런 감리교단과는 별도로 미국 북장로교는 중국 의료 선교사로 파견되어 상해, 남경 등지에서 임지를 물색하던 알렌(Allen, Horace N.)을 한국으로 파견했다. 1884년 7월 본국 선교부의 임지변경을 허락받은 알렌은 9월 20일 제물포에 도착, 22일 서울에서 첫 개신교 주재 선교사의 임무를 시작했다. 공교롭게도 그해 12월 4일 일어난 갑신정변에서 부상한 수구파의 거두인 민비의 사촌 민영익을 알렌이 서양의술을 이용, 완치시켜 고종의 총애를 사서 시의가 되고, 이듬해는 왕립체제의 병원인 광혜원(나중에 제중원이 됨)까지 설립함으로써 본격적 의료선교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미 북장로교 선교부는 1884년 7월 24일 언더우드(Underwood, Horace G.)를 한국 최초의 선교사로 임명하여 일본으로 보내 이수정에게서 한국말을 배우게 한 뒤 감리교의 아펜젤러와 함께 한국으로 파송했다. 언더우드는 도착 즉시 광혜원에서 일하며 한국말을 배우면서 바로 거리로 나가 한국인에게 전도를 하여, 1886년 7월에 미국인 의사의 한국어 교사였던 노춘경에게 세례를 주었다[5]. 그 이듬해에는 14명의 신자가 언더우드의 사랑방에서 장로 두 사람을 선정하고 조직교회를 세워 한국장로교의 모 교회라 불리는 새문안교회의 기틀을 닦기에 이르렀다.

4) 『역사』, 178쪽~180쪽.
5) 『노회사』, 82쪽.

6) 현 동두천감리교회의 전신이다.

7) 우리나라의 최초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라 목사의 우리식 한자 표기이다.

8) 〈최병헌선생 약전〉 서울연회사 1에서 재인용

2. 기독교의 동두천 전래

우리 동두천 지역에 기독교가 전파된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1905년 이전에 이미 교회가 설립된 것만은 확실하다고 여겨진다. 동두천의 기독교는 최학보 씨에 의하여 황매동에 황매동교회[6]가 설립된 것이 시작이었다. 그는 기독교를 전하는 매서인, 혹은 선교인으로부터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온갖 박해 끝에 마침내 자신의 집에 교회를 설립하였다고 한다.

최학보라는 설립자와 황매동교회라는 최초의 교회는 확인되나 교회의 설립 시기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각각 나름대로 근거를 가진 3개의 다른 설명이 있어 이를 확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1) 1900년 이전 설

이는 기독교대한감리회가 발행한 『서울연회사』 1권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근거로 한다. 이화학교에 목우인(牧牛人)으로 근무하던 노형달(盧亨達)이 예수를 믿고 그 결과 그가 데릴사위로 있던 양주 독바위에 1898년 교회가 설립되었는데 그 교회가 바로 '옹아미교회', 혹은 다른 이름 '옹아니교회'이다. 그리고 최학보 씨는 이 옹아니교회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였을 것이라는 추론이다.

"1898년이라. 아편설라(亞扁卨羅)[7] 목사를 동반하야 양주 옹암리(瓮巖里)에 전도하니 이화학당(梨花學堂)에 목우인(牧牛人) 노형달(盧亨達)은 근본 양주 읍내인으로 파도(播道)를 소개(紹介)함이라. 그곳에서 강재희(姜在熙) 가(家)에 유(留)하엿시니 차(此)는 초숙(初熟)한 과실(果實)이요 현재 남감리회에서 열심히 역사(役事)하는 강조원(姜助遠) 목사는 재희 씨(在熙 氏)의 자(子)이러라[8]"

그런데 이처럼 아편설라와 최병헌의 전도로 시작된 독바위 선교는 남북 감리교 선교회 간의 선교지역 협정에 따라 양주와 고양 일대가 남감리회 선교지역으로 확정되면서 1900년 10월부터 남감리회 선교부가 맡게 되었다. 이로써 미감리회는 독바위 선교에서 손을 떼었지만 독바위교회는 '형제교회'인

남감리회 선교부로 넘어간 후에도 계속 발전하여 인근 의정부와 동두천, 포천, 연천 등지로 선교가 확장되는 거점이 되었다.[9]

9) 〈서울연회사 1〉 P 257 이덕주, 2007, 기독교대한감리회서울연회

2) 1905년 이전 설

이 설은 의정부감리교회를 담임하던 윤춘병 목사가 동 교회 설립 80년을 기념하는 『의정부감리교회 80년사』에서 양주군 남면 임관리교회의 정순창 장로의 증언을 바탕으로 주장한 것으로 그 증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05년 경성구역장으로 임명받은 무야곱 선교사의 지도 밑에 문산교회에서 신자가 된 송학서 씨 일가(송학서 씨와 그의 삼촌 송명선 씨와 송학서 씨의 자제 송명학 씨 등)가 연천군(현 양주군) 남면 임관리로 이주해 와서 살면서 임관교회를 세웠으나 송학서 씨가 천민(백정)이었으므로 임관리 부락에는 전도가 되지 못했고 구암리(龜岩里)의 정성삼 씨 등 이웃부락에서 호응 임관리교회를 다녔다. 그리고 임관리에서 10리 상거되는 오산리(梧山里)에서 송영선(宋英善) 씨가 신자가 되어 교회를 세웠는데 송영선 씨는 곧 전도사(현 장로)가 되어 양주구역에 큰 일꾼이 되었다.

…… 중 략 ……

복음은 계속 전파되어 황매동에는 최학보 씨(최요한 목사의 조부)의 노력으로 교회가 설립되었고, 양주군 고을이던 유양리와 포천군 소흘면 용상동과 송우리에 교회가 설립되었다. 그것이 1900년과 1905년까지의 5년간의 일이었다.

그리고 이 증언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자료가 있다. 1907년 남감리회 선교지방회에서 당시 서울구역을 담당하고 있던 하은셀(C.G.Hounshell)의 보고이다.

"서울 순회구역(circuit)은 시내와 고양, 파주, 교하(현 파주군 교하리 – 필자주), 양주, 그리고 포천 등의 지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순회구역 중 가장 급속한 성장을 보이는 곳은 포천구역입니다. 이 구역은 약 1년 전만 하더라도 아무런 성과도 없었던 곳인데 지금은 세 개의 희망적인 그룹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우리 선교부에서 강력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지경테와 서울의 중간지점에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지난 연회 이후

4개의 작은 교회(기도처 – 필자주)가 조직되었으며 3개의 비조직된 그룹들이 이 구역에 첨가되었습니다[10]."

위의 보고를 통해 파주, 양주, 포천, 김화지역의 기독교 전파시기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우선 이 보고서는 1907년 6월 20일에 열린 제11차 남감리회 선교지방회에 보고된 것이므로 1906년 9월 17일에 선교지방회에서 1907년 6월 13일까지 선교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1906년 이전에는 분명히 양주구역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양주구역이 연회록에 등장한 것은 이 기록이 최초이다.) 이 기록은 다시 말해 최소한 몇 개의 기도처가 양주군 내에 설립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 가운데 황매동교회가 포함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앞의 정순창 장로의 증언에 의하면 1905년 이전에 양주군에 황매동, 옹아니, 유양리 등에 교회가 설립되었다는 보고를 상기할 때 양주 구역 안에 황매동 교회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3) 1907년 설

이 설은 황매동교회의 설립자인 최학보 씨의 손자 최요한 목사의 증언으로 설립자의 직계후손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여보십시오, 여보십시오, 내 말 좀 들어보십시오" 장터에서 소를 팔고 돌아가는 최학보(20대 후반) 젊은이에게 낯선 외국인이 뒤를 쫓아오며 말을 건넨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면서 검은 포장의 책 두 권을 건네주면서 "나는 도마련 선교사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이고 또 이것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송가책입니다. 거저 드리니 가지고 집에 가서 잘 읽어보세요"

이것이 동기가 되어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최학보 씨는 매 주일 찾아오는 도마련 선교사와 함께 가족예배부터 드리기 시작했다. 부친의 완강한 반대에도 무릅쓰고 얼마 동안 이웃사람 몇 명을 모아 도마련 선교사 인도 하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세례를 받은 그는 그렇게 즐겨하던 술과 담배를 끊었다. 그리고 바쁜 시간에도 틈을 타서 같은 마을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도를 했다.

10) C.G.Hounshell, "Report of Seoul Circuit", MAMECS, 1907, p20

최요한 목사는 1907년 도마련 선교사의 전도를 받은 그의 조부 최학보 씨가 자기 집을 예배당으로 봉헌한 시점을 창립일로 보고 있다. 최요한 목사의 증언은 그의 조부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증언보다 상대적으로 그 정확성을 인정할 수 있다.

또 그의 증언 속에 나타나는 도마련(M.B.Stocks)의 선교활동이 1907년에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그의 증언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다. 도마련 선교사는 1907년 9월에 입국하였으며, 그 다음 해 9월 16일 제13차 남감리회 한국선교지방회에서 송도동구역 선교책임자로 파송을 받는다. 이때에는 현재의 양주군을 송도동지방에서 관할하였으며 그 구역은 양주군, 포천군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1908년 9월 이후에 스톡스가 양주군의 선교를 책임지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이전에도 주로 스톡스가 입국 후 1년 동안 양주군 지역에서 주로 선교활동을 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최요한 목사의 증언 또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

한편, 일제가 발행한 총독부 관보 소화 5562호(1928년 11월 2일자)에도 동두천예배당의 '포교책임자'로 감보리에 이어 '도마련'이 취임 승인을 받고 있어 도마련과 동두천교회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게 해 준다.

이상 세 설은 모두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있어 어느 것이 보다 신빙성이 있는지 확증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1907년 이전에 황매동에 교회가 설립되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다.

3. 동두천 기독교의 발전

1) 동두천의 감리교회

1900년경에 설립된 동두천의 개신교회인 '황매동교회'는 감리교회였다. 이는 기독교가 전래되던 초기에 한국에 진출한 여러 나라의 선교회가 각각 지역을 나누어 선교와 교회설립을 담당하는 가운데 우리 동두천 지역은 감리교회 선교구역에 속하였었기 때문이다. 이 때 설립된 황매동 감리교회는 1950년대에 이르기까지 동두천 지역의 유일한 기독교 교회로 발전과 부침을 거듭하게 된다.

특히 어려웠던 일은 교회의 사역을 담당할 교역자가 없어 양주 구역의

11) 국민일보 쿠키뉴스 포토에서 전재

구역장이 가끔 들러 설교와 성례를 담당할 뿐 전문적인 예배 인도자가 없어 신자들의 성장과 교회의 부흥이 어려웠다는 점이다.

교회의 설립자인 최학보 씨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으나 교회가 있던 황매동은 인구가 조밀하지 못해 교회가 창립이 된 후에도 별로 발전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최학보 씨는 교회를 옮기기로 작정하고 1920년(추정) 황매동 북쪽 2km 지점인 '경기도 양주군 이담면 동두천리 160'으로 교회를 그대로 뜯어서 옮겼다. 옮긴 그곳은 면소재지였으며 장터였기 때문에 보다 많은 전도의 열매가 있으리라 기대했기 때문이다. 교회의 건평 수는 12평 정도였으며 초가 6칸의 협소한 예배당이었다. 물론 그 내부는 모두 헐어 마루를 깔아 앉을 수 있게 하였다.

이때 동두천지역에서 야학운동을 하던 마준수 씨가 야학 장소로 교회를 사용하게 해주면 야학에 관련한 청년들이 교회에 나오겠다고 제안하여 이를 받아들여 교회 건물을 야학 장소로 사용하게 되었고 마준수 씨와 그 동료들이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시작하였다. 마준수 씨는 후에 교회의 초대 장로가 되었으며 1928~1930년까지 약 20여 년간 교회의 관리와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 마준수 장로는 이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동료들과 함께 야간학교를 시작했다. 야간학교의 이름은 무진(戊辰)청년회였다. 이때 함께 야학교사로 활동한 이들은 마준수(회장) 외에 석춘봉, 이득춘, 이만춘, 한원탁, 박창배 등 여러 명이었다. 이들은 야간학교를 그 후 한 일 년 육 개월 정도 계속 운영하였다.



1963년 교회가 재건될 때까지 동두천교회 예배당으로 사용된 최학보 씨의 초가. 처마에는 '우체국 가는길'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어 일부 자료에는 이 집이 '동두천우체국'으로 잘못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어려움이 말이 아니었다. 책상이 없어 사과궤짝을 구해다가 책상으로 사용하였다. 학생은 약 30여 명 정도였다. 무진청년회는 이들 학생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무지에서 벗어나도록 힘쓰는 한편 은근히 애국사상을 심어주었다.

이러한 청년들의 활동을 일본 경찰이 눈치 채지 못할 리가 없었다. 일본 경찰은 어디서 들었는지 야학을 통해 애국사상을 주입시킨다고 정보를 듣고 야학을 금지시키고 말았다.

그렇게 되자 교회도 큰 타격을 받았다. 우선 야학교사들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교회가 활기차게 모였었으나 일제의 탄압이 있자 얼마 되지 않는 교인들도 예배 참석하는 것을 꺼려 예배시간에도 교인들이 별로 모이지 않았다. 그래서 얼마간 교회는 폐쇄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기간 동안 마준수 씨가 교회를 유지하며 관리하였다.

교회가 상당기간 폐쇄 상태에 있던 중 군포에서 동두천으로 이주한 최종문 씨가 교회의 상황을 안타까이 여겨 최학보, 마준수 씨와 함께 다시 교회를 재건하기로 하고 설교를 맡아 이후 다시 교회가 정상화했고, 이후 의정부 구역에 부임한 김영배 전도사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교회는 점차 부흥되어 간다.

제5회 감리교 연회에 보고된 다음의 자료를 보자.

"양주구역은 의정부, 동두천, 구곡리(구암리의 오기인 듯함 – 필자주), 용상동 교회와 유양리, 오산리, 축석령 등 3개 기도처로 조직되었으니 이 구역 역시 말할 수 없이 빈약한 구역이였습니다만은 이 구역을 담임하신 김영배 전도사가 열심히 일하신 결과 의정부에 석재로 큰 예배당을 신축하고 이 교회는 놀라운 발전이 있어 자급도 10원 미만하던 곳에서 앞으로는 20여원이 되게 하여 큰 소망이 있으며" [12]

이후 담임 교역자를 모셔야 한다는 절실한 필요에 따라 교회는 어려운 형편 가운데 교회 건물에 잇대어 6평 정도의 사택을 마련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초대 담임교역자인 차은혜 전도사가 부임하여 3년간 사역하게 되었고, 협성신학교 학생들이 하계 또는 동계 방학을 이용하여 전개한 농촌계몽활동의 일환으로 동두천교회를 방문하여 활동하기도 하였다. 전순덕, 전밀라, 임은임, 고송옥 등은 교인의 자택이나 교회 등에 체류하며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한글과 산수, 노래 등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였다.

한편 침략전쟁을 확대한 일제의 민족 말살정책이 강화되면서 교회에 대한

탄압도 강화되어 많은 교회가 폐쇄되는 가운데 의정부 구역의 교회도 대부분 폐쇄 합병되었으나 동두천 교회는 의정부에서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다행히 존속하게 되어 그나마 교인들이 흩어지지 않고 어렵게나마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해방이 되면서 동두천 교회는 새로이 발전의 계기를 맡게 되었다. 특히 이북에서 기독교인 피난민들이 몰려오면서 당시 교파를 막론하고 동두천 지역에 존재하는 유일한 교회인 동두천감리교회에는 교인들이 몰려들었고 김성관 전도사가 담임 사역자로 초빙되어 신앙지도에 열심을 다한 결과 어린이 성가대를 비롯한 예배조직이 만들어지고 여름성경학교 같은 지역민을 상대로 한 교회 행사가 마련되는 등 면모를 일신하게 되었다

한편, 한국전쟁 당시 전화로 소실된 교회가 미국 군인이었던 데이비드 댄범 씨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재건되기도 하였다.



데이비드 댄범 씨와 그의 동료들은 헌금을 모아 전쟁으로 불탄 동두천교회를 재건했다. 댄범 씨는 휴일마다 교회 재건 현장에서 지게를 졌다.

2) 장로교회의 전래

동두천 지역의 장로교 전래는 조국분단과 함께 한국전쟁이 계기가 되었다. 동두천 지역에는 1900년경에 설립된 동두천감리교회가 해방 후까지 유일한 기독교 교회로 존재하였다.

그런데 해방 후 남북이 분단되고 북한 지역의 피난민이 삼팔선을 넘어 남하하여 동두천지역에 정착하였고, 바로 이어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더욱 많은 북한 출신 피난민이 정착하는 지역이 되었다. 북한 지역에 진주하였던 국군과 UN군이 중공군에 밀려 다시 남하할 때 이를 따라 피난하였던 북한 주민들이 북진하는 국군을 따라 귀향하던 중 휴전선이 고착되고 귀향길이 막히게 되자 그대로 현지에 머물게 되었는데 동두천, 의정부, 양주, 인천 등지는 황해도 출신이, 속초, 양양 등지는 함경도 출신 북한 피난민이 주류를 이루게 된다. 동두천에 정착한 북한 피난민 중 상당수가 기독교, 특히 장로교인들이지만 당시 동두천에는 장로교회가 없어 그들은 부득이 감리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는데 이들 월남한 장로교인들이 바로 동두천 지역 장로교회 설립의 모태가 되었다.

평양에서 월남하여 1953년 당시 대구에 피난해 있던 장로회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평양노회에서 목사로 안수받은 청년 강신경 목사는 그해 4월 101사단 19연대의 군목으로 부임하여 의정부에 주둔하게 된다. 그는 의정부에 금오교회(지금의 의정부동부교회)를 설립하고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전도에 몰두하던 중 다시 101사단 18연대로 전임되었는데 이 18연대가 주둔하던 곳이 바로 양주군 이담면 안흥리였다. 그는 이곳에서 의정부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교회를 설립하게 되는데 이 교회가 바로 동두천 지역 최초의 장로교회인 〈안흥교회〉로서 1953년 10월의 일이다. 그는 교회와 함께 지역의 전쟁고아를 모아 수용하는 〈안흥보육원〉을 운영하는 한편, 이들 고아들과 빈민 자녀들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성경구락부를 설치하고 이어 신흥공민학교, 동두천직업학교 등을 설립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전도와 봉사의 영역을 확대해 갔다.

3) 동두천 지역 기독교의 발전

안흥교회에 이어 설립된 장로교회가 바로 동성교회이다. 동성교회의 연혁에 의하면 1955년 5월 1일 오길훈 전도사 외 7명의 교인이 동두천 감리교회에서 분리하여 교회를 설립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이 설립예배를 역시 강신경 목사가 인도하고 있다. 이후 1968년 이 동성교회에서 신광교회가 분립하였고 같은 해 동성교회에서 분립한 신광교회 교인 몇 사람이 김진영 장로를 중심으로 다시

13) 〈동두천대관〉 1958. p12

은성교회를 분립하게 된다. 한편 동두천제일장로교회 역시 1966년 동성교회의 교인 일부가 박창복 전도사를 중심으로 분리 설립하여 합동측 교단에 가입하게 된다.

한편, 최초의 장로교회인 안흥교회로부터 분리도 계속되어 노성철 목사, 김호익 장로, 안병희 집사 등이 중심이 된 일부 교인이 1962년 창말교회를 설립한데 이어 동두천장로교회, 성광교회, 중앙교회 등이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교회를 분리하게 된다.

1957년에 발간된 〈동두천대관〉의 종교 부문, 기독교 항에는 동두천 지역의 교회가 다음과 같이 파악되어 있다.

교 명칭	포교자 성명	소재지	신도 수		
			남	여	계
장로교 동성교회	장순철	생연3리	80	100	180
안흥 장로교회	강신경	안흥리	120	80	200
감리교 동두천교회	원석기	생연5리	50	70	120

이후 동두천 지역의 교회는 교세의 증가에 따른 측면, 즉 거리가 멀어서 부득이 근처에 별도의 교회를 세운다거나 교회 내부의 갈등에 따라 교회를 분리하는 양상이 나타나면서 교회의 수가 증가하기 시작한다. 물론 이에는 동두천이 미군 주둔지가 되면서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의 증가와 월남한 실향민들이 귀향하고자 북진하다가 분단이 고착되면서 현장인 동두천에 영주하는 데 따른 인구 증가 등 여러 요인에 기인한 시세(市勢)의 확장이 더 큰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977년에 발간된 『양주군지』에 나타나는 동두천 지역의 기독교 현황을 보자.

해당 자료에는 1977년 7월 31일 현재 양주군 전체에 5개 교파 106개의 교회가 있고, 그 중 동두천 지역에는 4개 교파 16개의 교회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를 도시(圖示)하면 다음과 같다.

교파별	교회	비고
장로교	신광, 중앙, 동성, 은성, 동두천, 동두천제일, 안흥, 창말, 성암, 광성, 미디안기도원	10개 교회 1개 기도원
감리교	지행, 제일, 동두천	3개 교회

성결교	동두천	1개교회
침례교	동두천	1개교회



이로부터 3년이 지나 1980년에 발간된 『동두천시 향토지』에는 교회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6개 교파에 모두 50개의 교회가 나타나고 있다. 불과 3년만에 2개 교파에 34개의 교회가 증설된 것인데 이와 같은 폭발적 증가가 1977년의 『양주군지』 자료에 나타나지 않은 미파악 자료가 반영된 것인지 아니면 기독교 내부의 요인으로 인한 양적 증가인지는 후일 보다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해당 자료에 나타나는 개신교 교회 상황은 다음과 같다.

교파별	교회	비고
장로교	시민, 대명, 축복, 소명, 제일, 은성, 성지, 목양, 동은, 동산, 동신, 동두천, 성광, 안흥, 창말, 성암, 제일소망, 광주, 남산, 동령, 보영, 중앙, 동성, 경일, 송내, 낙원, 신흥, 광성, 서림, 은광, 신광, 생명, 동부, 탑동, 한일, 소망, 미디안기도원	37개 교회
감리교	복된, 제일, 동두천, 지행	4개 교회
성결교	중부, 동두천, 동두천성결	3개교회
침례교	동두천제일, 동두천, 생연	3개교회
순복음	동두천, 동두천 중앙	2개교회
구세군	동두천	1개교회

1980년 이후 1990년을 거치면서 동두천 지역의 기독교교회는 꾸준한 증가가 계속되기는 하나 이전의 폭발적인 증가는 나타나지 않는다. 1998년에 발간된 『동두천시사』에 나타나는 동두천의 기독교회는 모두 53개로 1980년 향토지 자료보다 불과 3개가 증가하였는데 아래에서 검토하는 바처럼 일부 오류가 있다하여도 이 기간 교회의 증가는 거의 답보수준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자료에 근거하여 1998년 동두천 기독교 상황을 한 번 살펴보자.

교파별	교회	비고
장로교(39개교회)	시민, 소명, 제일, 은성, 성지, 목양, 동은, 동산, 동두천, 성광, 안흥, 창말, 성암, 제일소망, 남산, 동령, 보영, 중앙, 동성, 경일, 송내, 낙원, 신흥, 광성, 서림, 은광, 신광, 생명, 동부, 탑동, 소망, 미디안기도원 (32개 교회)	1980년 자료에서 연속
	대명, 축복, 동신, 광주, 한일 (5개 교회)	1980년 자료에는 있으나 소멸
	반석, 사동, (2개 교회)	새로 설립
	보영, 동성, 낙원, 은광, 신흥 (5개 교회)	교회는 있으나 1998자료에는 누락
감리교 (5개 교회)	복된, 동두천, 지행(3개 교회)	복된, 동두천, 지행(3개 교회) 1980년 자료에서 연속
	제일, (1개 교회)	교회는 있으나 1998년 자료에는 누락
	동두천중앙 (1개 교회)	새로 설립
성결교 (5개 교회)	중부, 동두천, 동두천성결(2개 교회)	1980년 자료에서 연속
	동두천(1개 교회)	1998년 자료에서 연속
	성심, 나눔(2개 교회)	새로 설립
침례교 (5개 교회)	동두천제일, 동두천, 생연(2개 교회)	
	생연 (1개 교회)	소멸
	평강, 믿음, 방주(3개 교회)	새로 설립
순복음 (2개 교회)	동두천 (1개 교회)	1980년 자료에서 연속
	동두천 중앙 (1개 교회)	소멸
	동두천 선교 (1개 교회)	새로 설립
구세군 (1개 교회)	동두천 영문	1980년 자료에서 연속

위의 자료에 나타나는 것처럼 1980년에서 1998년까지 18년간 동두천 지역에는 7개의 교회가 폐쇄, 소멸되고 9개의 교회가 새로 설립되어 1998년 당시에는 모두 57개의 교회가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른 지역이 이 기간 폭발적으로 교회가 증가한 것에 비하면 대단히 느린 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4. 동두천 기독교의 현황

한국의 교회는 교회의 내 · 외적 요인으로 말미암아 교단이 지속적으로 분립하여 현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칭하는 교단만 거의 100여 개에 달하는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체적으로 보수적인 교리를 고수하는 교단과 진보적인 교리를 소유하는 교단으로 양분되고, 이는 다시 다양한 지역적 색채와 정치적 주장을 표면에 내세운 많은 교단으로 세분되는바 이와 같은 한국 교회의 분열상은 동두천에도 적용되어 현재 동두천 지역에는 다양한 교파와 교단에 속한 교회들이 존재하게 되었다. 이를 대분하여 지역의 각 교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장로교

(1) 장로교의 성립

장로교는 장로주의(Presbyterianism)에 따르는 모든 교회를 일컫는 교파이다. 칼빈(J · Calvin)이 주장한 것으로, 교황권을 부정하고, 교회의 교도(敎導) 경영을 장로들의 합의에 따라 하도록 조직하였다. 칼빈의 사상은 독일 · 네덜란드 · 프랑스 등지로 전파되었는데, 스코틀랜드에 이르러 녹크스(G · W Knox)가 이를 체계화하였다. 미국에서는 1628년에 제1 네덜란드 개혁파 교회가 설립되었으나, 남북전쟁으로 남 · 북장로파로 분열되었다가 1958년에 양파가 합동을 이루었다. 영국은 청교도혁명의 독립파에 대립하는 종파인 동시에 정치에서도 한 당파를 이루었다.

장로교가 한국에 전래된 것은 1884년 미국 북장로회 소속 의료선교사인 알렌(H.Allen)이 인천에 상륙하여 고종의 어의(御醫)로 활동한 때부터이다. 1년이 지나 언더우드 목사가 정식입국하고, 1889년에는 호주 장로교의 선교사 데이비스(Davis)가 내한하여 선교하였다. 한국에는 선교사가 입국하기 이전에 이미 한국인에 의하여 성경의 일부가 번역되었고, 황해도 소래(松川)에 최초의 교회가 설립되기도 하였다.

1887년에 언더우드가 자택에 교회를 설립하였는데, 이 교회는 현 새문안교회의 기초를 이루었다. 1893년에는 남 · 북장로회선교회가 합하여 선교공의회를

조직하였고, 1898년에는 캐나다장로회에서 많은 선교사가 입국하여 원산에서 캐나다장로회 선교부를 조직하고, 호주 선교부와 함께 참여하여 조선예수교장로회 공의회를 조직하고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이 해에 마포삼열(馬布三悅: Samyel Austin Moffett) 목사가 그의 집에서 평양신학교를 개설하였다. 1907년에는 평양에서 조선예수교장로회 독노회를 조직하고, 1912년에는 독노회를 해체하고 조선예수교장로회를 조직하였다. 일제는 한국교회 억압책으로 1938년부터 신사참배를 강요하였고, 이에 저항하던 주기철 · 최봉석 등 50여 명의 목사들이 순교하였으며, 평양신학교가 강제 패쇄 되었다. 이때에 조선장로회는 해체되어 일본기독교 산하의 조선장로교단으로 흡수 · 개편되었다.

해방 이후에는 교단 재건운동이 활발히 진행되어 1949년에 대한예수교장로회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1951년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에서 고신파가 분리되고, 1953년에는 김재준 목사를 중심으로 한 조선신학교(현 한구신학대학 전신)가 중심이 되어 한국기독교장로회를 구성하여 분리되었다. 또한 1959년에는 승동교회를 중심으로 한 합동측, 연동교회를 중심으로 통합총회가 구성되어 예수교장로회는 다시 양분되었고, 1972년에는 다시 대신파가 분열되었고, 합동파는 주류 · 비주류로 갈리었다. 이같이 장로교파는 여러 교단으로 분산되었으나, 현재 개신교 최대의 교파로 크게 발전하고 있다.

(2) 장로교 교회 현황

①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

연번	교회	교역자	교단	주소	전화
1	성광	김연규	예장합동	동두천동 523-6	865-8005
2	창일	권주일	예장합동	상봉암동 142-7	867-5717
3	동두천소망	권순익	예장합동	상봉암동 84-4 쇠둔치8	867-0927
4	벧엘	김양곤	예장합동	상패동 23	867-4395
5	동산	김춘택	예장합동	생연동 400	865-5063
6	동두천제일	김성수	예장합동	생연동 557-56	865-2905
7	한세	권상원	예장합동	생연동 85 기상 상가 2층	861-3651
8	온누리	박훈	예장합동	송내동 주공아파트 309-501	858-3881

9	동두천제일	김성수	예장합동	중앙동 557-56	864-7272
10	경일	김민희	예장합동	중앙동 570-185	865-3455
11	드림	박찬규	예장합동	지행동 718 메인프라자 402	859-4024
12	성암	유충성	예장합동	하봉암동 314	865-2822
13	동두천 성실	김해섭	예장합동	생연동 426-8	857-1823
14	은혜와 진리	신경수	예장합동	송내동 673-4 경동빌딩 5층	858-6575
15	새마음	곽대근	예장합동	생연동 825-13	858-9341
16	새한	윤장한	예장합동	상패동 229-3	864-3140
17	성광	김연규	예장합동	동두천동 530	865-8005
18	수정	장성봉	예장합동	지행동 38	866-7933
19	신천	신희재	예장합동	보산동 보산주공A 103-109	865-8621
20	예은	조유래	예장합동	상패동 23 6/5	862-7835
21	충만한	김광균	예장합동	지행동 270 지행주공상가 2층	867-4789

②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

연번	교회	교역자	교단	주소	전화
1	탑동	최준	예장통합	광암동 205-5	867-5887
2	광성	황호준	예장통합	광암동 486-2	867-2679
3	창말	윤동석	예장통합	동두천동 289	868-4241
4	안흥	김원용	예장통합	동두천동 539-2	866-7854
5	보영여종고	박종상	예장통합	보산동 522-1	864-3247
6	언덕위의신흥	김명득	예장통합	상봉암동 205-2	867-0255
7	동두천반석	오성환	예장통합	상패동 113-1	863-0198
8	동성	원덕훈	예장통합	상패동 135	864-2523
9	서림	황종협	예장통합	상패동 281-1	862-6887
10	주님의	김의성	예장통합	상패동 42-5	861-3698
11	세움	송인호	예장통합	상패동 65-15	
12	동령	이정광	예장통합	생연1동 160-4	865-8007

13	보영	박선진	예장통합	생연1동 519	865-8204
14	동령	이지성	예장통합	생연1동 산 8	865-8007
15	이레	최연건	예장통합	생연2동 4 4층	861-0963
16	동두천중앙	홍범용	예장통합	생연2동 714-7	863-2523
17	이레	최연건	예장통합	생연2동 814-5	864-0191
18	낙원	공지태	예장통합	생연동 303-2	862-7030
19	신광	이현구	예장통합	생연동 362	864-3401
20	하늘꿈	송순희	예장통합	생연동 487-15	863-3532
21	동두천은성	안윤상	예장통합	생연동 547	865-3504
22	돌사랑	김민호	예장통합	생연동 713-5 2층	866-1424
23	사동	임병우	예장통합	생연동 786-7	862-2819
24	청아한	전진호	예장통합	송내동 3	867-9104
25	송내	함점용	예장통합	송내동 580-1	865-7804
26	새샘	남정쇠	예장통합	송내동 659-2 우진프라자 3층	859-0091
27	복음	박문수	예장통합	송내동 664-6 주공아파트 309-905	858-1855
28	참좋은		예장통합	송내동 675-1	861-3030
29	아리울	이달영	예장통합	송내동 695 송계프라자 4층	862-5333
30	은성	안윤상	예장통합	중앙동 547	865-3504
31	수정	장성봉	예장통합	지행동 307-1	866-7933
32	내행	박만오	예장통합	지행동 695-5 대행프라자 801	868-8291
33	예닮	신영택	예장통합	지행동 718-2 성지빌딩 801	862-0199
34	충신	양종환	예장통합	지행동 대방사인힐 701-1002	861-0696
35	수정	장성봉	예장통합	지행동 산 8	866-7933
36	동두천임마누엘	김상도	예장통합	하봉암동 13-4	866-1004
37	아름다운	장만근	예장통합	동두천동	867-9125
38	동두천	김원제	예장통합	동두천동 220-58	865-2930

③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 총회

연번	교회	교역자	교단	주소	전화
1	미디안	한상훈	예장개혁	안흥동 193-1	862-7019
2	은혜	강용호	예장개혁	지행동 송내주공아파트 112-105	827-8769
3	상봉암	윤영미	예장개혁	상봉암동 3876	865-2216

④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연번	교회	교역자	교단	주소	전화
1	복음제일	홍근표	백석	생연1동 497-23	864-4061
2	성일	김삼재	백석	생연동 254-3	864-0421
3	샛별	지승우	백석	생연동 522-8 샛별빌딩	866-1850
4	그루터기	김종성	백석	동두천동 345	862-3348
5	정동	이성철	백석	생연2동 809 세아아파트 1815	859-3430
6	천둥	오탁선	백석	생연동 대방노블랜드아파트 203-1503	864-7588
7	초대	소주호	백석	송내동 송내주공아파트 505-104	859-5284
8	충성	마준성	백석	송내동 주공아파트 308-1203	823-6379
9	동은	한기평	백석	지행동 268-11	865-3531
10	에덜	곽홍승	백석	지행동 692-3 대방상인힐 801-802	864-2733
11	고은	이광연	백석	지행동 송내주공A 111-1205	857-8398
12	주향	김삼재	백석	생연동 426-19	864-0321

⑤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연번	교회	교역자	교단	주소	전화
1	한사랑	이정봉	예장고신	보산동 407-49	868-6264
2	예일	강영용	예장고신	상패동 361-18	867-6816

⑥ 대한예수교장로회(고려)

연번	교회	교역자	교단	주소	전화
1	동두천 시민	조일상	예장고려	지행동 282-18 지행현대아파트 상가	868-4205

⑦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대신)

연번	교회	교역자	교단	주소	전화
1	예수사랑	이진호	예장대신	생연동 30-2	862-3927
2	상록수	김봉겸	예장대신	송내동 693-3	861-3516
3	전진군인	양만성	예장대신	송내동 송내주공아파트 405-402	857-6739

⑧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

연번	교회	교역자	교단	주소	전화
1	목악	강보선	예장웨신	생연동 349-1	862-8045

⑨ 대한예수교장로회(호헌)

연번	교회	교역자	교단	주소	전화
1	일심	박용웅	예장호헌	경기도 동도천시 탑동동 831-1	868-4086

⑩ 대한예수교장로회 (선목)

연번	교회	교역자	교단	주소	전화
1	양주온누리	김부곤	합동선목	지행동 송내주공아파트 115-683	858-6842

⑪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동신)

연번	교회	교역자	교단	주소	전화
1	광명	송재익	합동동신	지행동 294 무궁화 301	858-5213

⑫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개혁)

연번	교회	교역자	교단	주소	전화
1	흰돌	김정은	합동개혁	보산동 307-5	863-7305
2	임마누엘	박경희	합동개혁	생연2동 669-13 2,3층	010-9642-8558
3	동산	임영희	합동개혁	생연동 400	865-5063

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중앙)

연번	교회	교역자	교단	주소	전화
1	근원	이경옥	합동중앙	지행동 275-19	825-0961

⑭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총연)

연번	교회	교역자	교단	주소	전화
1	경일	박옥분	개혁총회	생연동 787-2 건영아파트 102-1401	211-2818
2	성도전원	심만섭	개혁총연	송내동 220-3	867-0904
3	보라	문봉희	개혁총연	송내동 송내아파트 416-1404	010-5590-8001
4	섬김의	김춘철	개혁총연	지행동 273-11 우리빌라 301	010-3325-9306

⑮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정통)

연번	교회	교역자	교단	주소	전화
1	평강	김정성	개혁정통	상봉암동 274-1	868-6236

⑯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연합)

연번	교회	교역자	교단	주소	전화
1	빛나는	오성용	개혁연합	생연동 246-1 한영아파트 304	866-4035

⑰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국제)

연번	교회	교역자	교단	주소	전화
1	제자	조정일	개혁국제	걸산동 102	866-5522

⑱ 대한예수교장로회(총신측)

연번	교회	교역자	교단	주소	전화
1	신천	신희재	총신측	보산동 400-1 보산주공아파트 103-109	865-8621

⑲ 한국기독교장로회

연번	교회	교역자	교단	주소	전화
1	북부선교	김재선	기장	생연동 635-5 향우회관 2층	863-0191

⑳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측)

연번	교회	교역자	교단	주소	전화
1	은혜	김형종	예장	생연동 286	862-8714

㉑ 대한예수교장로회(순장측)

연번	교회	교역자	교단	주소	전화
1	동신교회	이근우	순장	생연동 286	863-9960

2) 감리교

(1) 감리교의 성립

감리교파는 1729년 영국에서 웨슬리(John wesley)에 의해 시작된 개신교이다. 웨슬리는 옥스퍼드대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신성클럽(Holy Club)을 조직하여,

청년들에게 종교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규칙적이고 조직적인 행동을 강조하였다. 이 때문에 메소디스트(Methodist:格式主義)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다. 이들 조직원은 성경, 신학 연구에 힘쓰고 빈민, 병자, 죄수를 찾아 전도에 열성을 다하였다. 원래 웨슬리는 영국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독자적인 운동을 폈다. 이에 영국교회는 그의 설교를 금지하고, 미국에 파견할 선교사의 안수를 거절하자 그는 독자적으로 자신이 직접 안수를 하면서 실제로 한 교파로 분리, 형성하였다. 교리는 사도신경에 제시된 크리스트교 신앙에 근거하고 있으나, 감리교의 특색은 교리보다는 실제적인 생활과 성격의 진리를 실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 감리교가 전래된 것은 1884년 미국 북감리회 소속 맥클레이(Maclay) 박사가 내한하여 교육·의료·선교사업의 허락을 받고 활동하기 시작한 때부터 비롯된다. 1885년에는 아펜젤러(Appenzeller) 목사 부부와 스크랜톤(W·B,Scranton) 의사 부부가 내한하여 교육·의료·선교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1887년에는 미국 남감리교회가 통합하여 기독교 조선감리교회를 조직하고, 양주삼(梁柱三) 목사를 초대 총리사로 선출하기에 이르렀다. 일제의 탄압 속에 1944년에는 36개의 교회가 패쇄되는 수난을 당하였으나, 1945년 광복 이후 다시 감리교회가 재건되었다. 그러나 곧바로 재건파와 부흥파로 분열되더니, 1949년에는 양파의 합동총회가 개최되어 대한감리회를 조직하고 헌법을 제정·공포하였다. 이때 김유순(金裕淳) 목사가 감독으로 선임되어 통합을 이루었다. 이후 1954년에는 호헌파가 분리되었다가 다시 합동을 이루고(1959년), 1961년에는 예수교 대한감리회(전통)를 창립하더니, 1962년에는 전덕성(全德姓) 목사가 예수교 대한감리회를 조직하였으나, 1974년에는 갱신총회가 분리되었다가 다시 합쳐 감독제가 폐지되었다.(1978년)

미국 북감리교회와 남감리교회의 전도로 성립된 우리나라의 감리교단은 일찍이 통합을 모색하여 1930년에는 조선감리회를 성립시켰다. 그러나 해방 이후 재건파와 부흥파와의 분리·통합, 초헌파의 분리·통합, 갱신총회의 분리·통합이 반복되는 가운데 기독교 대한감리교회, 예수교 대한감리회(전통), 예수교대한감리회로 크게 구분된다. 감리는 기독교 개신교파가 믿는 복음주의이며 교육·의료·사회사업에 정성을 다하고 있다.

(2) 감리교 교회 현황

① 기독교대한감리회

연번	교회	교역자	교단	주소	전화
1	성민	이정민	기감	상봉암동 226-9	868-1255
2	예향	김희성	기감	상패동 556-3	857-4219
3	남북	양만호	기감	생연1동 498-25	865-0351
4	동두천중앙	김희창	기감	생연1동 511-14	863-3186
5	섬기는	김경한	기감	생연2동 66-6	863-1507
6	좋은	유상무	기감	생연2동 805-3 상가 2층	866-1004
7	열방	정상복	기감	생연동 342-4 203	
8	생연	이인한	기감	생연동 402	867-4433
9	영은	임성수	기감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403	867-4433
10	아름다운	정지은	기감	생연동 49	862-0175
11	함께하는	신종서	기감	생연동 612-12 은하빌딩 5층	864-0691
12	동두천제일	권태호	기감	생연동 616	862-4444
13	하은	이재상	기감	생연동 825-13	859-0730
14	지행	이성진	기감	지행동 338	865-8808
15	동두천	이양로	기감	지행동 690	865-7288

3) 침례교

(1) 침례교의 성립

침례교는 크리스트교의 한 교파로 침례의식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붙인 명칭이다. 이 교파가 한국에 전래된 것은 1899년 캐나다 선교사 펜윅(Femwick)이 내한하여 서울, 황해도, 원산 등지에서 선교하면서부터이다. 1906년에는 강경에서 31개 교회로 대한기독교회를 조직하고 만주, 시베리아 등지까지 교세를 확장시켰으나, 1921년에는 일제의 강요로 동아기독교회로 명칭을 바꾸었고, 해방 이후 1949년에는 대한기독교침례회가 되었으나, 미국 남침례교 선교사 존아버나티 부부가 내한하여 활동함으로써 활기를 띠게 되었다.

한국전쟁 후 1952년에 대한기독교연맹 총회로 명칭을 바꾸었고, 1959년에는 대한기독교침례회 연맹총회가 이탈·독립하더니 마침내 1968년에는 침례교파가 합동하여 한국침례회를 조직하고 1976년에 이르러 기독교한국침례회가 되었다.

(2) 침례교 교회 현황

① 기독교한국침례회

연번	교회	교역자	교단	주소	전화
1	동두천	김영호	기침	보산동 392-1	865-3077
2	문을여는	정기한	기침	안흥동 38	922-8864
3	성신	최규선	기침	지행동 275-18	864-3076
4	양의문	나석주	기침	지행동 292-10 하이텍아파트 201	
5	우림	신영춘	기침	지행동 666-2	862-1380
6	믿음의	성금동	기침	지행동 671-2	862-8604
7	동두천중앙	김종식	기침	지행동 719-3 현대프라자 701	866-5278

② 선교침례회

연번	교회	교역자	교단	주소	전화
1	제일	서능제	선교침례	하봉암동 397	02-914-2541

③ 기독교한국침례회(연맹)

연번	교회	교역자	교단	주소	전화
1	동두천 성락	홍명선	기침연맹	지행동 275-5	862-7082

4) 성결교

(1) 성결교의 성립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1920년에 카우만(C.E.Cowman)과 길보룬(E.A.Kilbo lune)이 동경에 동양선교회 복음전도관을 창설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들은 복음전도관에서 4중복음(四重福音), 즉 중생(重生)·성결(聖潔)·신유(神癒)·재림(再臨)을 교회의 중요한 명제로 삼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영혼 구제를 도모하려는 신앙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교파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은 1907년 김상준(金相濬)과 정빈(鄭彬) 두 사람이 일본에서 귀국하여 전도활동을 시작할 때부터이다. 이들은 일본 동양선교회 성서학원을 졸업한 후 귀국하여 종로 감곡(監谷, 현 무교동)에 동양선교회 선교사 카우만과 길보룬의 도움으로 동양선교회 복음전도관을 설립하였다. 이것을 발판으로 하여 1910년에는 동양선교회총본부에서 파견한 영국인 토마스(John Thomas) 선교사가 활동하였고, 드디어 1911년에 성서학원(서울신학대학 전신)을 설립하게 되었다.

동양선교회 복음전도관은 1921년에 이르러 기독교중앙선교회 성결교회로 명칭을 바꾸고, 1932년에는 조선성결교회 자치를 선언하고 장로제를 시행하였다. 이후 유지재단의 설립, 연회의 조직 등 교세 확장에 주력하던 중 일제의 탄압을 받아 많은 교역자와 신도가 순교를 당하고 옥고를 치루는 등 수난을 겪었다.

1945년 해방 후에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로 명칭을 바꾸고 재건사업을 추진하다가 한국전쟁을 맞아 다시 수난을 겪는다. 1951년에는 미국에 본부를 둔 동양선교회 주한선교부가 활동을 개시하고, 마침내 1957년 선교 50주년을 맞아 기념관 건립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였다. 1961년에는 연합기관의 탈퇴문제로 일시 교단이 분리되어 현재에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와 예수교대한성결교회로 나뉘었다.

⑵ 성결교회 현황

① 대한기독교성결교회

연번	교회	교역자	교단	주소	전화
1	동두천	장헌익	기성	상패동 67-8	863-3411
2	중부	민흥식	기성	상패동 310	862-0604
3	행복한	신인호	기성	지행동 686-1	866-0191

② 대한예수교성결교회

연번	교회	교역자	교단	주소	전화
1	돌단	최광채	예성	보산동 410-28	863-7924
2	나눔	김미숙	예성	생연1동 163 생연주공아파트 101-104	862-5473
3	참좋은	박기제	예성	생연동 268-5 조흥아파트 4-206	861-3030
4	성심	전영주	예성	안흥동 391	886-0691
5	평안한	차익성	예성	지행동 292-6	866-3907

5) 순복음교

⑴ 순복음교의 성립

이 교파는 기독교오순절파의 한 갈래로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본래의 명칭이다. 오순절파는 1829년 독일 출신의 미국인 목사 빈브래너 (J.Wnbrennre)가 창설하였다. 이 교파가 한국에 전래된 것은 1928년 미국에서 럼시(Mary C.Rumsey) 선교사가 입국하여 선교본부를 설치하고 활동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어 1932년에는 일본에서 박성산과 배부근이 입국하여 서빙고교회를 설립하고, 교세를 확장해 가던 중 일제의 종교 탄압으로 외국선교사가 강제 추방되어 수난을 겪게 되었다.

1945년 광복을 맞아 오순절 신학을 공부하고 귀국한 곽봉조·윤성덕·

김성환·김진윤 목사가 각각 교회를 세우고, 활동하던 중 6·25사변으로 다시 시련을 맞이하였다.

오순절운동이 직접 하나님의 성회와 연결된 것은 미국 하나님의 성회 소곡 채스넛(Arthur.BChesnut,) 선교사가 내한하여 박성산 목사와 함께 본격적으로 활동한 결과 1953년에 하나님의 성회를 창설하게 된 때부터이다. 그러나 1959년에는 미국의 아세아 선교부장 케참 목사가 내한하여 2만 달러를 희사하고, 선교활동을 강화함으로써 교단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이때 중앙복음회관이 건립되고, 신학교 이전 계획이 수립되고, 분열되었던 대한기독교 오순절교회도 다시 통합되었다.(1972년)

1981년에는 다시 교단에 분규가 일기 시작하였다.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 총회임원과 간부들은 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장 조용기 목사를 문책하고 재명처분 운운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때 순복음교회에서는 끝까지 해명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순복음교회가 교단을 탈퇴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혼란 속에 '하나님의 성회 본부'는 동양선교부장 허스트 목사를 파견하여 교단의 화합을 꾀하고, 양측에 중재를 시도하였으나 성과가 없었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한국 하나님의 성회를 주도해 온 중심 교회로서 하나님의 성회를 탈퇴하자 뜻있는 오순절파 교인들은 새로운 교파 창설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이 무렵 1984년에 미국 하나님의 성회 총회장 짐머만(T.F.Zimmerman) 목사와 조용기 목사 사이에 새로운 협약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여의도순복음교회가 국제 하나님 교회에 가입한 교단으로 새로이 예수교 대한하나님성회를 창립하여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와는 무관한 새 교파로 출발하였다. 이후 두 교파는 상호 갈등을 빚더니 기독교하나님의 성회와 예수교하나님의 성회는 1971년 통합선언대회를 열고 다음해 정기총회에서 통합을 선언하였다. 이로써 분열된 교단은 10여년 만에 다시 결속되었다.

(2) 순복음 교회 현황

①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연번	교회	교역자	교단	주소	전화
1	평화로	송기환	기하성	생연동 361-22	861-9101
2	동두천	이기준	기하성	생연동 567-9	865-4092
3	열린문	백수근	기하성	지행동 693-2 생연프라자 8층	857-9101

6) 구세군

(1) 구세군(Salvation Army)의 성립

1878년 영국의 부우드(Booth)에 의하여 창립된 민중전도(民衆傳道)와 사회사업에 열중하는 기독교 교파이다. 부우드는 처음에는 감리교파의 전도자였으나, 이제까지 전도방법은 서민계급의 구제가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런던 동부의 빈민굴에 들어가 구제운동을 일으킨 것(1865년)이 구세군의 창립동기가 되었다. 처음에는 동 런던 복음전도회로 시작되었으나(1877년), 조직과 제도를 군대식으로 개편하면서 구세군이라 불렀다(1878년). 교리는 중생(重生) · 성결(聖潔) · 봉사(奉仕)이며, 종교적 군대 조직으로서 사관(士官)과 군인의 제복 착용 · 군기 · 군악 등을 채용하는 것이 특색이다.

입군(入軍)의 조건은 엄정한 금주, 단체주의에 대한 충성에 있으며, 종교활동은 전도사업과 사회사업으로 양분되어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군영(軍營)과 지영(支營)이 전 세계 93개국에 16,792개소에 이르며 단원은 약 46만 명이다. 또한 136종의 간행물이 매달 200만 부 이상 발간되고 있다. 사회사업으로는 고아원 · 양로원 · 병원 · 숙박소 · 부녀구제소 등 약 46종에 2,200여 개소를 운영하고 그 외에 801개의 학교, 285개의 육 · 해 · 공군에 사업소를 설치 · 운영한다.

만국본영(萬國本營)은 런던에 있고, 서기관부가 있어 아시아 · 아프리카 · 유럽 · 미국에 각각 민국서기관을 파견하여 담당하고 있다. 각 군국에는 군국사령관이 엄격한 군령과 군률로 군국본영을 통활하고, 지방본영과 영문은 지방사관과 담임사관이 주관한다. 철저하게 군대식 계급 칭호를 두고, 보고 · 지시 · 검열이 엄격한 조직체이다.

구세군대한본영(救世軍大韓本營)은 1908년 영국의 사관인 호가아드(Hoggard)에 의해 전래되었다. 부우드 대장이 1907년 일본을 방문하였다가 한국 선교를 결심하고, 호가아드 정령(正領) 등 사관을 보내 평동에 본영을 설치한 후 사업을 시작하였다. 현재 본영은 서울 정동에 있다. 본영의 부서는 총무서기관 밑에 비서부 · 재무부 · 자산부 · 사회사업부 · 가정단부 · 청년부 · 번역 겸 편집부가 있다. 이외에 유년단 · 소년단 · 소녀단 · 의용단 · 청년단 · 거화단(炬火團)의 부속조직과 구세군 · 사관학교가 있다. 본영 밑에는 서울 · 충청 · 충서 · 전라 · 경상 · 경동으로 전국에 지방군영을 설치하고 운영한다.

(2) 구세군영문

연번	교회	교역자	교단	주소	전화
1	동두천	이운승	구세군	상패동 51-13	862-4471

7) 기타 교파

(1) 후기성도 예수그리스도교회

① 후기성도 예수그리스도교회(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의 성립

이 교파는 1830년 조셉 스미스가 미국 뉴요크주의 맨처스터에서 창립한 교단이다. 이 교파는 신 · 구성서 외에 스미스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여 만들었다는 『모르몬경』을 경전으로 삼았기 때문에 모르몬교라고도 부른다.

이 교파는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을 믿는 점 등은 정통적 크리스트교와 같으나, 스미스에 내린다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특수한 현현(顯現), 『모르몬경』, 시간과 공간은 무한한 것이고, 물질은 영원한 것이나 하나님에 의한 피조물(被造物)이 아니라고 하는 점 등은 일반 크리스트교와 상반되는 내용이다. 이 때문에 많은 회의를 느끼는 경우가 있다.

모르몬교의 교인들은 12세가 지나면 안수를 받고 성직자가 되는데, 전문적인 성직자는 없다. 스미스는 1843년 계시에 의해서 일부다처제를 인정한다고

발표하자, 여러 곳에서 중혼(重婚)을 규탄하는 여론이 비등한 적도 있다. 1844년 스미스는 군중에 의하여 살해되었다. 이때 상당수의 교인이 살해되거나 피신하는 사태가 일어났고, 중혼문제는 미국 대법원이 개입하여 금지시켰고, 교회에서도 이를 금하는 결의를 발표함으로 일단락되었다. 스미스의 후계자가 된 브리암 영은 1847년 본부를 유타주 솔트레이크로 옮겨 이후 30년간 교세(教勢)를 크게 떨쳤다.

한국에는 1951년 김호직(金浩稙) 박사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침례(浸禮)를 받고 귀국하여 부산에서 미군들과 함께 예배를 본 후부터 퍼지기 시작하였다. 현재 국내의 신자 수는 약 6만 5,000명에 이르고 활동하는 선교사는 300여 명이다.

② 말일성도 예수그리스도교회 현황

동두천시에는 그간 동두천지부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폐쇄되고 의정부 와드에서 모임을 가지고 있다.

교파	교회명	대표
말일성도	동두천지부	정명제

⑵ 여호와의 증인

① 여호와의 증인의 성립

미국에서 기원한 크리스트교 종교단체이다. 미국 뉴욕시 브루클린에 있는 위치타워 성서책자협회(Watch Tower Bible and Tract, Society of Pensylvania)를 국제 본부로 236만여 명의 증인들이 있다. 성서에 나오는 여호와(야훼), 즉 우주의 창조주이며 주권자인 여호와의 명칭을 그대로 인용하여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다.

이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인류의 유일한 희망으로 믿고 전파한다. 또한 성경전서가 야훼의 영감으로 기록된 유일한 지침서이며, 예언서라고 믿고 이의 성취를 확신하고 가르친다. 침례를 행하며 인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한다. 이 교단에서는 사람의 법과 성서의 법이 충돌할 때는 양심적으로 성서의 법을 우선순위에 두며, 교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없고, 보수를 받고 성직에 종사하는 일도 없다.

회중(會衆)단위로 집회장소인 왕국회관(王國會館)을 갖고 있으며, 매주 5시간의 정기 집회를 갖는다. 성경 자격을 가진 남자들이 장로 혹은 감독자로서 회중을 돌보고 있다. 교단에서는 『파수대: The Watchtower』, 『깨어라: Awake』,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진리』 등을 발행하는데 모두 각국어로 발행하고 있다. 한국에는 1921년에 선교사 홀리스터가 전파하기 시작하였고, 1952년에 이르러 사단법인 위치타워 성서책임자협회가 설립됨으로써 전국 각 지역에 분포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약 545개 회 중에 약 3만 명의 증인들이 있다.

②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 현황

동두천시에는 현재 1개의 왕국회관이 있다.

교파	교회명	대표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	임승태

(3) 통일교

① 통일교의 성립

세계기독교통일 신령협회(世界基督敎統一 神靈協會)가 본래의 명칭이다. 이 교파는 1954년 문선명(文鮮明) 목사가 창시한 신흥 그리스도교파이다. 통일교는 세계의 모든 교회를 신령과 진리로 통일하여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세계를 만들고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발전하고 있다. 이들은 선교활동을 한국에 국한시키지 않고 미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한다.

1957년에 통일교의 교리서인 『원리강론(原理講論)』을 완성하여 체계를 수립한 후 해외에 선교사를 파견하고 교회를 설립하는 등 선교활동에 힘쓴 결과 세계 130여 개국에서 신자를 확보하였으며, 전 세계의 300만 신도를 거느리고 있다.

교리는 유일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간의 아버지로 믿으며 신 · 구약성서를 경전으로 받들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인간의 구주인 동시에 복귀된 선(善)의 조상으로 믿는다. 또한 예수님은 반드시 한국에 재림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으며 인류사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의 대가족사회가 될 것으로 믿는

가운데, 구원 섭리의 최종 목표는 지상과 천상에서 악과 지옥을 없애고 선과 천국을 세우는 데 있음을 믿고 있다.

통일교단의 중요사업은 교육 사업으로 선문대학과 선화예술중 · 고등학교, 언론활동으로는 국내에서 《세계일보》를 미국에서 《워싱톤타임지: Washington Times》, 《뉴욕트리뷴지: Newyork Trbune》를 발간하고 있다.

이 외에 통일산업, 일화(一和) 등 여러 사업체를 운영한다.

② 통일교 교회 현황

동두천시에는 현재 1개의 교회에 약 150명이 등록되어 있다.

교파	교회명	대표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통일교	통일교회	우두호	생연1동 464-4	865-4541

(4) 안식교

① 안식교의 성립

그리스도의 재림과 안식일 엄수를 강조하는 기독교의 한 교파이다. 1830년대 후반부터 1840년대 초반에 걸쳐 미국 뉴잉글랜드 지방을 중심으로 윌리엄 밀러(W.Meller) 주도 하에 재림운동이 진행되었다. 이때를 이 교파의 효시로 본다. 신도들은 교파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계명 중 넷째 계명, 즉 제7일 안식일을 준수하고 그리스도가 개체로 재림할 것을 고대하며 이를 가장 큰 소망으로 믿고 있다.

이 교파가 한국에 소개된 것은 1904년 하와이로 이민 간 손흥조(孫興祚)가 일본에서 진리를 전해 듣고 이를 임기반(林基盤)에게 전한 후, 이에 흥미를 느낀 사람들이 일본의 구니야히데(國谷水) 목사와 일본 주재 선교사 피일드(Field)를 초청하여 전도대회를 연 데서 비롯된다. 1905년에는 스미스 목사가 첫 번째 선교사로 내한하여 순안에서 교육사업과 출판 사업을 시작하였다.

1915년에는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이근억(李根億), 정문국(鄭文國)이 목사 안수를 받고 계속적으로 전도에 힘써 교세가 확장되어, 1919년에 이르러 조선합회 제 1회 총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식민통치기에는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지도자가 탄압을 받고, 투옥되었으며, 연합회장 최태현(崔泰鉉) 목사가 순교하는 등 수난을 당하였다.

1945년 광복을 맞아 교회를 재건하고 합동총회를 개최하였으며, 1987년에는 공산권 선교를 위한 Awr 아시아방송국을 설립하여 한국어 등 8개 국어로 복음을 전하는 등 선교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삼육대학을 비롯하여 27개의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교육사업, 위생병원 운영, 삼육식품공장 운영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② 안식교 교회 현황

동두천시에는 현재 1개의 교회에 신자 167명이 등록되어 있다.

교파	교회명	대표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안식교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임종갑	생연동 51	865-5914

(5) 한국천부교

본래의 명칭은 '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 약칭 '전도관'이었으나 후에 교주인 박태선이 기독교적 관점을 모두 폐기하고 새로운 교리를 정립하면서 '한국천부교'라고 변경하여 오늘에 이른다.

6·25 직후 대한예수교장로회 남대문교회 집사였던 박태선은 장로 임직을 받고 자신의 영적 체험을 바탕으로 수도권 일대에서 부흥집회 등을 인도하다가 기존의 기독교회로부터 이단성을 지적받게 되자 1955년 6월 소속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경기노회를 탈퇴한 후 '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이하 부흥협회)를 만들었다. 이후 박태선 장로는 원효로전도관을 시초로 전국에 자신을 추종하는 신도들로 구성된 많은 전도관을 만들게 되는데, 당시 박태선 장로는 이 부흥협회를 이끌면서 자신을 동방의 의인이며 성경에 나타난 참 감람나무인 자신을 통하여서만 구원받는 천국백성이 될 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설교하면서 교세를 점차 확장해 나갔다.

교세가 성장하자 부흥협회는 1957년경 신도들을 규합하여 공동생활을

통하여 신앙심을 돈독히 하고 자녀교육과 의식주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신앙촌' 건설에 나섰다. 바로 경기도 부천시 계수동, 소사동, 범박동 일대 약 43만 평의 황무지를 개간하여 300여 동의 주택과 50여 동의 공장, 각종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1만 명 이상의 신도를 입주시켰던 것이다. '소사 신앙촌'의 탄생이었다.

신앙촌은 독특한 운영체제를 고집해 관심을 끌기도 했다. '주인 없는 상점'이 운영되었던 것이다. 말 그대로 돈을 받는 사람이 따로 없이 구매자들이 양심에 따라 값을 치르는 가게로 그 계산이 1원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맞았다고 알려졌다. 또, 신앙촌 입주는 희망한다고 해서 임의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부흥협회의 엄격한 심사와 승인을 받아야만 임시로 주택을 배치 받아 입주가 가능하기도 했다.

부천 소사 신앙촌의 성공으로 부흥협회에서는 신앙촌 건설을 계속해서 이어나갔다. 1962년에는 경기도 덕소에 '덕소 신앙촌'을, 1970년에는 부산에 '기장 신앙촌'을 각각 설립했다. 신앙촌이 중 · 장년층의 뇌리에 강하게 남아있는 것 중 하나는 각종 생필품을 교인들이 생산해 이를 시중에 내다 팔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신앙촌의 각종 기업이 100여 종이 넘는 생산품으로 성가를 높였다. 1960~1970년대 생필품의 극심한 부족 현상으로 제품을 생산하기에도 급급했던 이 시기에 신앙촌 생산 제품은 신앙인의 양심에 기초한 품질 좋은 제품으로 경제에 도움을 주기도 했었다.

1980년경 당시 부흥협회 초대회장이던 박태선 장로는 1980년 1월경부터 "내가 천지를 창조한 하느님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성경과 예수, 십자가 등 기존의 기독교적 색채를 완전히 탈피한 새로운 종파를 창설하게 된다. 이후 교파의 명칭도 '한국천부교전도관부흥협회'로 변경하고 전국 각지에 있는 그 산하 예수교전도관의 간판을 '한국천부교전도관'으로 바꾸고 건물 종탑에 설치된 십자가를 철거하고 천부교의 새로운 상징인 비둘기상으로 대체했다.

이때 확립된 교리의 핵심은 성경 호세아 14장에 근거하여 이슬성신을 처음 내리는 존재가 '감람나무'이고, '동방의 한 사람', 곧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느님'이며, 자유율법을 지키며 죄짓지 않고 이슬성신으로 죄를 해결해야만 구원에 이르는 것으로서 이슬성신을 처음 내린 교조 박태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느님임을 믿는다는 것으로 선언했다. 1990년 박태선 장로가

죽은 후에도 교파 체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각지의 신앙촌도 생상활동을 계속하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동두천의 천부교는 1957년에 발간된 「동두천대관」에 전도관이 소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천부교가 창립된 1955년경에 이미 해당 교회가 동두천에 설립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전도관의 상황 변천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었고 교세도 부침을 겪게 된다. 동두천에는 현재 1곳의 전도관이 있다.

교파	교회명	대표		소재지	전화
		직위	성명		
천부교	동두천전도관	관장	이숙자	동두천시 생연동	865-1440

8) 기독교연합회

동두천시의 기독교 각 교파와 교단을 초월하여 조직된 연합단체로 봉사와 선교를 위한 협력을 모토로 하고 있다.

(1) 동두천기독교연합회의 조직



(2) 동두천기독교연합회 역대 회장 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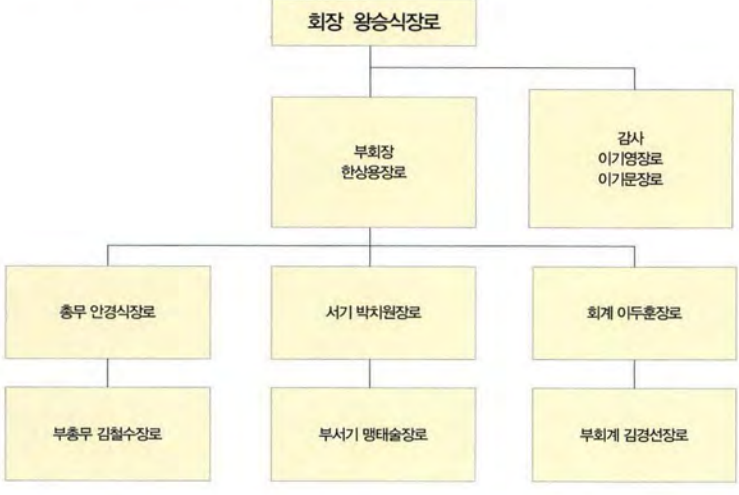
역대	회장	부회장	총회 일시 및 장소
초대	곽철형목사(동두천감리)	한태인목사 차차근장로	70. 07. 20 동성교회
2	한태인목사 차차근장로(침말)	김광명목사 문용석장로	71. 04. 25 동두천감리
3	김종해목사(동두천침례)	임명환강도사 김재호장로	72. 04. 16 신광교회
4	김광명목사(동성)	김종해목사 차차근장로	73. 04. 29 동두천장로
5	김종해목사(침례)	최원진목사 옥지권장로	74. 04. 14 동두천제일감리

6	최원진목사(동두천감리)	연구흠목사 김찬민장로	75. 04. 20 동두천감리교회
7	연구흠목사(동성)	방영건목사 강석은장로	76. 04 .25 동성교회
8	김이홍목사(중앙)	권중길목사 오봉현장로	77. 04. 17 제일교회
9	권중길목사(제일감리)	방영건목사 박승옥장로	78. 04. 16 신광교회
10	방영건목사(은성)	김이홍목사 문용석장로	79. 04. 22 침례교회
11	김이홍목사(중앙)	이봉춘목사 이기영장로	80. 04. 13 순 복 음
12	이봉춘목사(동성)	김석인목사 문용석장로	81. 04. 25 동성교회
13	김석인목사(신광)	함준규목사 문용석장로	82. 04. 18 신광교회
14	김석인목사(신광)	최덕한목사 문용석장로	83. 04. 10 창말교회
15	최덕한목사(동성)	이기준목사 문용석장로	84. 04. 28 동성교회
16	최덕한목사(동성)	이기준목사 문용석장로	84. 12. 15 동성교회
17	이기준목사(순복음)	윤동석목사 문용석장로	85. 11. 23 순 복 음
18	윤동석목사(창말)	최원진목사 김재호장로	86. 11. 29 창말교회
19	황환동목사(성결)	이학원목사 조기문장로	87. 11. 22 성결교회
20	이학원목사(동두천장로)	황호준목사 이기영장로	88. 12. 12 동 두 천
21	황호준목사(광성)	이정광목사 김만련장로	89. 11. 23 광성교회
22	이정광목사(동령)	함점용목사 박승옥장로	90. 12. 6 기 협
23	박인영목사(성암)	이건호목사 차영수장로	91. 12. 4 동령교회
24	강신경목사(안흥)	김찬수목사 박태관장로	92. 12. 16 신광교회
25	강신경목사(안흥)	김주섭목사 차영수장로	93. 11. 30 안흥교회
26	강신경목사(안흥)	김주섭목사 지창윤장로	94. 11. 23 안흥교회
27	김주섭목사(동두천)	남정쇠목사 안병웅장로	95. 11. 29 안흥교회
28	남정쇠목사(중앙)	오덕근목사 김진영장로	96. 11. 20 동두천교회
29	오덕근목사(감리)	이기준목사 이덕제장로	97. 11. 18 동두천호텔
30	이기준목사(신광)	박순택목사 김원식장로	98. 11. 18 동두천호텔
31	박순택목사(평강)	김영호목사 박노연장로	99. 11. 24 신광교회
32	황환동목사(성결)	공지태목사 이병희장로	2000.11. 22 동두천호텔
33	공지태목사(낙원)	권순익목사 오재철장로	2001.11. 21 성결교회
34	권순익목사(소망)	김원용목사 박춘배장로	2002.11. 20 낙원교회
35	김원용목사(안흥)	김영호목사 김준희장로	2003.12. 9 동두천호텔
36	김원용목사(안흥)	박성호목사 이홍우장로	2004.11.24 안흥교회
37	박성호목사(창말)	김연규목사 조광남장로	2005.12. 7 창말교회
38	김연규목사(성 광)	임병우목사 진성복장로, 지춘정장로	2006.12. 6 성광교회

39	임병우목사(사 동)	민흥식목사 김정현목사 진성복장로 전광엽장로	2007.12. 5 사동교회
40	김정현목사(동 성)	박노진장로 진성복장로 이현구목사 민흥식목사	2008. 11. 12 동두천감리교회
41	이현구목사(신 광)	안윤상목사 진성복장로 최상우장로	2009.11. 3 은성교회
42	안윤상목사(은 성)	황종협목사 진성복장로, 하종보장로	2010.11. 3 은성교회

(3) 동두천기독교장로연합회

① 동두천기독교장로회의 조직



② 동두천기독교장로회의 역대 회장 명단

역대	회장	임기
초대	차 찬 근 장로	1969. 12. 6 ~ 1970. 12. 5
2	문 용 석 장로	1970. 12. 7 ~ 1971. 12. 1
3	김 재 호 장로	1971. 12. 2 ~ 1972. 12. 4
4	옥 지 권 장로	1972. 12. 5 ~ 1973. 12. 2
5	오 봉 현 장로	1973. 12. 3 ~ 1974. 12. 1
6	김 찬 민 장로	1974. 12. 2 ~ 1975. 12. 8

7	김정용 장로	1975. 12. 9 ~ 1976. 12. 6
8	강석은 장로	1976. 12. 7 ~ 1977. 12. 5
9	양흥열 장로	1977. 12. 6 ~ 1978. 12. 4
10	문용석 장로	1978. 12. 5 ~ 1979. 12. 4
11	김재호 장로	1979. 12. 5 ~ 1980. 12. 8
12	나치상 장로	1980. 12. 9 ~ 1981. 12. 8
13	조기문 장로	1981. 12. 9 ~ 1982. 12. 8
14	김만련 장로	1982. 12. 9 ~ 1983. 12. 2
15	이기영 장로	1983. 12. 3 ~ 1984. 12.12
16	김진영 장로	1984. 12.13 ~ 1985. 12. 2
17	박태관 장로	1985. 12. 3 ~ 1986. 12. 2
18	박노연 장로	1986. 12. 3 ~ 1987. 12. 7
19	최규량 장로	1987. 12. 8 ~ 1988. 12. 6
20	이덕제 장로	1988. 12. 7 ~ 1989. 12. 6
21	이춘길 장로	1989. 12. 7 ~ 1990. 12. 3
22	정동환 장로	1990. 12. 4 ~ 1991. 12. 5
23	이성수 장로	1991. 12. 6 ~ 1992. 12. 4
24	민영복 장로	1992. 12. 5 ~ 1993. 12. 4
25	조정일 장로	1993. 12. 5 ~ 1994. 12. 6
26	안병웅 장로	1994. 12. 7 ~ 1995. 12. 5
27	지창윤 장로	1995. 12. 6 ~ 1996. 12. 3
28	김원식 장로	1996. 12. 4 ~ 1997. 12. 9
29	이서우 장로	1997. 12. 9 ~ 1998. 12. 7
30	박응열 장로	1998. 12. 8 ~ 1999. 12. 7
31	오재철 장로	1999. 12. 8 ~ 2000. 12. 5
32	박춘배 장로	2000. 12. 6 ~ 2001. 12. 4
33	이길수 장로	2001. 12. 5 ~ 2002. 12. 4
34	김준희 장로	2002. 12. 5 ~ 2003. 12. 9
35	이홍우 장로	2003. 12. 9 ~ 2004 .12.14
36	조광남 장로	2004. 12.14 ~ 2005 .12.13
37	지춘정 장로	2005. 12.13 ~ 2006. 12. 5
38	전광엽 장로	2006. 12. 6 ~ 2007. 12.
39	박노진 장로	2007. 12. ~ 2008. 12
40	최상우 장로	2008. 12 ~ 2009. 12
41	하종보 장로	2009. 12 ~ 2010. 12

(4) 동두천기독교청년연합회

2005년 7월 2일(토)	청년연합회 창립 위원회 구성
2005년 9월 10일(토)	창립
2006년 4월 17일(월)~19일(수)	부흥집회
2006년 8월 24일(목)~26일(토)	수련회
2006년 8월 24일(목)~26일(토)	연합예배
2006년 11월 25일(토)	총회
2007년 8월 14(화)~15일(수)	수련회
2007년 10월 6일(토)	연합예배
2007년 11월 30일(금)~12월 1일(토)	신구임원 MT
2008년 1월 19(토)	연합예배

(5) 동두천기독교학생연합

2007년 1월 21일	학생연합회 재결성총회를 위한 학생회 지도자 준비모임
2007년 2월 4일	학생연합회 연합예배 및 재결성총회를 위한 학생회 지도자 2차 준비모임
2007년 3월 3일	학생연합회 재결성총회 및 연합예배

9) 기독교의 사회활동

기독교는 전래 이래 선교와 사회 봉사를 교회와 신앙의 실천 덕목으로 설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기독교의 성장과 교회 및 신도의 증가에 특히 교육, 의료, 구제, 절제 등 사회를 향한 봉사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 동두천 지역에서도 역시 지역사회를 향한 기독교의 봉사활동은 전래 초기부터 꾸준하고도 왕성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보육사업

동두천은 한국전쟁 발발의 최초 현장이었고 가장 중요한 전쟁터였으며,

동시에 현재까지도 외국군이 주둔하는 군사도시이기도 하다. 따라서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인 전쟁고아들이 다량으로 발생하고 존재하였다.

동두천의 기독교는 처음부터 이 전쟁고아 문제를 주목하고 이에 대하여 적극 대처하였다. 동두천 지역에 최초의 장로교 교회인 안흥교회를 설립한 강신경 목사는 교회 설립과 함께 보육원을 설치 운영하였는데 1953년에 설립된 최초의 보육원이 바로 '신흥보육원'이었다.

이 신흥보육원은 후에 폐지되었지만 그 후에 설립된 '애신보육원'과 '혜성보육원'은 현재도 운영되며 지역사회의 고아 복지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1958년에는 전쟁 미망인들과 그들의 어린 자녀들을 위한 '신흥모자원'이 설립되기도 하였다.

⑵ 교육사업

강신경 목사는 당시 동두천에 넘쳐나던 전쟁미망인들과 학업의 기회를 잃은 청소년들의 자활을 위하여 우선 기술을 가르치는 학교의 설립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교육시설을 만드는 일에 매진하였다.

그는 1954년에 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아울러 기초교육을 실시하는 '신흥성경구락부'를 설립하고 1956년에 이를 '신흥공민학교'로 발전시킨 후, 그 다음해인 1957년에는 이를 '신흥농축기술학교'로 확대한다. 그리고 다시 1960년에는 정규학교인 '신흥농업고등학교'로 다시 '신흥중 · 고등학교'로 발전하게 되는데, '신흥고등학교'는 특히 축구부를 육성하여 이 '신흥고등학교 축구부'는 1980년대 한국 고교 축구를 주름잡으며 다수의 국가대표를 배출하는 등 동두천 체육의 긍지로 우뚝 서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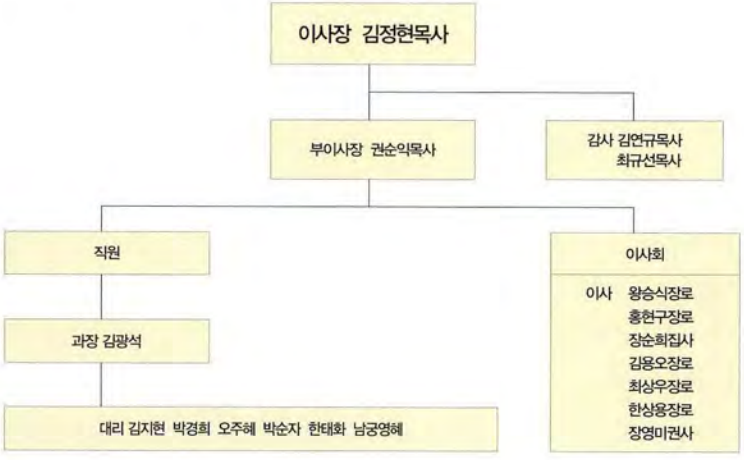
한편, 남녀 공학이던 '신흥학교'에서 여자를 분리하여 '보영여자 중 · 고등학교'가 설립되면서 지역의 또 다른 기독교학교로 자리 잡게 되었다.

⑶ 사회복지사업

기독교적인 이념으로 시행한 동두천 지역 최초의 사회복지사업은 역시 강신경 목사에 의하여 1957에 설립된 '신흥간병요양원'이었다. 이후 '신망애복지원'이 같은 신흥재단 산하에 설치되었고, 역시 기독교 이념으로 운영되는 '평강요양원'이 있다. 한편 기독교연합회가 발족하고 동두천신용협동조합이 창설되면서 기독교적 이념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은 '동두천기독교 노인대학',

'동두천기독교요양보호소', '로뎀나무 카페' 등으로 확대되어 현재에 이른다. 아울러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은 의정부 지역의 '기독교근친회신용협동조합'이 동두천 지역을 기반으로 독립한 것으로 현재 동두천 지역의 서민과 교회를 상대로 하는 서민 금융의 주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의 조직



10) 동두천 기독교의 미래와 전망

동두천 지역에 기독교가 전래된 지도 벌써 한 세기가 넘어 새로운 100년을 바라보고 있다. 민족의 정체성과 국권을 상실하던 1900년에 이 땅에 전해진 동두천의 기독교는 민족분단과 상잔의 아픔 속에 비약적으로 발전하였고, 이후 시대의 격랑 속에 지역사회의 소망과 위안으로 정착하였다.

이제 새로운 한 세기를 바라보면서 동두천의 기독교는 양적인 성장과 함께 민중과 함께 호흡하고 아픔을 함께하던 예수의 삶과 가르침을 지역사회에 구현하고 민중의 소망과 고난을 감싸 안는 참된 빛과 소금으로 자리잡아가야 할 것이다. 이 지역에 복음의 빛을 비치기 위하여 울며 씨를 뿌리던 선배들의 선교정신과 지역사회를 향한 섬김이 더욱 확대되고 보다 확고히 정착되도록 힘을 모으고 함께 정진하는 것이 오늘의 동두천 기독교를 향한 시대와 지역의 바람임을 기억하자.

제3절 천주교

1. 천주교

우리가 보통 천주교라 부르는 로마 가톨릭 교회(Roma Catholic Church)는 예수의 부활, 승천 이후 이 땅에 세워진 보편적인 공교회로서 사도의 정통성을 계승하였다고 주장한다.

예수는 생전에 자신의 지상교회 통치권을 수제자 베드로에게 위탁하였고, 그 베드로가 로마교회를 세웠으므로 베드로의 후계자들인 로마교회의 사제는 로마교회의 사제직을 넘어 전세계 교회의 관할권을 가지는 이른바 사도계승에 의한 교황이 되었고 그 교황의 수위권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단절없이 계속되어 왔다는 것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들 로마교황의 수위권을 승인하고 그의 교회 관할을 인정하는 기독교회들을 로마 가톨릭 즉, 천주교라고 통칭하고 있다.

예수 이후 기독교가 전파되는 과정에서 확장된 기독교 세계는 예루살렘, 로마, 콘스탄티노플, 안티오키아, 알렉산드리아의 5개 대관구가 성립된다. 이 중 성지를 관장하는 예루살렘 대관구, 아프리카 지역을 관장하는 알렉산드리아 대관구, 아시아 지역을 관할하던 안티오키아 대관구는 이단 논쟁과 이슬람세력의 침공으로 실질적으로 소멸되고 서로마제국 지역을 관장하는 로마대관구와 동로마제국 지역을 관장하는 콘스탄티노플 대관구만이 존속하게 된다. 476년 서로마제국이 멸망당하자 로마 대관구는 서로마제국의 영토를 거의 장악한 프랑크왕국과 협력하여 동로마제국 황제의 관할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이에서 더욱 발전하여 사제임명권을 포함한 교회 관할권을 교황이 장악하여 세속권력으로부터 독립하게 된다.

이스탄불 총대주교는 자신이 관할하던 동로마제국 지역의 교회들을 정교회라는 이름으로 분리하였고 이후 정교회는 러시아 및 발칸 지역으로 확대되어 로마 가톨릭과 더불어 기독교의 양대 세력을 형성하게 된다.

확대되어 가던 로마 교황권은 마침내 세속 황제권을 능가하게 되었고 서구 사회의 정치, 사상, 문화, 경제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압도적인 가치체계를 오랫동안 형성하지만, 십자군전쟁과 신대륙발견 이후 가톨릭교회는 점차 대두되는 인간중심사상의 도전을 받게 된다. 루터, 칼뱅 등 종교개혁자들은 교황의 수위권을 인정하지 않고 성경을 바탕으로 가톨릭의 교리를 재검토하여 마침내 프로테스탄트 교회, 즉 개신교를 형성함으로써 가톨릭의 종교적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가톨릭교회는 이후 스페인이 중심이 되어 개척한 라틴아메리카와 필리핀, 중국, 인도, 일본 등 아시아 지역에 적극적인 선교활동을 실시하여 이들 지역의 상당부분을 가톨릭화하는 데 성공하였고 종교개혁에 대응하는 교회 자체 개혁과 정비를 통하여 새로운 시대 관념을 수용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동방정교회나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들과 다른 가톨릭교회의 정체성을 〈한국가톨릭대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천주교회는 그리스도, 교황, 주교, 사제로 이어지는 가시적 제도, 즉 교계(敎階) 질서를 지닌 교회이다.
- 천주교회는 그 안에서 신자들이 7성사(성세(聖洗), 견진(堅振), 성체(聖體), 고해(告解), 병자(病者), 신품(神品), 혼배(婚配)) 집행으로 생명을 얻고 유지하는 교회이다.
- 천주교회는 미사(Missa)를 신앙생활의 중심으로 하는 교회이다.
- 천주교회는 성서(聖書)와 성전(聖典)에 동일한 권위를 부여하는 교회이다.
- 천주교회는 수도(修道)생활과 성지(聖地) 순례(巡禮)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는 교회이다.

참고로 한국에서 가톨릭교회를 〈천주교회〉라고 부르는 것은 신앙의 대상인 〈야웨〉의 보통명사인 〈엘〉을 〈천주〉라고 번역한 데서 기인한다. 동일한 명사를 한국 개신교에서는 〈하나님〉, 중국에서는 〈상제(上帝)〉, 일본에서는 〈가미(神)〉로 번역하였다.

근래에 가톨릭에서도 〈천주〉 대신에 〈하느님〉이라는 명사를 보다 많이 사용하고 있다.

1) 천주교의 4대 교리

(1) 천주존재(天主存在)

하느님께서는 만물이 있기 전부터 계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완전하고 무한한 분이시다.

(2) 상선벌악(賞善罰惡)

하느님께서는 죽은 다음 선한 일을 행한 이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한 일을 행한 이에게는 벌을 주신다.

(3) 삼위일체(三位一體)

하느님께서는 다만 한 분이 계시지만 위(位)로서는 세 격,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다. 이 교리는 하느님께서 계시로 가르쳐 주신 것이므로 그대로 믿어야 한다.

(4) 강생구속(降生球贖)

처음에 원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모든 사람은 원죄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성자이신 예수께서 이 모든 죄를 없애기 위하여 세상에 오시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으로써 구속사업을 완성했으므로, 누구든지 믿고 세례를 받으면 그 구속 공로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2) 천주교회의 특징

(1) 하나요

이것은 없어서는 안 될 본질적인 것이며 종교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 이유는

하느님께서는 유일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한 우리와 한 목자"(요한 16,16)라고 말씀 하셨듯이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같은 예식이어야 하며 한 분뿐이신 하느님을 섬기는 교회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⑵ 거룩하고

여기에는 내적이고 더욱 심오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인 신성(神性)이 존재해야 된다. 그리고 그 목적은 우리를 성화시켜야 하는 것이다.

⑶ 보편되고

참된 종교라면 이 세상 사람 누구라도 믿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지 어떠한 특수층만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⑷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양들인 백성을 돌보도록 하셨고, 그 권한을 사도들에게 주셨으므로 사도의 후계자로 계승되는 교회만이 참된 교회인 것이다.

2. 천주교의 한국 전래

1)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경교)의 전래

에베소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판정된 네스토리우스파 교회는 아라본을 수석선교사로 하는 선교단을 중국 당나라에 파견하여 당태종의 공인을 받고 경교(景教, 광명의 가르침이라는 뜻)라는 명칭을 허락받았다. 이후 중국에는 본격적인 기독교의 포교와 교회의 설립이 이루어지는데 대표적인 교회가 638년 태종이 건립한 대진사(大秦寺)이고 원(元)나라 때에는 십자가사(十字架寺)가 있었다. 781년에 승려 경정(景淨)이 장안에 세운 《대진경교유행중국비(大秦景教流行中國碑)》는 그 전성기를 말하여 주는



경주에서 발견된 마리아 관음상

유물이다. 이것이 세워진 해는 통일신라시대의 선덕왕 2년에 해당되는데, 당시 당나라와 통일신라와의 밀접한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경교는 한국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1956년 경주(慶州)에서 출토된 신라시대의 유물 중 석제 · 동제 십자가와 마리아관음상 등이 발견되어 통일신라시대의 경교 전래를 알려주는 좋은 자료가 된다. 경교와 같은 기독교의 전래는 이후 한국의 종교 특히 불교와 무속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2) 몽골제국의 흥기와 기독교의 한국 전파



경주에서 발견된 돌 십자가
이들은 모두 경교의
한국전래와 관련된
유물로 이해되고 있다

몽골제국은 몽골부족 볼지겅씨족 출신의 태무진이 몽골 초원의 유목민들을 통합하고 나아가 동서양을 잇는 거대한 대제국을 건설하여 이룩한 것이다. 당시 몽골은 동 서양을 망라한 각 민족의 문화와 경제를 통합하였는데 당연히 기독교도 중요한 종교로 몽골의 거대한 판도 안에서 각 민족에게 전파되고 수용되었다. 실제로 칭기즈칸에 의한 대통합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몽골의 여러 부족들 사이에는 기독교가 유행하고 있었는데, 대표적인 기독교 부족이 당시 테무진을 원호하여 제국 건설의 기틀이 되도록 도와주었던 케레이트족이었다. 칭기즈칸의 자손 중 구유크칸이나 쿠빌라이칸 등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몽골이 고려를 침공하여 지배하게 되면서 관리들이 많이 부임하였는데 그 중에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이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 개국 후 상당 기간 회교, 즉 이슬람식 의전이 이슬람교도에 의하여 궁중에서 진행되었다는 왕조실록의 기록이 위의 추정을 방증한다고 보겠다.

3) 세스페데스의 활동

임진왜란 당시 일본의 조선 침략에 동원된 일본 제후(다이묘) 중에는 여러 명의 독실한 기독교도가 있었다. 실질적인 선봉이자 전쟁 반대론자였던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나 구로다 나가마사(黑田長政) 등이 바로 그들이었고, 그들이 이끌던 부대원들 역시 기독교도로 구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성사를

치르고 상담하기 위한 군목이 필요하였는데 이를 목적으로 따라온 신부가 바로 세스페데스(Gregorio de Cespedes, 1551-1611)였다.

그는 스페인 마드리드(Madrid)에서 출생하여 예수회 선교사가 되어 1577년 일본에 파견되었다. 세스페데스 신부는 왜장 고니시 유키나가의 지시에 따라 쓰시마(對馬)를 거쳐 1593년 12월 27일 부산에 상륙하였다. 그가 고시니 유키나가의 부대가 주둔해 있던 경남 진해 웅천성(熊川城)에 도착한 것은 다음날인 28일이었다. 그는 이곳을 비롯하여 울산성까지에 이르는 여러 성을 돌아다니면서 일본군 신자들에게 고해성사 등을 주는 한편 길가에 버려진 전쟁고아들을 구제하며 일본으로 잡혀가던 조선인들을 돌봐주었으나 그 밖의 조선인들은 모두 그를 피하거나 피란하여 접촉할 수 없었다. 이러는 사이에 불교 신자이던 가토 기요마사(加藤淸正 1562-1611)는 세스페데스 신부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음해한다고 거짓 고발을 하여 세스페데스 신부를 1595년 5월에 일본으로 강제 송환시킨다.

강제 송환 후 세스페데스 신부는 일본에서 남양(南洋)으로 팔려가는 조선인 포로 2,000여 명에게 세례를 주어 천주교 신자를 만들었다. 하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세스페데스 신부가 조선에 나와 있던 1594년부터 일본 내에서 천주교에 대한 모진 탄압정책을 쓰고 있었으므로 세스페데스 신부는 한 때 신자이던 대마도주 종씨가(宗氏家)에 머물렀다

세스페데스 신부는 1597년 봄 일본의 2차 조선 침략인 정유재란(丁酉再亂) 때 다시 조선으로 건너와 2개월간 머물다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 호소카와(細川忠興)의 후원으로 고쿠라(小倉)에 성당을 짓고 사목하였다. 1598년 8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지만 일본 내 천주교 박해는 계속되었고 세스페데스 신부는 내내 박해에 시달리다 1611년 12월 어느 주일에 고꾸라(小倉)에서 60세로 사망하였다.

그가 조선에 머무는 동안 당연히 조선인들에게도 전도하였겠지만 이를 입증하는 자료는 없다. 단지 포로가 되어 일본으로 끌려간 많은 조선인들이 천주교에 입문하였고, 정부의 모진 탄압에도 그들은 신앙을 지켜 오다 쥴리아

같은 순교자들을 배출하기까지 하였다.

4) 서학의 전래와 신앙의 움틈

양난을 거치면서 조선 지식인들은 지금까지 절대 가치로 인식하였던 성리학에 대한 깊은 회의를 품게 되었다. 양난을 겪기 전까지 성리학이 보편화하지 않았던 일본과 여진은 멸시의 대상이며 아울러 교화의 대상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본과 여진은 모두 압도적인 기세로 조선을 침략하였고, 특히 야인으로 부르던 여진의 추장 앞에 신하의 예로서 항복해야 했던 호란은 충격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상적 공황기에 전래된 서학 즉, 천주교를 포함한 서양의 학문은 이와 같은 사상적 공황을 극복할 하나의 신선한 대안으로 다가왔다.

본격적으로 서학이 전래된 것은 이수광 등 중국에 사행했던 사람들의 견문을 통해서였다.

이수광은 그의 저서 『지봉유설(芝峯類說)』에서 마테오 리치 신부의 『천주실의(天主實義)』를 최초로 소개하였고, 정두원은 〈천리경(千里鏡)〉 등의 서양 문물을 수입해오기도 하였다.

서학의 전래와 관련하여 특기할 사항 중의 하나가 바로 소현세자(昭顯世子)의 천주교 신앙 수용설이다. 호란 이후 심양에 끌려가 인질로 살았던 그는 청이 북경을 함락하고 입관(入關)한 이후 거처를 북경으로 옮겼는데 거기에서 천주교의 아담 샬 신부와 교제하는 중 천주교에 깊은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조선으로 귀국할 때에는 역학(曆學)을 비롯한 많은 서양 과학서들과 함께 신앙 서적과 성물은 물론 천주교도인 명(明) 궁녀들과 환관(宦官)들을 대동하였다. 이를 근거로 그가 천주교 신앙에 입문하였지 않았나 하는 추정이 이루어지지만, 귀국 후 부왕 인조의 미움을 받아 자신은 물론 부인 강씨와 자녀 모두가 사사(賜死) 되는 바람에 국왕에 의하여 천주교가 수용될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가 무산되기도 했다.

다양한 경로로 소개되어 온 서학을 학문적 호기심으로 대하던 조선 지식층

안에서 점차 이를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신자(信者)들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대체로 정권의 핵심에서 소외되었던 남인 계통의 실학자들이었다. 성호(星湖) 이익(李瀷)의 제자였던 권철신(權哲身)의 문하인 정약종(丁若鍾), 이벽(李檗), 김성원(金源星), 이윤하, 정약전(丁若銓), 이총억(李寵億), 이존창(李存昌), 홍낙민(洪樂敏), 이승훈(李承薰), 권상학(權相學) 등이 천진암(天眞庵)에 모여 강학회를 열고 천주교 신앙에 입문하게 된다.

1783년 12월 이승훈(李承薰)이 동지사로 사행(使行)하는 길에 북경에서 그라몽(Gramont) 신부로부터 영세를 받아 한국인 최초의 세례교인이 되었고 많은 신앙 서적을 가지고 귀국하여 1784년 9월 서울 명례방 역관(譯官) 김범우(金範禹)의 집에 최초의 천주교 신앙공동체를 창설하니 이것이 바로 한국 천주교회의 시작이었다. 이들은 양천(良賤)과 반상(班常), 그리고 남녀(男女)의 구분이 없는 평등사회와 천국을 향한 미래사회를 지향하며 각종 미신은 물론 성리학적 가치조차도 부정하는 혁명적 개혁을 지향하였다.

이렇게 양반들에 의하여 시작된 천주교회는 중인, 상민, 천민들에게 급속도로 전파되고 호남, 호서로 확장되니 초기 교회 지도자들은 성사(聖事)의 집행과 전교를 위하여 임의로 사제(司祭), 주교(主敎) 등을 임명하여 교회를 운영하게 되어 이를 가성직(假聖職)제도라 이른다. 그러나 이 가성직제도의 잘못을 지적받고 바로 북경의 천주교회에 정식 사제의 파송을 청원한바 중국인 주문모(周文謨) 신부가 입국하게 된다. 한국 천주교회의 첫 사제였다.

5) 박해와 고난

천주교회의 초기 교인들이 평등사회, 미신타파를 생활 규범으로 삼다보니 결국 한국 천주교회는 기존의 가치체계와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천주교를 향한 탄압과 박해가 시작되었다.

1785년 봄, 형조(刑曹)의 관리들은 서울 명례방 김범우의 집에서 종교적 모임을 갖고 있던 신자들을 검거하였으나 체포된 사람들 대부분이 양반인지라 방면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형조는 양반의 범죄를 다스릴 수 없었다. 그러나

함께 체포된 신자 가운데 중인 출신인 김범우는 고문을 하고 유배를 보냈다. 귀양을 살던 김범우는 고문받은 상처가 악화되어 죽었다.

이러한 탄압에도 당시 교회 지도자들은 오히려 조직을 다져 나갔다. 그리하여 그들은 1786년 가성직 제도(假聖職制度)를 설정하기까지 하였다. 가성직 제도는 성품성사를 받지 아니한 신자들이 성직자의 고유한 업무까지 수행하던 비합법적 제도를 말한다. 이를 가성무집행 제도(假聖務執行 制度)라 하기도 한다. 고해성사와 견진성사 그리고 미사 집전은 성직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를 미처 알지 못한 당시 신자들은 미사와 고해성사 등을 집전하였다. 이 가성직 제도 아래에서 이승훈은 교회의 으뜸가는 지도자가 되었고, 모두 10여 명의 신자가 신부로 추대되었다. 가성직 제도는 교회법으로는 올바른 일이 아니나, 교회 조직을 갖추어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고 선교를 강화해 보려는 소박한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다.

가성직 제도는 1789년경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천주교 교리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나가면서 가성직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게 되었고 이에 관해 북경 주교에게 문의한다. 1790년에 도착한 답변에서 북경 주교는 가성직 제도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조선에 선교사 파견을 약속하는 한편, 조상에 대한 제사를 금지하였다. 이로써 조선 교회는 선교사를 맞이하는 기쁨과 조상 제사 문제로 벌어질 상황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갖게 되었다.

조선 왕조에서 장자(長子)에 대한 제사 상속권 강화를 기반으로 하여 양반 사족들이 본격적으로 사대 봉사(四代奉祀)를 하게 된 시기는 17세기 이후다. 조상 제사는 당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인정되던 효심의 자연스런 표현으로, 사대 봉사는 양반 신분의 상징이다. 사족들은 사대 봉사를 통해서 팔촌친(八寸親) 공동체를 형성하여 변동하는 사회에 대처해 가고 있었다. 이렇듯 조상 제사는 양반 가문의 사회적 결속과 존립의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이 때문에 조상 제사 금지는 양반 사족 출신 신자들에게 매우 심각한 문제였다. 조상 제사 포기는 양반으로서 명망과 특권을 버리고, 가문을 존립시키는 사회적 기반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천주교 신자에 대한 정부의 탄압에 앞서서 양반 문중의 박해가 심각하게 일어났다. 그리고

이때 사대봉사를 하던 양반층 신도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이 새롭게 터득한 천주교 신앙을 버리고 자신이 원래 속한 유교 문화로 재편입해가면서 초기 교회 창설에 중요한 역할을 한 양반들도 탈락하였다. 따라서 1790년대 이후에는 교회를 이끄는 지도급 신자들도 바뀌었다. 양반층 신자들이 탈락한 반면, 양반으로서 특권을 포기하고 조상 제사를 거부하며 자신의 신앙을 지킨 사람들과 중인 이하의 인물들이 교회를 지도하게 되었다. 그 결과 조상 제사를 거부한 윤지충(尹持忠, 1759~1791년)과 권상연(權尙然, 1750~1791년)은 1791년에 순교하였다. 그들은 한국 교회사에서 첫 순교자들로 기록되었다. 그들의 순교로 양반층 신자들이 빠른 속도로 탈락해 나가면서 1791년의 박해 이후 한국 천주교회는 양반 지식층이 주도하던 종교에서 민중들의 종교 운동으로 그 성격이 전환되어 갔다.

한편 북경의 주교는 조선 신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1794년 주문모(周文謨, 1752~1801년) 신부를 파견하였다. 중국인 성직자로서 조선에 파견된 그는 조선의 신생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였다. 그의 노력과 신자들의 전교 활동으로 조선 교회는 크게 발전하면서 신자 수가 1만여 명에 이르게 된다. 이때 신자들은 주로 경기와 충청도, 전라도 지방에 분포되어 있었다.

주문모 신부가 전교 활동을 하고 있음을 탐지한 조정에서는 그를 체포하고자 하였다. 이때에 주문모 신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했던 윤유일(尹有一, 1760~1795년), 최인길(崔仁吉, 1764~1795년), 지황(池璜, 1766~1795년)과 같은 신자들이 희생되었다. 그러나 강완숙(姜完淑, 1760~1801년)을 비롯한 신자들의 보호로 주문모 신부는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었다.

주문모 신부가 들어온 이후 일부 지역에서는 천주교에 대한 소규모의 탄압들이 계속되고 있었다. 이 탄압 가운데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신앙을 증언하는 신자들이 연이어 나타났다. 그리고 신자들은 명도회(明道會)와 같은 신심 단체를 조직하여 서로 교리를 익히고 자선 활동을 하면서 이웃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명도회의 초대 회장은 정약종(丁若鍾, 1760~1801년)이다. 그는 신자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순수한 한글로 교리서 「주교요지」(主敎要旨)를 저술하였다. 이 책에서 천주교 교리를 요약하여 제시해 준 정약종은 1801년의 박해 때에 순교하였다.

그러나 초기 교회는 조직적으로는 차츰 안정되어 가고 있었다. 최창현(崔昌顯,

1754~1801년)은 '총회장'으로 활동하면서 교회 조직과 발전에 초석을 놓았으며, 강완숙과 윤점혜(尹占惠, 1776~1801년)는 천주교 신앙을 실천하기 위한 여성 결사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들은 당시 교회에서 '여회장'(女會長)으로 불렸다. 그리고 충청도 지방에서 활동하던 정산필(鄭山弼, ?~1801년)이나 '김승정'의 경우처럼 지방에서도 '회장'을 임명하였다. 이 회장들은 주문모 신부가 교회 조직을 정비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임명하였다.

1784년 교회가 세워진 이후 얼마 아니 가서 신자의 숫자가 1,000명을 헤아리게 되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지 10년 뒤에는 대략 4,000명의 신자가 신앙을 실천하고 있었다. 또한 주문모 신부가 입국한 이후 교세는 더욱 발전하여 1800년에는 대략 1만여 명의 신자들이 있었다. 신자들은 대부분 정치적 특권이 없고 경제적으로 가난한 힘없는 민중들이었으며, 여성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렇게 교회가 비약적으로 발전하자 천주교를 반왕조적(反王朝的) 종교로 규정한 집권층에서는 천주교에 대한 일대 탄압을 단행한다. 1801년에 단행된 박해는 나이 어린 교회를 뿌리째 뒤흔들어 놓았으니, 이 박해로 말미암아 주문모 신부가 순교하였다. 이때 주문모 신부는 중국으로 피할 수도 있었지만, 자신이 피하면 신자들이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되리라는 생각에 순교의 길을 택하였다.

이 박해의 와중에서 교회의 지도자인 신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한다. 당시 교회의 총회장 최창현과 명도회 회장 정약종, 그리고 충청도와 전라도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 이존창과 유항검이 이때 순교하였으며, 강완숙, 이순이(李順伊, 1781~1801년) 등과 같은 여성 신자들도 이때 순교하였다. 또한 이 박해에서는 앞서 배교를 선언했던 이승훈, 김건순(金建淳), 이희영(李喜英)과 같은 인물들도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정약용을 비롯하여 배교를 선언한 대부분의 신자들은 사형을 면하고 귀양을 떠나거나 방면되었다.

이때 황사영(黃嗣永, 1775~1801년) 백서 사건이 발생한다. 초기 교회에서 중요한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인 황사영은 박해가 발생하자 이를 피하여 제천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그는 북경의 주교에게 조선의 박해 상황을 알리고 구원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려 하였다. 이 편지는 도중에 발각되었고 그도 체포되었다. 편지 내용에는 조선 왕조의 존재를 부인하고 외국 세력의 개입을 요청하는

강경한 말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때문에 조정은 천주교의 성행에 대하여 더욱 긴장하게 되었다. 그는 '신앙의 자유'라는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백서를 작성했지만, '무력적 외세'라는 부당한 방법을 제안하였고, 이 때문에 그의 행동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인색하게 되었다. 결국 황사영도 자신의 행위 때문에 죽임을 당하였다. 1801년의 박해로 말미암아 교회는 큰 타격을 받았으나, 이 박해는 천주교 신앙을 더욱 널리 전파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니, 박해를 피해 각처로 흩어진 신자들은 피난처에서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형성해 나갔다. 경상도나 강원도로 이주한 내포 지방 신자들은 비밀리에 신앙을 실천하면서 그 지역에 천주교 신앙의 씨를 뿌렸던 것이다.

박해가 끝난 이후 신자들은 교회 재건을 위하여 온 힘을 쏟았다. 당시 교회 재건에 힘쓴 신자들 가운데는 순교자 정약종의 아들 정하상(丁夏祥, 1795~1839년) 등이 있었다. 1801년의 박해 때 배교를 하고 귀양을 살던 정약용도 1811년 이후 교회 재건 운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들은 북경의 주교에게 밀사를 보내어 선교사 파견을 간청하였으며, 로마 교황청에까지 편지를 보내어 그들의 딱한 사정을 호소하며, 주교 파견을 간청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교회 재건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었으나 천주교에 대한 조정의 박해는 일부 지방에서 계속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박해 속에서도 꾸준히 교회 재건 운동을 전개한 결과 조선 교회는 중국인 여항덕(呂恒德: 異名 劉方濟, 파치피코) 신부를 맞아들일 수 있었다. 그는 조선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선교하였다. 그러나 그는 뒷날 프랑스 선교사가 조선에 입국하게 되자 이들과 갈등을 빚으면서 중국으로 귀환하였다.

1831년 조선교구가 설정됨으로써 우리나라 교회는 북경교구의 관할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발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조선교구가 설정된 것은 조선인 신자들의 꾸준한 청원과 파리 외방 전교회의 응답에 따른 결과였다. 조선인 신자들의 청원을 받은 로마 교황청에서는 조선에 교구를 설정하고자 했고, 파리 외방 전교회에 소속된 브뤼기에르(Bruguie, 1792~1835년) 주교는 조선 선교를 자원하였다. 그는 조선교구 제1대 교구장이 되어 조선에 입국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했으나 새로운 사목지를 눈앞에 두고 중국 땅에서 병사하였다. 그리고

그의 뜻을 이은 파리 외방 전교회 선교사들이 1835년 이후 조선에 입국하였다. 조선에 입국한 이들은 신자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였으며 조선 교회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그 결과 신자들의 숫자가 늘어 갔으며, 그들의 신앙도 깊이를 더하게 되었다.

이에 조정에서는 1839년 다시 박해를 일으키어 앵베르(Imbert, 范世亨, 1796~1839년) 주교를 비롯한 3인의 프랑스 선교사들을 체포·처형하였다. 이때 순교한 신자들로는 유진길(劉進吉, 1791~1839년) 등을 들 수 있다. 정하상이 『상재상서』(上宰相書)를 지어 천주교 신앙을 변호한 것도 바로 이 박해에서였으며, 그 또한 이때 순교하였다. 그러나 프랑스 선교사들의 순교는 조정의 천주교 탄압이 국내 문제에만 그치지 않고 국제 문제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조선에 들어온 파리 외방 전교회 선교사들은 조선인 성직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김대건(金大建, 1821~1846년), 최양업(崔 良業, 1821~1861년) 등을 선발하여 중국의 마카오에서 신학을 공부하게 하였다. 그 후 김대건은 한국인 최초로 사제로 수품되어 국내에 돌아와 활동하였다. 김대건 신부는 몇몇 신자와 함께 선교사를 맞이할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하고자 노력하다가 체포되어 1846년에 순교하였다. 그의 순교를 전후하여 프랑스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조선에 들어왔다. 그리고 최양업도 사제가 되어 귀국하였다. 최양업 신부는 산간에 흩어져 있는 신자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에게 교리를 가르치고, 성사를 집전하면서 교우들의 용기를 북돋워 주었다. 또한 교리 내용을 쉽게 알려주기 위하여 〈사향가〉(思鄕歌)를 비롯한 천주교 가사를 지어 부르게 하였는데, 이러한 천주교 가사는 신자들의 묵상 자료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는 선교 과정에서 과로로 병을 얻어 죽었다.

이처럼 선교사들과 조선인 성직자 그리고 신자들의 노력으로 교회는 발전되어 갔다.

교회 초기부터 1860년대에 이르는 기간의 신자 수는 다음 〈표 4-14-8〉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표 4-14-8〉 박해 시대의 교회 현황

연도	신자수	외국인 선교사	조선인 신부
1789	1,000	0	0
1790	4,000	0	0
1796	10,000	1	0
1859	16,700	8	1
1865	23,000	16	0

1860년대 초의 교회는 거듭된 박해에도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다. 이에 고종의 후견인으로 정권을 장악한 흥선대원군 이하응은 천주교가 성행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았다. 대원군은 정권을 장악한 직후 왕실을 중심으로 한 유교적 국가 체제를 한층 강화하고자 일련의 개혁을 단행하였다. 그는 사상을 정비하여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고자 하였다. 이에 그는 지방 유림들의 본거지인 서원을 철폐하기에 앞서, 이단으로 지목되던 천주교부터 척결하고자 하였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상의 순결성을 먼저 과시하면서, 사족(士族)들을 위압하려 한 듯하다.

대원군은 1866년부터 1874년 그가 하야할 때까지 천주교를 탄압하였다. 대원군 집권기에 천주교 박해가 심했던 기간은 1866년 이후 3년 동안이었다. 이 박해 과정에서 조선에서 선교하던 12명의 프랑스인 가운데 베르뇌(Berneux, 張敬一, 1814~1866년) 주교, 다블뤼(Daveluy, 安, 1818~1866년) 주교를 비롯하여 아홉 명의 선교사가 순교하였다. 이에 1866년 프랑스 해군은 병인양요(丙寅洋擾)를 도발하여 강화도를 침략하고 약탈을 감행하였다.

1868년에는 흥선대원군의 생부(生父)인 남연군(南延君) 묘를 파묘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에는 박해를 피해서 중국에 피신해 있던 페롱(Feron, 1827~1903년) 신부가 개입되었다. 이 도굴 미수 사건의 여파로 천주교에 대한 탄압은 더욱 혹독하게 전개되어, 충청도 해미에서는 많은 신자를 생매장 학살하기까지 하였다.

1866년에 시작되어 3년여에 걸쳐 집중적으로 진행된 이 박해 과정에서 남종삼(南鍾三, 1817~1866년), 홍봉주(洪鳳周, ?~1866년) 등 많은 신자가 신앙을

증언하고자 순교하였다. 또 제너럴셔먼호(號) 사건을 빌미로 삼아 1871년 미국 해병대가 강화도를 침략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신미양요(辛未洋擾)로 외세와 결탁된 것으로 간주되던 천주교는 또다시 탄압을 받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회사에 기록된 큰 박해로는 1801년의 신유박해(辛酉迫害), 1839년의 기해박해(己亥迫害), 1846년의 병오박해(丙午迫害), 1866년의 병인박해(丙寅迫害)를 들 수 있다. 이렇게 100여 년 동안 이어진 박해 과정에서 순교한 사람 가운데 오늘날 그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대략 1,800여 명에 이른다. 물론 이들 외에도 무명의 순교자들이 분명히 존재했을 것이다. 그러나 조선 왕조의 천주교 박해 과정에서 순교한 사람의 숫자가 얼마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우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이 숫자 외에도 더 많은 순교자가 있으리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 순교자들 가운데 1839년의 박해와 1846년의 박해 때에 순교한 김대건 신부 이하 79명은 1925년 로마에서 복자로 선포되었다. 또한 1866년의 박해 때에 순교한 이들 가운데 24명도 1968년 로마에서 시복되었다. 이들 103명의 복자들은 1984년에 성인으로 선포되었다. 이로써 세계 교회는 103명으로 대표되는 수많은 한국 순교자를 확실히 기억하게 되었다.

6) 천주교의 성장

개항 이후 조선은 구미 열강들과의 조약을 체결하면서 격동기를 맞이한다. 천주교는 이러한 격동기 속에서 신앙의 자유를 얻는다. 첫 단계는 신앙의 자유가 묵인된 단계로서 대략 1882년부터로 추정된다. 1882년 서울에 한한(漢韓)학교를 세운데 이어 1885년에는 지방에도 학교를 세우고 고아원 · 양로원 · 시약소(施藥所) 등 사회복지시설도 설치하였다. 또한 이때를 전후하여 서울의 종현(지금의 명동) 본당을 비롯해서 여러 지역에 본당이 건설되었다. 1886년 한불수호통상조약을 통해서 선교사들의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기에 이르렀다. 두 번째 단계는 신앙의 자유가 공인된 단계로서 1895년부터로 추정할 수 있다. 1895년 고종은 조선교구장 뮈텔(한국 이름은 閔德孝, 1854~1933) 주교에게 병인박해 이래 많은 천주교인들이 희생된 일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앞으로 교회와 국가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것을 제의했다. 같은 해 대규모의 사면령을 통해 1866년에 순교한 양반들의 복권도 이루어졌다. 그 후 1899년 뮈텔 주교와 내부(內部) 지방국 사이에 체결한 교민조약(敎民條約)은 한국인의 신앙의 자유를 법률적으로 보장했으며, 1904년 프랑스 공사와 외부대신 사이에 체결한 선교조약은 교민조약의 내용을 더욱 보강했다.

개화기의 천주교는 교육과 언론을 통해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했다. 이러한 운동의 일환으로 1906년 경향신문의 발간을 들 수 있다. 교육운동에 있어서는 초기에 초등교육 분야에 치중하다가 일제시대에 들어와서 중등교육기관도 운영했다. 일제의 침략에 반대하며 독립운동에도 참여했으나 선교사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범 교회적이지는 못했다. 일제의 종교 탄압은 갈수록 심해져서 경향신문이 폐간되고 사범교육기관인 숭신(崇信)학교도 폐교되었다. 그 후 소위 '포교규칙'은 교회가 운영하는 학교의 종교교육까지 금지시켰고, 1920년대에 와서는 신사참배를 강요했다. 이러한 일제의 탄압 아래서도 교회는 발전을 계속하여 교구의 수가 9개로 증가했고 새로운 선교단체가 들어오기도 했다. 1942년에는 노기남(盧基南) 주교가 서울 교구장을 맡게 되어(1902~1984) 한국인으로는 첫 교구장이 되었다.

7) 해방 후의 천주교

8 · 15해방은 천주교의 발전에도 밝은 전망을 가져다 주었으나, 남북분단은 북한 교회의 전멸을 초래했다. 남한에서는 일제시대에 폐간되었던 《경향신문》·《가톨릭청년》·《경향잡지》 등이 속간되고, 여러 천주교 교육기관이 개편되고 활성화했다. 분단 이후 남한의 천주교는 비약적인 발전을 보여 신자 수가 1962년에는 약 53만 명으로 증가했다. 1962년 한국 천주교는 교계제도면에서 선교지역의 교구였던 것이 독립된 정식교구로 승격되었고, 1968년에 서울대교구의 김수환(金壽煥, 1922~2009) 대주교가 추기경으로 서임됨으로써 한국 천주교는 제도적인 발전을 해나갔다. 추기경의 서임으로 한국 천주교는 전세계 천주교의 주요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참여의 폭이 넓어졌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 이후 한국 천주교는 고조된 사회참여 의식 속에서 교회 쇄신운동에 힘써 1970년대에 시작된 정의구현운동이 일기도 했다.

1980년대 이후부터 한국 천주교의 쇄신과 발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으며, 1984년 5월에는 한국의 순교자 103인이 교황 요한네스 파울루스(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성인에 오르게 되고, 1988년에는 세계성체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1991년 12월 31일 현재 한국 천주교는 292만 명의 신도가 있고, 교구 수는 15개이며, 이 중 서울 · 대구 · 광주는 대교구로 설정되어 있다.

3. 천주교의 동두천 전래

1) 동두천 천주교 공동체의 성립과 동두천 출신의 천주교 순교자들

천주교는 조선 후기에 이르러 중국에 다녀온 사신들에 의하여 서학(西學)이라는 이름의 학문으로 처음 소개되었다. 이후 양난을 겪은 조선 지식인 사이에서 주자학에 대한 반성이 일면서 주자학의 대안으로 검토되다가 점차 신앙으로 발전하였다.

조선의 초기 천주교 신자들은 특히 전례(典禮)문제, 즉 제사를 거부하는 문제를 위시하여 조선의 기존 성리학적 질서와 충돌하며 혹독한 탄압을 맞게 되는데, 이러한 탄압 가운데 숱한 순교자를 배출하며 오히려 더욱 교세를 넓혀가게 된다.

(1) 천주교의 동두천 전래

동두천에 언제 천주교가 전래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단, 아래 항목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동두천 지역의 순교자들을 통하여 그 전래시기가 비교적 전래 초기였다는 사실만을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동두천에 천주교가 전래된 통로는 포천 지역의 교회 공동체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승훈이 최초로 북경에서 세례를 받고 돌아온 후 이벽(李檗)과 권철신(權

哲身), 권일신(權日身) 형제에 의하여 양근(陽根)에, 그리고 정약용(丁若鏞), 정약전(丁若銓) 형제에 의하여 마석에 형성된 천주교 공동체는 권철신(權哲身) 형제의 외사촌인 홍교만(洪敎萬), 홍인 부자에 의하여 포천으로 확대되었다. 천주교회의 자료에 따르면 박해가 심해 포천의 천주교 공동체는 붕괴되었으나, 19C 중반에는 다시 부활하여 고약리, 격장리, 솟다리, 남의골, 영평 등지에 천주교도들의 공동체가 나타난다.

이들 지역은 모두 동두천의 인접 지역으로 특히 고개를 넘어 동두천장으로 장을 보러 오는 곳이기도 하였고, 동두천 생연리 일대는 포천에 천주교 신앙의 씨앗을 뿌린 홍교만 부자와 같은 남양 홍씨의 집성촌이 있던 곳이기도 하였다.

후에 동두천 출신의 천주교 순교자가 모두 남양 홍씨였고, 이들이 포천 고약리 등지에 이주하여 신앙생활을 하였다는 사실들을 감안할 때 두 지역의 지역적, 혈연적 연관성은 포천에서 동두천 지역으로 천주교가 전래되는 중요한 통로가 되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결국 동두천 지역에는 적어도 1850년경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천주교가 전래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동두천과 천주교 순교자들

동두천 지역으로의 천주교 전래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되는 것은 동두천 출신 천주교 순교자의 배출이다.

천주교회의 순교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동두천 출신 순교자들이 있다.

이름	출신지	거주지	비고
홍성원 (아오스딩)	양주 일담리 (세거지인)	포천 고약리	1868년 5월 19일 양주 포교에게 체포 나이 43세. 광주에서 순교한 홍요한의 아우
홍몽노 (베드로)	양주 일담리 (세거지인)	포천 고약리	회장. 홍성원, 홍성국의 부친. 나이 82세 백양선과 함께 체포, 순교
홍성국 (요한)	양주 일담리 (세거지인)	광주 정암, 새말	1867년 4월 광주 포교에게 체포 순교, 나이 56세
홍성선	양주 일담리 (세거지인)	공주 적바위	홍몽노의 아들 1879년 5월 공주포교에게 체포 순교, 나이 50세

주목할 것은 이들 모두가 한 가족으로서 양주 일담리의 세거지인, 즉 대대로

일담리에서 살아온 한 가족이라는 사실이다. 여기에 나타나는 일담리는 현재의 생연동으로 일담(一潭), 즉 커다란 연못을 뜻하는 지명이다.

일부 자료에 이 일담리를 이담면의 옛 지명으로 이해하여 우리 동두천이 조선 전기에는 일담, 조선 후기에는 이담으로 불렸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이는 오류이다. 왜냐하면 동두천 지역 전체에 해당하는 지명으로는 〈이담(伊淡)〉만 나타나고 〈일담(一潭)〉은 나타나지 않는데다가 〈일담(一潭)〉은 〈일담면(一潭面)〉이 아닌 〈일담리(一潭里)〉로 표기되기 때문이다. 즉, 〈일담(一潭)〉은 동두천 전체의 지명이 아니라 〈이담면 일담리〉 즉, 이담면의 한 마을이름인 것이다.

2) 신암리 공소

『동두천성당50년사』에는 동두천 성당의 여명기라는 항목을 설정하고 이 항목 전체를 '신암리공소'를 설명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신암리 공소는 1909년 개성본당 소속의 공소로 개소되었다가, 1925년에 본당으로 승격하여 연천, 양주, 파주, 포천, 가평, 고양 일대의 지역을 관할하였으나 1930년에 최문식 신부가 안성 미리내 성당 주임으로 떠나면서 다시 공소로 환원되어 행주 본당, 덕정리 본당, 의정부 본당 소속의 공소로 유지되다가 현재는 동두천 본당 소속 공소로 되어 있다.

4. 동두천 천주교회의 설립과 발전

1) 동두천 공소의 성립

1953년 동두천 지역에 민간인의 거주가 허용되면서 마을이 다시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나 당시 동두천 지역에 사는 천주교인들은 멀리 의정부까지 가서 미사를 드려야하는 형편이었다. 그러다가 1956년 생연동에서 구둣방을 경영하던

김창수의 집에서 박순애, 이창화, 김인수 등 교우들이 모여 의정부본당의 이계광 신부의 집전으로 공소미사를 봉헌하여 동두천 공소가 열리게 되었다.

그 후 공소는 생연5리의 이태구 씨의 타자학원으로 장소를 옮기는 한편, 미 7사단 영내의 종교시설에서 미군 신부가 집전하는 미사에 참석하여 성사를 보았다. 당시의 미군 신부가 동두천 공소로 사용하던 이태구 씨의 건물 수리비로 희사한 기금을 바탕으로 생연리 613번지에 성당 부지를 마련하게 된다.

2) 동두천 본당의 성립

1958년 성당 기공식을 가진 후 성장 공사가 진행되는 중에 1959년 2월 24일 동두천 공소는 본당으로 승격하였고, 이후 신자들의 노력과 미군 군종신부를 비롯한 각계의 성원에 힘입어 성당 건물이 완공되었다. 1960년 3월 이용선 신부가 초대 주임신부로 부임하였고, 1961년에는 노기남 대주교의 축성으로 성당이 봉헌되는 한편, 수녀도 부임하여 완전한 본당 체제를 갖추게 된다.

현재는 전곡, 연천, 신암리, 백의리, 청산 공소를 관할하는 의정부교구의 주요 본당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동두천 본당 (외부)


동두천 본당 (내부)

5. 동두천 천주교회의 현황

1) 동두천 성당

(1) 동두천 성당의 주요 연혁

1958년	2월 24일	동두천 공소 본당 승격
1960년	3월	이용선(베드로) 초대 주임신부 부임
1961년	4월 7일	수녀원 개설(인보성체 수도회)
		최아셀라, 채율리안나 수녀 부임
	9월 3일	동두천 성당 축성
1962년	1월 10일	손크리스티나 수녀 부임
	2월 15일	본당 부설 '효성 유치원'설립
	7월 1일	김릿다 수녀 부임
	8월 8일	이데레사 수녀 부임
1963년	1월 21일	최데레사 수녀 부임
	28일	장마리이렌 수녀 부임
1964년	2월 27일	조봄보사 수녀 부임
	8월	김희선(요셉) 2대 주임신부 부임
1965년	2월 5일	이몬다나 수녀 부임
	6월 30일	서안나마리아 수녀 부임
	7월 20일	백일성(도미니코) 3대 주임신부 부임
1966년	6월 10일	최스타니슬라오 수녀 부임
	11월	성모동굴 제막식(노기남 대주교)
	12월 14일	김승훈(마티아) 4대 주임신부 부임
1967년	1월 6일	방골롬바 수녀 부임
	3월 5일	장마리아 수녀 부임
	9월 19일	강성삼데레사 수녀 부임
	10월 15일	이창숙(그레고리오) 5대 주임신부 부임
	10월	대광리 공소축성(윤공희 대주교)
1968년	4월 18일	이비안네 수녀 부임
	10월 12일	한희동(그레고리오) 6대 주임 신부 부임

1969년	6월 9일	권말지나 수녀 부임
1970년	1월 16일	안상인(요셉) 7대 주임신부 부임
1971년	6월 13일	신암리 공소 축성 (김수환 추기경)
	9월 12일	연천 공소 축성식 (김철규 부주교)
1972년	2월 4일	이만나마들렌 수녀 부임
	4월	김카타리나 수녀 부임
	6월	수녀원 신축
1973년	5월 18일	한정관(바오로) 8대 주임신부 부임
	9월 20일	강레아 수녀 부임
1975년	5월 10일	본당 토지 등기, 대지 구입(208평)
1976년	2월 25일	이베로니까 수녀 부임
	6월 10일	임덕일(아마뚜쓰) 9대 주임신부 부임
1978년	2월 23일	장프리스카, 김십자가 요한 수녀 부임
1979년	6월 17일	전곡 공소 본당 승격 분가(연천, 대광리, 신망리 공소)
	12월 31일	정무웅(임마누엘) 10대 주임신부 부임
1981년	2월 25일	정마리아 수녀 부임
	6월	성전 신축운동 '한세대 한평짓기운동'전개 (목표 : 1억 5천만 원)
1982년	2월 18일	강리오바 수녀 부임
	9월 9일	염수완(야고보) 11대 주임신부 부임
1983년	9월 1일	김루시아 수녀 부임
1984년	2월 23일	박가브리엘라 수녀 부임
	8월 15일	본당 대지 확장 60평 가옥구입(생연동 613-10호)
	11월 12일	본당 대지 확장 109평 가옥 구입 (생연동 613-59,60호)
1985년	2월 15일	안데레사 수녀 부임
	5월 30일	본당 대지 확장 52평 가옥 구입(생연동 613-58호)
	8월 30일	이재룡(시몬) 12대 주임신부 부임
1986년	2월 19일	임마리로사, 전세실리아 수녀 부임
	20일	본당 출신 이경훈(바르톨로메오) 신학생 부제 서품
	3월 6일	이철호(암브로시오) 13대 주임신부 부임

1987년	2월 6일	본당출신 이경훈(바로톨로메오) 부제 사제서품
	19일	김마리젬마 수녀 부임
	4월 16일	본당 부설 '효성 노인대학'설립
	8월 9일	새성전 기공식(김옥균 주교)
1988년	2월 23일	이알로이시아, 홍루시아 수녀 부임
	7월 3일	새 성전 신축건물 상량식
	9월 13일	사제관 수녀원 완공 입주
1989년	8월 17일	김아가다, 송레아, 박루시아 수녀 부임
1990년	4월 14일	본당 30년사 출간
	11월 11일	김대건 안드레아 성인상 축성
2001년	1월 9일	이성진(미카엘) 보좌신부 부임
2002년	12월 3일	서한석(사도요한) 제2대 보좌신부 부임
	3월 5일	김석원(파트리치오) 17대 주임신부 부임
2004년	9월 1일	제18대 이성만(토마스) 지구장, 이석재(바오로) 주임, 정원식(요셉) 부주임 부임
	9월 1일	의정부 교구 4지구장 본당 승격
	6월 24일	의정부 교구 신설
2005년	12월 2일	김운종(안드레아) 제2대 부주임 부임

(2) 동두천 성당 사목 담당

지구장 – 이성만

주임 신부 – 이석재

부주임 신부 – 김은종

2) 역대 성직자 · 수도자 현황

(1) 역대 주임 신부

역대	성 명 (세례명)	재임 기간	현재 계신 곳
초대	이용선 베드로	1960.03 ~ 1964.08	
2	김희선 요셉	1964.08 ~ 1965.07.20	은퇴
3	백일성 도미니코	1965.07.20 ~ 1966.12.14	선종
4	김승훈 마티아	1966.12.14 ~ 1967.10.15	선종
5	이창숙 그레고리오	1967.10.15 ~ 1968.10.12	선종
6	한희동 그레고리오	1968.10.12 ~ 1970.01.16	선종
7	안상인 요셉	1970.01.16 ~ 1973.05.18	흑석동
8	한정관 바오로	1973.05.18 ~ 1976.06.10	신천동
9	임덕일 아마뚜스	1976.06.10 ~ 1979.12.31	방배동
10	정무웅 임마누엘	1979.12.31 ~ 1982.09.09	역삼동
11	염수완 야고버	1985.08.30 ~ 1985.08.30	중문
12	이재룡 시몬	1985.08.30 ~ 1986.03.06	가톨릭대학교
13	이철호 암브로시오	1986.03.06 ~ 1991.02.22	서초동
14	임병헌 베드로	1992.02.13 ~ 1992.02.13	가톨릭대학교
15	구본영 바오로	1997.02.28 ~ 1997.02.28	불광동
16	김창수 마르티노	1997.02.28 ~ 2002.03.05	선종
17	김석원 파트리치오	2002.03.05 ~ 2005.09.20	봉천1동
18	이성만 토마스	2005.09.20 ~ 2005.11.30	의정부교구4자구
19	이석재 바오로	2005.11.30 ~ 현재	현 주임신부

(2) 역대 부주임 신부

역대	성 명 (세례명)	재임기간	현재 계신 곳
초대	이성진 미타엘	2001.01.09 ~ 2002.03	화곡본동
2	서한석 사도요한	2002.03 ~ 2003.09.20	유학
3	정원식 요셉	2003.09.21 ~ 2005.11.30	유학
4	김운종 안드레아	2005.12.01 ~ 2007.09.10	운정성당 부주임
5	윤형균 클라로	2007.09.11 ~ 현재	현 부주임

(3) 역대 재임 수녀

성 명 (세례명)	직 무	재임기간	소 속
최아셀라	전 교	1961.04.07 ~ 1962.07.01	인보성체 수도회
채경희 율리안나	전 교	1961.04.07 ~ 1961.04.25	
문병숙 말지나	전 교	1961.06.20 ~ 1962.01.09	
손영자 크리스티나	유치원	1962.02.15 ~ 1962.07.14	
김재오 릿다	전 교	1962.07.01 ~ 1962.10.09	
이성옥 대레사	유치원	1962.08.08 ~ 1963.01.13	
정음전 안나	전 교	1962.10.09 ~ 1966.06.02	
장순이 마리아렌	유치원	1963.01.28 ~ 1963.06.29	
최영이 데레사	유치원	1963.01.21 ~ 1964.02.24	
조금례 세실리아	유치원	1964.02.27 ~ 1967.04.07	
이명자 몬다나	전 교	1967.02.05 ~ 1967	
서영희 마리아	전 교	1965.06.30 ~ 1966.08.24	
최부자 스타니슬라오	전 교	1966.06.10 ~ 1968.04.19	
방재현 골롬바	유치원	1967.01.06 ~ 1967.12	
장정자 마리아	유치원	1967.03.05 ~ 1967.11.04	
강연자 성삼데레사	유치원	1967.09.19 ~ 1972.02.24	
이정예 비안네	전 교	1968.04.18 ~ 1969.05.27	
권정례 말지나	전 교	1969.06.09 ~ 1972.04	
이종례 만나마들렌	유치원	1972.02.04 ~ 1973.09.17	
김영순 카타리나	전 교	1972.04 ~ 1976.02.25	
강기희 레아	유치원	1973.09.20 ~ 1978.02.23	
이인수 베로니키	전 교	1976.02.25 ~ 1978.02.23	
장부숙 프리스카	전 교	1978.02.23 ~ 1981.02.25	
김영희 십자가요한	유치원	1978.02.23 ~ 1986.02.19	
정순금 마리아	전 교	1981.02.25 ~ 1982.02.19	
장미옥 리오바	전 교	1982.02.18 ~ 1984.02.23	
김복환 루치아	원 장	1983.09.01 ~ 1987.02.19	
박향신 가브리엘라	전 교	1984.02.23 ~ 1985.02.16	
안기자 데레사	전 교	1985.02.15 ~ 1986.02.19	

임종례 마리로사	전 교	1986.02.19 ~ 1987.08.25	
진정희 체칠리아	유치원	1986.02.19 ~ 1988.02.12	
김양자 마리젬마	원 장	1987.02.19 ~ 1989.08.16	
이춘희 알로이시아	전 교	1988.02.22 ~ 1989.08.17	
홍명자 루치아	유치원	1988.02.22 ~ 1989.08.17	인보성체 수도회
김인자 아가타	원 장	1989.08.17 ~	
송세희 레아	전 교	1989.08.17 ~	
박복례 루치아	유치원	1989.08.17 ~ 1993.02.23	
지성란 바르짖다	전 교	1992.02.24 ~ 1994.02.24	
간명숙 데레사	전 교	1992.02.24 ~ 1995.02.24	
박용욱 레지나	유치원	1993.02.23 ~ 1998.02.23	
최명희 아가타	원 장	1994.02.24 ~ 1998.02.18	
강유화 프렌체스카	전 교	1995.02.24 ~ 1996.02.27	
반명자 데레사	전 교	1996.02.27 ~ 1998.02.23	
강옥희 루시아	원 장	1997.02.18 ~ 2002.02.22	
김연화 골롬바	전 교	1998.02.23 ~ 2002.02.23	
김선화 마리아도미니카	전 교	1998.02.23 ~ 1999.02.23	
정정숙 마르타	전 교	1999.02.23 ~ 2001.02.25	
문현옥 구네군다	원 장	2000.02.22 ~ 2003.02.24	
홍기란 마리아	전 교	2001.02.25 ~ 2002.02.24	
강기희 레아	유치원	2002.02.19 ~ 2006.02.24	
김순복 아가다	원 장	2003.02.24 ~ 2006.02.21	
김민정 아가피스	전 교	2003.03.24 ~ 2004.02.16	
최윤희 글라라	전 교	2004.02.17 ~ 2006.02.21	
조지연 율리안나	전 교	2006.02.21 ~ 2007.02.22	
이금자 마리요셉	원 장	2006.02.21 ~ 2009.02.16	
김옥순 엘리사벳	유치원	2006.02.21 ~ 2009.02.16	
이유경 발레리아	전 교	2006.02.22 ~ 2009.02.16	
김춘량 리드비나	원 장	2009.02.19 ~ 현재	
김희경 플로렌시아	전 교	2009.02.19 ~ 현재	
백남실 모니카	유치원	2009.02.19 ~ 현재	

3) 본당 출신 사제 · 수도자 · 신학생 현황

(1) 본당 출신 사제

성 명	서품년도	임 지	비 고
이경훈 바르톨로메오	1987년	상도동 본당	신암리 공소
최성우 세례자 요한	1994년	의정부교구 전산실	동두천 성당

(2) 본당 출신 수도자

성 명	입회	종신서원	임 지	비 고
노성열 프란체스코	1987	2000.7	사랑의 선교수사회 본원	
박경아 글라라	1991	2000.6.20	강경 성당	전주 교구
김미숙 야고버	1991	2000.6.20	춘천 소양로성당	춘천 교구
김인숙 끼아라	1992	2003.7.25		세례자 성 요한 수녀회
이소영 로즈마리	1997	2006.8.31		
이은희 로사	2007		음성 꽃동네	음성꽃동네 예수회자매회

4) 역대 사무장 및 관리장

(1) 사무장

성 명	근무기간	성 명	근무기간
탁미경 카타리나	1980~1983	유항진 베로니카	1992~1992
문순녀 안 나	1983~1984	이미령 클라우디아	1992~2002
송명숙 베로니카	1984~1985	김춘기 비 오	2002~2009
문순녀 안 나	1985~1988	김정수 크리스피노	2009~현재
박상숙 엘리사벳	1988~1992		

(2) 관리장

성 명	근무기간	비 고	성 명	근무기간	비 고
박경선 분 도	1959~1975	종지기	박지문 안셀모	1992~1994	〃
김주명 시 몬	1975~1979	관 리	이형우 베드로	1994~2003	주간관리
이종우 토마스	1979~1980	〃	이선재 바오로	1995~현재	야간관리
김이재 요 셉	1980~1986	〃	박상규 요 한	2003~2005	기사경직
이정근 로마노	1986~1989	〃	박순원 가브리엘	2005~2006	주간관리
이병학 아만시오	1989~1992	〃	안용철 마티아	2006~현재	〃

5) 교세 현황

(1) 구역별 신자 수

(2008년도 8월 말 현재 구역 현황)

구 역		세대수	남	여	계	행정동	비고
1 지 역	1구역	52	42	79	121	중앙동	
	2구역	43	27	52	79	중앙동	
	3구역	61	63	89	152	중앙동	
	5구역	68	63	90	153	생연1동	
	6구역	53	57	68	125	생연1동	
2 지 역	7구역	64	73	87	160	불현동	
	8구역	46	34	66	100	불현동	
	9구역	69	82	85	167	불현동	
	10구역	61	64	96	160	불현동	
	11구역	52	62	93	155	생연2동	
	12구역	58	65	90	155	생연2동	
3 지 역	13구역	128	130	165(1)	295	불현동	
	14구역	101	102	139	241	상패동	
	15구역	70	74	93	167	보산동	
	16구역	57	56	77(1)	133	생연1동	
	17구역	130	135	183(1)	318	동안동	
	18구역	79	84	02(1)	186	신암리 공소	
	19구역	85	100	144	244	불현동	
	20구역	29	34	47	81	송내동	신시가지
	21구역	95	106	129	235	송내동	
	22구역	81	68	108(1)	176	송내동	
	23구역	110	123	159	282	송내동,생연동	
	24구역	143	169	204(1)	373	송내동	
	25구역	57	63	69	132	송내동	
	기타	117	94	102	195		
	합계	1,909	1,970	2,616	4,586		

1. 여자 괄호안 수 : 남녀식별이 어려운 교우를 여자로 통계
2. 2007년 말 쉬는 교우 : 남 275명 여 199명 계 474명
3. 동두천시총인구(2007년 말) : 남 44,669명 여 44,111명 총 88,780명
4. 구역내 총인구대비 신자비율 : 5 %

(2) 연도별 영세자 현황

연도	남	여	계	연도	남	여	계
1960	67	60	127	1986	93	167	260
1961	87	98	185	1987	58	93	151
1962	55	65	120	1988	46	80	126
1963	115	88	203	1989	65	100	165
1964	82	82	164	1990	36	75	111
1965	106	117	223	1991	35	64	99
1966	82	96	178	1992	57	98	155
1967	77	76	153	1993	82	91	173
1968	115	149	264	1994	53	68	121
1969	78	127	205	1995	46	84	130
1970	99	117	216	1996	54	66	120
1971	75	96	171	1997	61	114	175
1972	149	91	240	1998	96	138	234
1973	140	140	280	1999	105	150	255
1974	101	131	232	2000	80	104	184
1975	85	108	193	2001	129	185	314
1976	105	126	231	2002	56	69	125
1977	38	66	104	2003	95	105	200
1978	33	75	108	2004	71	91	162
1979	44	66	110	2005	50	70	120
1980	64	75	139	2006	56	70	126
1981	74	121	195	2007	52	55	107
1982	73	114	187	2008	33	63	96
1983	50	67	117				
1984	72	87	159				
1985	60	75	135	합 계	3,645	4,713	8,348

(3) 연도별 견진자 현황

연도	월 일	남	여	계	집전자	비 고
1960	11. 12	15	26	41	노기남 대 주교	
1963	08. 25	135	134	269	노기남 대 주교	
1966	04. 24	86	130	216	노기남 대 주교	
1968	11. 13	35	70	105	김수환 대 주교	
1970	10. 09	80	101	181	김수환 추기경	
1972	05. 20	69	65	134	노기남 대 주교	
1974	09. 08	77	97	174	김수환 추기경	
1977	05. 25	74	101	175	경갑용 주교	
1979	09. 30	56	44	100	경갑용 주교	
1982	11. 14	82	144	226	김수환 추기경	
1985	09. 08	70	143	213	김수환 추기경	
1989	06. 09	61	108	169	김옥균 주교	
1990	10. 06	16	21	37	김수환 대 주교	
1991	11. 10	7	31	38	김옥균 주교	
1993	06. 13	47	85	132	두 봉 주교	
1994	07. 10	39	53	92	김옥균 주교	
1996	11. 30	39	69	108	김수환 추기경	
1998	10. 29	48	100	148	김옥균 주교	
2000	11. 08	44	81	125	강우일 주교	
2002	11. 03	70	119	189	김병도 몬시뇰	
2004	07. 18	55	111	166	이한택 주교	
2006	06. 18	38	72	110	이한택 주교	
2008	10. 05	43	67	110	이한택 주교	
합 계		1,286	1,972	3,258		

6) 본당 평신도 및 레지오마리에 현황

(1) 평신도 단체

구분	단체명	설립년월일	남	여	계	활동 내역	단체장
1	사목협의회	1960.03	19	4	23	본당사목과정 봉사	정문석(세자요한)
2	남성 구역.반	1992.05	20		20	구역 공동체 활성화	이기석(마르코)
3	여성 구역.반	1960.03		30	30	소공동체 활성화	정정균(세라피나)
4	성모회	1980.05.20		56	56	신심, 봉사활동 및 전교	탁경희(카타리나)
5	전례단	1997.03	12	17	29	본당 모든 전례 봉사	김원경(라파엘)
6	자모회	1981.07.13		7	7	주일학교 후원	안미경(마리아)
7	어린이부 교사회	1975.03	1	10	11	주일학교 교육지도	이혜진(아나다시아)
8	청소년 교사회	1980	4	1	5	주일학교 교육지도	김유승(요한)
9	예비교리 봉사단	1996 봄	5	11	16	예비신자 교리봉사	송창열(사도 요한)
10	청년 복사단	2007.03.25	1	4	5	미사, 전례복사	조용히(요셉)
11	청년 연합회	1997.05	10	10	20	청년 활성화 및 선교	조용히(요셉)
12	아훼향기 성가대	1982	10	8	18	청년미사 성가 전례봉사	이상연(요셉)
13	청년 전례단	1997.05.25	3	7	10	청년 전례 미사 봉사	허강철(안토니오)
14	성체 조배회	2002.07.14	5	60	65	성체묵상 기도	변영숙(안나)
15	성물방	1990.04		9	9	성물 판매 보급봉사	김성순(루갈따)
16	미사 해설단	2002.05.20	4	9	13	미사 전례 봉사	김원경(라파엘)
17	성령 기도회	1982.03.12	4	16	20	성령기도, 친교, 선교	김수영(수산나)
18	성소 후원회	1960	10	10	20	성소 지원 및 개발 친교	홍현옥(요안나)
19	부부 독단	2002.05.20	8	8	16	미사 전례 독서 봉사	여광재(안토니오)
20	울뜨레아	1973.10.12	12	21	33	재교육 신심 친교 전교	최순학(스터왕)
21	글로리아성가대	1960	7	20	27	성가 전례 및 친교 선교	송영숙(헬레나)
22	첫 영성체 교리	2003.03		5	5	교리교육 첫영성체 준비	이수녀(이발레리나)
23	연령회	1978.03.19	10	20	30	상가 봉사 친교 전교	조성대(돈보스코)
24	빈첸시오회	1987.10.11	6	1	7	불우 이웃 봉사 친교	권오석(베드로)
25	ME메리지카운터	1986.12.07	10	10	20	가정 공동체 사랑 실천	임영구(안드레아)
26	효성노인대학	1987.04.16				노인대상 신앙교육	
27	세자요한 축구회	1998.10	15		15	체력 단련 친교 선교	양남열(스테파노)
28	제대회	1992.05		20	20	제대 꾸밈 제의방 봉사	조화숙(레오나)
29	50년 편찬사	2006.01.03	9	2	11	본당 역사 발굴 보존	길성현(안토니오)
30	묵주기도의 쌜	2008.02.13		20	20	세계병화 죄인회개	권억자(수산나)

(2) 레지오마리에 현황

구분	단체명	설립년월일	남	여	계	단체장	본 명
1	103위성인 모친Co.	2004.12.29				이희옥	에몬
2	기쁨의 샘Cu.	2004.12.12	47	128	175	김선식	요셉
3	천상의 어머니Pr.	1985.07.15				이영숙	까리다스
4	성조들의 모후Pr.	1986.10.03	10		10	이기석	마르코
5	다윗 탑Pr.	1982.02.13	6		6	이정근	로마노
6	사도들의 모후Pr.	1996.02.08	8		8	이의석	바오로
7	평화의 모후Pr.	1978.12.02		10	10	이예규	엘리사벳
8	매괴의 모후Pr.	1995.03.05		10	10	이은분	레지나
9	신비로운 장미Pr.	2000.07.11		9	9	원일자	모니카
10	하늘의 문Pr.	1994.09.24	13		13	김정현	사도요한
11	바다의 별Pr.	1980.12.09		9	9	최병순	안젤라
12	원죄없이잉태되신모후Pr.	1998.01.09		10	10	최금자	엘리사벳
13	정결하시 동정녀Pr.	1985.05.16				변영숙	안나
14	천사들의 어머니Pr.	2005.02.23		10	10	김을석	카타리나
15	은총의 모후Pr.	1998.02.13		9	9	권억자	수산나
16	착한의견의 어머니Pr.	1990.02.18		14	14	김길자	유스티나
17	위로의 샘Pr.	1998.01.20	10		10	길성현	안토니오
18	파티마의 성모Pr.	1986.10.20		13	13	장영순	베로니카
19	신자들의 도움Pr.	1997.07.10	10		10	이재영	마르코
20	찬송하올 어머니Pr.	1986.05.14		10	10	정현숙	마리아
21	순교자들의 모후Pr.	1986.08.15		5	5	왕춘식	실비아
22	인자하신 모친Pr.	1982.12.12		2	2	이무순	막달레나

* 꼬마시움 1, 꾸리아 1, 레지오마리에 20

7) 송내동성당

(1) 송내동성당의 창설과 본당 건축

2009년 8월 27일자로 동두천본당에서 송내본당이 분리 신설되었다. 송내동본당(경기도 동두천시 송내동 666-2) 관할구역은 송내동, 생연2동 일부(733, 792-1번지), 지행동 일부(340, 316번지)이며 신자 수 672가구 2,030명이다. 송내성당은 동두천성당에서 분당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송내동

666-2번지에 신축부지를 조성하고 2006년 초 평탄작업을 실시한 뒤 본당 교우들로부터 조경에 사용될 나무를 기증받아 신축부지에 조경을 실시하였다.


새로 건립된 송내동 성당의 모습(외부)


(내부)

이후 건축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바자회를 실시하고, 또한 교우들에게 신립금을 책정받는 등의 꾸준한 노력 끝에 2007년 3월 31일 의정부교구 4지구장 이성만 토마스 신부와 동두천 성당 주임 이석재 바오로(동두천 부임초기 송내성당 주임신부로 부임함) 신부 그리고 관내의 내빈들을 모시고 본당의 교우들이 참석한 가운데 착공미사와 함께 첫 삽을 떴다. 이후 송내성당 신축공사는 대지면적 2,874㎡(869.5평), 건축면적 473.02㎡(143.1평), 연면적 1,487.40㎡(450.0평)에 5층 건물을 완공하였고, 2007년 10월 21일(일) 11시 이한택(요셉) 주교를 모시고 교구의 많은 성직자와 내빈, 그동안 성당 완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본당 교우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거행하게 되었다.

⑵ 송내동성당의 현황

① 사목 담당

주임신부 김영석

연령회장 정선채

② 사목 조직

분과명	분과장	분과명	분과장
사목회 총회장	정선채 마지아	전 례 분 과	권오진 유스티노
사목회 부회장	윤만규 베드로	사회사목분과	석익영 사도요한
사목회 부회장	이정자 골롬바	교 육 분 과	장선경 사베리오
사목회 총 무	한국희 시 몬	시 설 분 과	이병기 요셉
사목회 부총무	이병수 요 한	청소년 분 과	변내호 레오
재 정 분 과	장정모 베드로	예비자 분 과	윤문자 데레사
기획, 홍보분과	이의석 바오로	선 교 분 과	이성기 젤마노

제4절 동두천 유림(儒林)의 성장과 변화

1. 한국의 유교(儒敎)

유교(儒敎)는 공자(孔子)의 도의사상을 종지(宗旨)로 하는 인본주의적 윤리의 교(敎)이다. 인(仁)으로써 모든 도덕(道德)을 일관하는 최고의 이념으로 삼고 명덕(明德) · 친민(親民) · 지어지선(至於至善)의 삼강령(三綱領)은 유교의 기본 이상이요, 격물(格物) · 치지(致知) · 성의(誠意) · 정심(正心) · 수신(修身) · 제가(齊家) ·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의 팔조목(八條目)은 인간의 내적수양을 거쳐서 외적 덕화(德化)의 과정을 명시하여 그 이상을 완수하게 하는 단계적 기본행위를 밝힌 것으로 수천 년 동안 중국은 물론 우리나라와 일본 등 동양의 이상(理想)을 지배해 왔다.

유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정확한 연대는 확실치 않으나 삼국시대(三國時代)에 당(唐)의 학제인 국학(國學)을 받아들인 때를 그 기원으로 삼는다. 즉 고구려는 소수림왕 2년에 태학(太學)을 세웠으며 백제는 국학을 세운 기록은 없으나 고이왕 5년에 이미 왕인 박사(王仁 博士)가 논어(論語)와 천자문(千字文)을 일본에 전한 기록으로 보아 그 이전부터 유학(儒學)이 전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신라에도 오래전부터 전래되어 있었던 것 같으나 국학의 건립은 훨씬 늦어 신문왕 2년에야 실시되었다. 그 후 신라에서는 당나라에 유학생을 보내 학문을 장려하여 최치원(崔致遠) 같은 이는 당나라 과거에 급제하여 이름을 떨쳤고 설총(薛聰)은 이두(吏讀)를 창시하여 구경(九經)을 해석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유교는 유능한 관리를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었고 부차적으로는 지도계급으로 하여금 경사(經史)를 통하는 한편, 사부(詞賦)와 문장(文章)을 능하게 하는데 있었다.

고려시대에는 태조의 숭불정책(崇佛政策)으로 유교가 한때 부진상태에 놓였다가 광종이 경외(京外)에 향교(鄕校)를 세웠고 성종 11년에 비로소 중앙 국자감(中央 國子監)을 세웠으며 문종 때에는 최충(崔沖)이 구제(九齊)를 설치하고 학도를 가르쳤다. 그러나 무관의 발호(跋扈)와 전란(戰亂)의 계속으로 유교는 240년간이나 다시 침체상태에 빠졌다가 제25대 충렬왕 때 안향(安珦)이 왕을 따라 연경(燕京)에 다녀오면서 주자전서(朱子全書)를 입수하여 가지고 온 후 정부에 건의하여 국학을 세우고 문묘(文廟)를 건립하여 공자를 숭배하는 등 유교부흥에 크게 힘썼다. 그는 또한 우리나라에 주자학(朱子學)을 처음 수입하였으므로 주자학의 시조로 일컬어진다.

조선시대는 개국 초부터 태조의 숭유억불정책(崇儒抑佛政策)으로 유교가 크게 발전하게 되었다. 처음 유교의 기초를 확립한 학자는 정도전(鄭道傳)이다. 그는 「불씨잡변(佛氏雜辨)」 등의 논설을 통하여 불교(佛敎)를 배척하고 유교를 숭상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같은 시대의 유학자 권근(權近)도 많은 저술로 이에 동조하였다.

한편, 고려의 유신(儒臣) 길재(吉再)의 학통(學統)을 이어받은 김종직(金宗直)은 영남학파의 종조이며 그의 문인(門人) 김굉필(金宏弼), 정여창(丁汝昌)은 무오사화로 희생되었다. 유학계의 거두로서 이황(李滉)과 이이(李珥)가 각각 퇴계학설(退溪學說)의 주리파(主理派)와 율곡학설(栗谷學說)의 주기파(主氣派)의 2대 조류(二大潮流)를 만들었다.

조선조 말에는 유가들이 국제정보에 어둡고 유교의 유신정신을 망각하고 정당과 합세하여 보수와 배타로 일관했다. 그러나 국세가 위급하자 민영환(閔泳煥), 안중근(安重根) 등은 유가로써 살신성인(殺身成仁)의 대의를 이루었다.

한말에 서세동점이 날로 심각하여짐에 따라 정부에서는 처음에 양이배척(洋夷排斥)의 쇄국정책을 쓰다가 후에 문호개방의 기세도 보이며 전국의 유자들은 대부분이 척사위정(斥邪衛正)의 운동을 일으켜 외세배격을 극력 주장하였으나 그 수구운동(守舊運動)은 성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장애물의 존재같이 여겨지게 되었다.

한일합방과 동시에 일본의 소위 문화정책에 따른 일부의 유학자는 성균관(成均館)을 경학원(經學院)이라 개칭하고 명륜전문학교(明倫專門學校)를 부설하여 공죄상반(功罪相伴)의 기형적인 교육을 실시하였다.

한편, 3·1운동 때에는 한국의 독립을 호소하는 유림단진정서를 만국평화회의에 보내는 등 항일에 가담하다가 8·15해방을 맞고서는 전국유림의 총의에 의하여 경학원(經學院)을 다시 성균관(成均館)으로 환원시키고 단기 4288년(서기 1955년) 전국유림결성체인 유도회(儒道會)를 새로 결성하는 한편, 성균관대학(成均館大學)을 설립하고 유학정신(儒學精神)에 의한 새로운 민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 성균관(成均館)

고려 말과 조선시대의 최고 교육기관인 대학(大學)의 명칭. 학궁(學宮) 또는 반궁(泮宮)이라고도 하였다. 『주례(周禮)』에 의하면 '성균'은 오제(五帝)의 학(學) 가운데 남쪽에 있었던 것으로 음악(音樂)으로 교육적 성과를 내기 위해 대사악(大司樂)이 그 성균지법(成均之法)을 맡았다고 한다. 여기에서 성균은 음악의 조율(調律)을 맞춘다는 말로서 즉 어그러짐을 바로잡아 이루고, 과불급(過不及)을 고르게 한다는 뜻이다.

1) 위치와 연혁

고려의 국립대학인 국자감(國子監)이 충렬왕(忠烈王) 24년(1298)에 성균감(成均監)으로 되었다가 충선왕(忠宣王) 즉위년(1308)에 성균관이라 하였다. 공민왕(恭愍王) 5년(1356)에 국자감으로 환원하였다가 1362년에 다시 성균관으로 고쳐서 조선시대에 계속 대학의 명칭으로 사용하였다. 고려 때의 위치는 개성(開城)에 있었고 조선시대에는 서울[漢陽]의 숭교방(崇敎坊:明倫洞)에 있었는데 현재까지 존속되고 있다. 조선 태조 7년(1398) 7월에 교사(校舍)가 창건되었는데 이 해를 근대 학제 개편 이후의 성균관대학교 창립 연도로 삼고

있다. 태조 당시에는 유학(儒學)을 강의하는 명륜당(明倫堂), 공자(孔子) 및 중국과 한국의 역대 성현들을 모신 문묘(文廟:大成殿, 東 · 西廡), 유생(儒生)들이 거처하는 동 · 서재(東 · 西齋) 등이 있었다. 성종 때에 향관청(享官廳)과 존경각(尊經閣:도서관)이 세워졌고 현종(顯宗) 때에 비천당(丕闡堂:부속과거장)이, 숙종(肅宗) 때에 계성사(啓聖祠:공자 및 오성(五聖)의 부(父)를 봉안(奉安)가 증설되었다. 고종(高宗) 24년(1887) 경학원(經學院)을 부설하였다.

그 후 고종 32년(1895) 7월 2일에 성균관 관제(管制)를 칙령 제136호로 반포하여 성균관은 문묘를 받드는 기관으로 하고 교육은 경학과(經學科)에서 전담하게 하였다. 반상(班常)의 구별 없이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교육의 기회 균등을 밝혔으며 시대적 요구와 추세로 인하여 '문명(文明)한 진보(進步)에 주의(注意)함을 요지(要旨)로 함'을 발표하였다. 1910년 한 · 일합병으로 인하여 성균관과 향교의 재산을 분리하고 교육을 일체 중지하여 국립대학과 민족 교육의 맥을 끊었고, 명칭도 경학원(經學院)으로 완전히 바꾸어버렸다. 그 대신 일제는 식민지 교육을 위하여 경성제국대학(京城帝國大學)을 1924년 설립하였다. 당시 전국의 유림(儒林)이 주권을 지키려는 운동으로 의병(義兵)과 파리장서사건(巴里長書事件) 등을 일으키고, 통문(通文)을 돌려 성균관의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 회복을 선도하자 그 회유책의 일환으로 1930년 명륜학원(明倫學院)을 설립하게 되었다. 1939년에 명륜전문학원으로, 1942년에 명륜전문학교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진실한 유학 교육과 문화 창달에 미치지 못하고 일본의 변질된 황도유학(皇道儒學)을 강요하게 되었다. 교과 과정에 있어서도 국민도덕 · 일본사 · 교련 등을 넣어서 그들에 영합하는 교육으로 변모하였다. 그것마저 1943년 폐교 조치가 되고 청년연성소(靑年鍊成所)로 바뀌게 되었다. 일제에 의해 말살되었던 유일한 국립대학으로서 민족 교육을 이룩해내었던 전통을 되살리는 운동이 8 · 15광복과 더불어 일어났다. 1945년 명륜전문학교로 문을 열었다가 미군정시대에 명칭을 성균관으로 변경하였고 1946년 9월 25일 성균관대학이 정식으로 설립되었고, 1953년에는 성균관대학교로 종합대학이 되었다.

3. 향교(鄕校)

1) 향교의 기원

우리나라에서 학교(學校)는 이미 삼국시대부터 있었는데, 고구려의 '태학(太學)', 신라의 '국학(國學)'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들 학교는 중앙에 설치된 관학(官學)으로 귀족의 자제를 교육시키던 일종의 관리 양성 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고구려의 '경당(扃堂)'에서는 서민의 자제들을 교육시켰던 것으로 보이지만 남아 있는 문헌 자료가 적어서 그 구체적인 실상은 확인할 수 없다.

각 지방에 학교가 생긴 것은 과거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한 고려시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 뒤 조선시대에 이르면 지방학교를 대표하는 관학인 향교(鄕校)와 사립인 서원(書院)이 있었다. 이들 향교와 서원은 설립 주체나 배향(配享) 인물, 설립시기 등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형태나 기능 면에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쉽게 비교 설명할 수 있다.

〈표 4-14-9〉 향교와 서원 비교

	설립 주체	배향 인물	설립 시기	기 능
향 교	국가(관학)	공자, 4성, 10철, 72현, 송조 6현, 우리나라 18현 등(일률적)	고려	교육기관, 제향
서 원	개인(사학)	이황, 이이, 송시열 등 우리나라 명현(서원마다 다름)	조선(16세기 이후)	교육기관, 제향

일반적으로 향교는 공자(孔子)와 그 제자들의 제사를 지내면서 지방 자제들을 교육시키던 관립학교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처음에는 '지방학교'라는 의미를 지녔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세워진 것으로 소학(小學), 주학(州學), 향학(鄕學), 상숙(庠塾) 등이 있었다.

향교는 공자가 출현하기 훨씬 전부터 사용되어 온 개념으로, 중국에서는 『춘추좌전(春秋左傳)』 양공(襄公) 31년(B.C.542) 12월에 "정나라 사람들은 향교에서

학문을 배우면서 정치하는 대신들을 비평했다(鄭人遊于鄕校以論執政)"라는 기록이 나온다. 우리나라는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서 고려 태조 13년(930)에 왕이 서경(西京, 지금의 평양)에 행차하여 세웠다는 '학원(學院)'을 향학의 시초로 보고 있다. 그러나 향학을 향교의 전신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는 아직 분명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고려사(高麗史)』 인종 20년(1142) 2월 "시험에 응시하는 지방 학생들은 계수관 향교의 도회(都會, 고려시대 매년 여름에 지방의 인재를 뽑았던 모임)에서 증명을 주도록 했다"는 기록에서 향교가 처음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미 인종 5년(1127)에 전국의 주(州)에 향학을 세우도록 조서를 내린 적이 있고, 각 군현(郡縣)에 학교가 설립되었다는 사례가 나타남을 고려할 때 이 시기를 향교의 설립 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듯 향교는 고려조에 설립되었으나 무신집권기와 몽고와 왜의 침입 등으로 인하여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다가, 고려 말에 지방관과 유생들의 노력에 의해 점점 그 기능을 회복하고 숫자도 증가하였다. 그 뒤 조선이 건국되면서 향교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즉 국가의 지도 이념으로 채택된 성리학을 모든 백성에게 보급시키기 위한 '1읍 1교(一邑一校)'의 원칙에 따라 전국의 모든 군현에 향교를 건립하게 된 것이다. 『세종실록(世宗實錄)』-「지리지(地理誌)」는 당시 전국 329개 고을에 향교가 건립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향교들은 그 군현과 운명을 같이 하였다. 즉 군현이 없어지면 향교도 폐교되었고, 새로운 군현이 생기면 더불어 향교도 세워졌다. 가장 최근에 세워진 향교는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에 있는 오천향교(鰲川鄕校)로 1901년에 세워진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향교는 대부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 불타 없어졌던 것을 조선 후기에 중건한 것이다. 현재까지 한반도에 남아 있는 향교는 남한에 231개가 있으며, 북한에도 1950년 이전까지 많은 수가 남아 있었으나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표 5-23-10〉 전국의 향교 현황

시도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향교수	1	2	3	4	1	2	2	25	16	18	36	26	28	39	25	3	231

2) 양주향교(楊州鄕校)

『고려사열전(高麗史 列傳)』에는 광종 때 경외(京外)에 향교(鄕校)를 설치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 『고려사(高麗史)』「선거지 학교조(選擧誌 學校條)」에는 인종 5년(1127)에 왕명으로 제주(諸州)에 학교를 세웠다고 되어 있으며 고려 성종 6년(987)에 전국 12목(牧)(楊州, 光州, 忠州, 淸州, 公州, 晋州, 尙州, 全州, 羅州, 昇州, 海州, 黃州)에 경학박사(經學博士), 의학박사(醫學博士)를 각 일 인씩 배치하였다는 기록을 보면 고려 성종 이전에 양주(楊州)에 향교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경식략 권지이(漢京識略 卷之二)』「각동조(各洞條)」의 "향교동 – 여기에 조종암의 옛 집이 있었다. 고려시대에는 한양향교가 있던 곳이다(鄕校洞– 有趙靜菴舊宅, 前朝時漢陽鄕校 在此)"라고 한 기록을 볼 때 전조(前朝)는 고려조를 말하는 것으로 지금의 서울 종로구 일원 어디엔가 향교가 있었다는 것은 여러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천 년 전 양주향교는 현 위치 조금 위에 창건되었다고 추정되며 조선왕조가 도읍을 개성에서 한양으로 옮기면서 태종 원년(1399)에 현 위치 위쪽에 이건(移建)되었고 세종 27년(1445)에 향교위전(鄕校位田) 10결(結)을 하급받아 향교의 기본 재산이 되었으며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것을 광해 2년(1610) 경술에 중건하였고, 숙종 9년(1683)에 향교좌지(鄕校坐地)가 협소하고 목재가 후상(朽傷)되어 비바람을 견디기 어렵다고 본 양주목사 이유(李濡)가 경기감사 김우석(金禹錫)에 보고 예조(禮曹)를 거쳐 윤허를 받아 현 위치에

이건(移建)되었으며, 숙종 40년(1714)에는 양주유생이 위패차서(位牌次序)가 바뀐 것(伯, 叔 두 분과 程子)을 예조에 상소 양주향교는 물론이고 전국향교의 차서(次序)가 바뀐 것을 바로잡게 되었다. 이 일은 양주유림의 자랑이다.

철종 원년(1850)의 양주목사 김신근(金愼根)이 학궁(學宮) 명륜당(明倫堂)이 지은 지 오래되어 비바람을 지탱하기 어려움을 보고 관비와 사림의 서신보(徐莘輔), 최경호(崔景濩), 이경섭(李敬燮), 이병일(李炳一), 권계(權棨), 김우용(金愚容), 서영석(徐永錫) 등의 협조를 얻어 학궁을 중수하여 장보(章甫)들이 강학(講學)하여 오다가 고종 2년(1895) 소학교령(小學校令)이 칙령(勅令) 제145호로 공포되어 관립소학교, 공립소학교, 사립소학교로 나누어 설립되고 보통, 고등 이과(二課)로 편성, 동년 8월 1일부터 남녀 모두 입학시키고 초창기 학교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향교에서 개화(開化)된 소학교(小學校) 교육을 시켰다. 당시 향교에 교육기능이 폐지됨을 기념하기 위해서 한창교(韓昌敎)(1882-1945) 외 학생들이 지금 명륜당(明倫堂) 앞 두 그루의 은행목을 식수한 것으로 전한다.

광무 4년(1900) 향교재산관리규정이 제정되어 부윤(府尹), 군수(郡守)가 책임 관리하였다. 1945년 미군정법령(美軍政法令) 제194호로 향교재산관리법을 제정, 현재 각 도 향교재단이 향교재산을 관리하고 있다.

향교의 교육기능이 소학교로 넘어가고 향교 책임자를 직원(直員)이라 명명하고 직원의 임면은 학부대신이 임명하고 직원은 향사(享祀)와 삭망분향(朔望焚香)만을 봉행하도록 했다.

1950년 6 · 25 전화(戰火)로 향교건물 일체가 소실된 것을 대성전(大成殿)과 동서무(東西廡) 내외 삼문(三門)은 1957년에 중건되었고, 1976년 10월 25일 공문십철(孔門十哲) 송조사현위패(宋朝四賢位牌)를 전국유림총회 결의로 매안(埋安)하고 송조이현(宋朝二賢)과 동국(東國 · 韓國) 십팔현(十八賢)을 대성전에 봉안하였다.

현재 향교의 석전대적 및 삭망분향에는 동두천 · 양주 · 의정부 · 남양주시 등 4개시 유림이 참사하고 있다.

4. 성균관유도회 개황(概況)

1) 일제강점기의 유림 실상

구한말의 유림은 극도로 피폐하였다. 을사오적(乙巳五賊)의 매국노(賣國奴)라고 하는 사람들도 유가(儒家)의 출신으로 유학의 교육을 받은 자들이며, 재야유림(在野儒林)들도 무기력한 거짓유림(僞儒)들이 많았다.

그래서 백암(白岩) 박은식(朴殷植, 1859.9.30-1925.2.11)의 「유교 구신론」과 단재(丹齋) 신채호(申采浩, 1880.11.7-1936.2.21)의 유림을 계몽하는 논설문 등이 나오게 된다. 일제강점기 36년간 유림단체들의 유형에는 대체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보수파유림(保守派儒林)이고 둘째, 친일파유림(親日派儒林)이며 셋째, 항일독립파유림(抗日獨立派儒林) 등이다.

첫째, 보수파유림은 유림으로서 민족적인 양심(良心)은 살아있지만 현실을 절망적으로 인식하여 소극적으로 저항을 하거나 마지못해 협력을 하는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유림들이다. 심산(心山) 김창숙(金昌淑)은 "머리카락은 생명(生命)처럼 소중히 여기면서도 창씨개명(創氏改名)의 반대에서 소극적인 반응을 보인 유림들이 있는가 하면 스스로 도학자(道學者)로 자처하면서도 숨어살면서 나라보다도 도(道)를 중히 여긴다는 핑계로 독립운동에 관여하지 않은 유림들이 대부분"이라고 하였다.

둘째, 친일파유림은 유림으로서 민족의 양심을 저버리고 일제에 아부하여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며 안일한 삶을 누리던 관료유림(官僚儒林)들이다. 이들은 경술년(庚戌年) 망국(亡國) 시에 일제로부터 작위(爵位)를 받은 자로서 경학원(經學院)을 무대로 친일활동(親日活動)을 하였다. 일제는 성균관을 경학원으로 개편하고 경학원의 요직을 친일파 귀족에게 임명하였으며, 친일파 귀족들은 경학원을 근거지로 삼아 산하에 각종 친일유림단체(親日儒林團體)를 조직하게 된다. 친일유림단체로는 대동사문회(大東斯文會), 유도진흥회(儒道振興會), 유도천명회(儒道闡明會), 유도창명회(儒道彰明會), 유교부식회(儒敎扶植會), 유교대도회(儒敎大道會), 구례유생양반회(求禮儒生 兩班會),

전선유림연합회(全鮮儒林 聯合會), 조선유도연합회(朝鮮儒道 聯合會) 등이 있었다. 이들의 실제 행태는 황도유학(皇道儒學)의 부식(扶植), 지원병(志願兵)의 권장, 황군(皇軍) 후원 국방헌금(國防獻金) 등을 위한 교육강좌와 강연회를 통해 유도의 황민화(皇民化) 체제에 봉사하면서 겉으로는 문묘(文廟)의 향사와 효자 · 절부의 표창, 유교(儒敎)의 교화 등을 내세우는 일제의 위장술(僞裝術)에 부화협력(附和協力)하였다.

셋째, 항일독립유림은 유림으로서 악랄한 일제의 탄압과 회유책에 끝까지 굴하지 않고 민족의 양심을 고수하여 순절 · 의병 · 망명 · 투옥 · 비밀결사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살아간 지사적(志士的) 유림들이다.

2) 광복 후의 유림재건운동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면서 경향 각처에서 유림이라는 명패를 들고 성균관으로 몰려들었다. 모여든 유림들은 각기 파벌을 조성하여 갈등과 충돌을 일으키게 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 갔다. 하루에도 몇 차례씩 서로 충돌하여 3~4개 단체가 뒤엉켜 유혈투쟁까지 벌이기가 일쑤였다. 이들 유림조직들에게는 정치 · 사회활동을 통한 인적인 구성과 물적인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헤게모니 쟁탈이 그 현안 문제가 된 것이다. 대동회, 성정회, 명륜회, 유림회, 대성회 등 허다한 명칭으로 활동하였으나 간판을 정식으로 내건 단체는 대동회(大同會) 뿐이었다.

이와 같이 각 파간의 충돌이 날로 심해져 갔는데, 1945년 11월에 백범(白凡) 김구(金九)가 상해 임정에서 귀국하게 되자 모두가 김구(金九)를 총재로 모시자는 데 이의가 없었으므로 각축전은 어느 정도 정리되었다. 1945년 11월 30일 전국적인 유림대회가 개최되었다. 서울의 성균관 명륜당 앞에서 남북한의 유림 일천여 명이 참집한 전국유림대회는 6일 동안 열렸는데, 임시의장과 사회는 한국독립당(韓國獨立黨) 정치위원장인 김성규(金星圭, 1864-?)가 맡아 진행하였다. 유도회중앙집행위원회 결의에서 고문에 이승만, 김구와 위원장에 김창숙, 부위원장에 김선규, 이기완, 총무에는 최중철, 이우세, 서성달이

선출되었다.

유림대회는 이후에도 자주 열렸으나 소위 유림이라고 칭도(稱道)하는 단체들의 인적 구성이 복잡다단하여 친일 및 일제와 타협한 황도유림이 있는가 하면 독립운동가(獨立運動家)가 있으며, 그리고 좌·우파에 걸쳐 있는 단체가 있어 그리 단순하지 않았고, 지역과 학맥에 따른 이해와 갈등이 상충되어 정리·통일되기란 쉽지 않았다. 그러나 1946년 1월 19일의 전국유림통일대회에서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조선을 원조한다 함은 감사하나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 국교적인 원조를 해주기를 원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 결의문을 미·소·영·중 4개국에 보내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운동은 조선의 자주독립을 추구하는 운동으로 확산되기에 이르렀으며, 이는 유림의 역량이 올바른 방향으로 자리 잡는 바람직한 현상이었다.

1946년 2월 10일에는 오랫동안 분립되어오던 유도회 간부회의를 성균관에서 개최하고 완전히 합의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아, 3월 13일 전국유림대표자대회를 열어 유도회의 조직을 개정키로 하였다. 마침내 1946년 3월 13일 전국유림 2,500여 명이 성균관 명륜당에서 열린 유도회 창립총회에서 김창숙(金昌淑)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심산 김창숙은 유교대학 설립에 필요한 재단 구성을 위해 우선 성균관대학 기성회를 결성하고 독지가인 이석구 씨로부터 재단법인 학린사의 토지재산을 기증받았다. 그 외 재단법인 선린회와 종전의 명륜전문학교 재단을 통합, 재단법인 성균관대학을 구성하여 1946년 9월 25일 미군정 문교부로부터 성균관대학의 설립을 정식으로 인가 받았다. 그 후 계속해서 성균관대학을 종합대학으로 승격시키기 위해 전국에 흩어져있는 향교재단을 규합하고 재산을 새로 기부 받아 재단법인 성균관대학을 강화하여 문교부에 종합대학 승격을 신청하여 1953년 2월 6일에 정식 인가를 받았다.

1956년에 들어 재단의 기본재산 부정처리 문제와 성균관대학교 총장의 교체 문제 등을 둘러싸고 마찰과 갈등이 일어나,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그해 2월 21일에 유도회총본부 임시중앙위원회가 소집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우세(李佑世)를 위원장으로 하는 수습대책5인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학교·성균관에 대한 모든

수습대책을 위임하였다. 그러나 유도회 내부의 대립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실세 쟁탈전이 전개되었으며, 법통문제를 둘러싸고 분쟁과 소송사건이 계속 이어진다.

1961년에 군사정권의 포고령 제6호로 유도회총본부가 해체되어 그 활동이 정지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유도회는 법적으로 완전히 공백상태가 되었으나 1964년 5월 10일에 전국향교대표자대회를 개최하고 유도회 분규의 종식과 500만 유림의 총 단결로 유도회의 재건을 다짐하고 그 실현을 위한 전국대표자대회의 소집을 성균관장단과 재단법인 성균관이사단에 위임하였는바, 성균관장단과 재단법인 성균관이사회에서는 유도회수습위원회를 조직하였다.

1970년에 전국대표자대회를 소집하여 이가원(李家源)을 유도회총본부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조직을 완료함으로써 유도회가 재건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3) 유도회 양주지부의 발족

1960년 8월 유림은 초대회장에 강성태(姜聲台)를 선임하고 출발은 되었으나, 당시의 전국 유림사회는 무질서로 인한 각 지역 파벌로 갈등과 충돌, 주도권 싸움 등 유도회 내부의 대립은 갈수록 심화돼 법통문제를 둘러싸고 분쟁과 소송이 이어졌다. 이러한 분쟁은 결국 1961년 군부정권 포고령 제6호로 유도회 본부가 해체됨으로써 유림 활동이 정지되고 말았고, 따라서 유도회는 법적으로 완전히 공백상태가 되었다.

그 후 1964년 5월 10일 전국향교대표자회의를 개최 유림사회의 정화를 결의하고 유도회 분규의 종식을 선언함으로써 당시 500만 유림은 유도회 재건에 힘을 쏟게 되었다.

그러나 양주유도회는 그때의 여러 정황으로 유림 제반 사업과 운영은 독자적이지 못하였고 양주향교와 병행하여 유림 활동을 하는 가운데 1981년 7월 양주유도회가 양주군 · 의정부시 · 동두천시 · 남양주시 등 4개 시군으로 분리 · 조직됨으로써 양주유도회는 명실공히 새로운 결의로 유도 중흥 및 충효교육활동에 전력을 기울여 오늘에 이르렀다.

5. 동두천시유도회의 창립 및 발전 개황

1) 유도회동두천시지부의 창립 및 역대 회장 현황

1981년 7월 1일 법률 제3425호에 의거 동두천시로 승격됨으로써 8월에 유도회양주군지부에서 분리되었다. 동년 10월 30일 유도회동두천시창립총회를 개최하고, 회칙 총칙 제1장 제2조에 의거 유도정신을 선양하고 충효예의 윤리의식을 고양하며 수제치평(修齊治平)의 정도를 실행함으로써 인륜 및 사회질서 확립, 미풍양속 순화를 목적으로 유림사의 빛나는 유도회 동두천시지부를 결성하고, 초대회장으로 최응섭(崔應燮)을 선임하였다.

〈표 4-14-11 〉역대 회장 현황 (1981. 10. ~2010. 5. 현재)

역대	직 위	성 명	재임기간	비 고
초대	회장	최응섭	1981. 10 ~ 1984. 10	
2	〃	최응섭	1984. 10 ~ 1985. 7	
	직무대행	이기복	1985. 7 ~ 1985. 12	최응섭회장 교통사고로 사망 회장보선(목태신)
	회장	목태신	1985. 12 ~ 1987. 10	
3	〃	목태신	1987. 10 ~ 1991. 11	
4	〃	목태신	1991. 11 ~ 1994. 11	
5	〃	목태신	1994. 11 ~ 1998. 11	
6	〃	장기묵	1998. 11 ~ 2000. 7	건강상 사임으로 회장보선(홍경섭)
	〃	홍경섭	2000. 7 ~ 2004. 3	
7	〃	홍경섭	2004. 3 ~ 2007. 3	
8	〃	홍경섭	2007. 3 ~ 2009. 9	
9	〃	김완경	2009. 9 ~ 2010. 5. 현재	

2) 동두천여성유도회 창립

2003년 6월 20일 여성유도회 창립을 위해 추진위원을 구성하고 회칙 등 구체적인 추진방향에 대한 협의를 하였다. 동년 7월 3일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회칙 절차에 따라서 동두천여성유도회를 결성함으로써 경기북부 지역에서는 최초로 여성유도회가 태동하였으며 동두천은 명실공히 남녀유도회가 장족의 길을 걷게 되었다.

초대회장으로 김달순(金達淳, 2003.7.-2005.7.)이 선임되고 유학(儒學)을 비롯해 여성교양강좌 개최 등 유도발전에 초석을 다졌다. 2005년 8월 3일 2대 회장으로 최금순(崔今順)이 선임되었다. 여성유도회는 양주향교 석전대제 · 정절사 · 삼충단의 춘추기 제향에 적극 참사하였으며, 특히 충효예도의 문화 및 교양강좌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윤리도덕 예절문화 확산 및 사회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있다.

3) 동두천유림사업 행적 개요

1981년 7월 1일 법률 제3425호에 의거 동두천시로 승격함으로 양주군 유도회에서 분리되어 동년 10월 30일 유도회동두천시지부를 결성하고 초대회장으로 최응섭(崔應燮)을 선임함

1982. 1. 21	유림(儒林)사상 및 유학(儒學)정신함양을 위해 (1) 유학정신의 생활화 (2) 애향심 배양 (3) 회원 영입 조직 강화를 유림 삼대 지표로 설정하고 실천 결의
1982.10.30	유도회 창립1주년을 기해 유림 삼대지표 실천 평가 및 기념 강좌
1983. 1. 21	1983-1984 '유학정신함양의 해'로 설정, 생활실천 결의
1986.10. 3	유도회창립5주년행사 청소년 인성 교육 특강 〈효는 인간의 근본〉 동두천고교 전교생 대상, 강사 본회 회장 목태신
1988. 5.10	청소년 인성교육 특강 〈윤리도덕의 생활화〉 동두천고 1학년 대상, 강사 목태신
1990. 5.14	청소년 인성교육 특강 〈예절의 의미〉 동두천여상고교 1학년 대상, 강사 목태신
1991.10.30	창립10주년 기념행사 청소년 인성교육 특강 〈효와 언어예절〉 강사 목태신
1993.10.24	청소년 인성교육 특강 〈효는 인간의 근본〉 동두천여상고교 2학년 대상, 강사 목태신

1996.10.30 창립15주년기념 강좌
〈유학정신의 생활화〉 유림회원 대상, 강사 동두천여상고교 교장 홍경섭

1998. 5. 7 청소년 인성교육 특강
〈경로효친의 실천〉 동두천고교 1학년 대상, 강사 목태신

1999. 5.15 가훈 전시회 개최

2000. 8.21 오도정신(五道精神) 〈仁 · 義 · 禮 · 智 · 信〉의 주제로 유도회 월례 첫 교양강좌 시행

2001. 5.15 『경로효친예절』 간행 배포

2003. 7. 3 동두천여성유도회 창립, 초대회장으로 김달순(金達淳) 선임

2003. 8.27 경기북부 3지구 국제라이온스클럽 연수회 특강
〈충효사상의 본질, 어제와 오늘〉 본회 회장 홍경섭

2003.12.24 청소년 인성교육 특강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동두천고 1학년, 강사 홍경섭

2003.12.31 제1회 효사상연찬 및 송년의밤 개최
특강 (1) 〈효의 의미〉 한국어문학회 이사장 문학박사 정기호,
특강 (2) 〈삼효(三孝)의 실천〉 본회장 홍경섭,
〈효사상연찬〉 제1집 간행 배포

2004. 7. 3 여성유도회 창립1주년 기념식 및 강좌
〈유교중흥의 길잡이가 되자〉 유도회 회장 홍경섭,
〈경로효친예절문화〉 책자 간행 배포

2004. 9.21 유도회 월례 '유림교양강좌' 50회 실시

2004.12.21 제2회 효사상 연찬 및 송년회밤 개최
특강 (1) 〈충효예의 생활화〉 정기호,
특강 (2) 〈부자는 천륜의 연(緣)〉 홍경섭,
〈효사상연찬〉 제2집 간행 배포

2005.12. 3 여성유도회 월례 '유림교양강좌' 30회 실시

2005.12.21 제3회 효사상연찬 및 송년의밤 개최
특강 〈충효예(忠孝禮)의 도덕문화〉 유도회 회장 홍경섭,
〈효사상 연찬〉 제3집 간행 배포

2006.12.21 제4회 효사상연찬 및 송년의밤 개최
특강 (1) 〈효행의 삼도(三道) 실천궁행〉 양주문화원장 이흥일
특강 (2) 〈종교상의 효사상 개관〉 본회장 홍경섭,
〈효사상연찬〉 4집 간행 배포

2007. 8. 13 8 · 15광복절 국기달기 계몽 캠페인 전개

2007.12.21 제5회 효사상연찬 및 송년의밤 개최
특강 (1) 〈충효는 행실의 근본〉 전 동두천시의장 김택기 특강
(2) 〈충효예도의 문화의 덕목 개관〉 본회장 홍경섭,
〈충효예도의 문화〉 5집 간행 배포

2008. 5. 21 소요산 독립유공자 추모비 참배 및 영역정화사업

2008. 7. 16 여성유도회 창립5주년 기념식 및 강좌 실시
〈여성의 예법〉 유도회 회장 홍경섭,
〈여성의 예법 향기〉 책자 간행 배포

2008.12.23 제6회 효사상연찬 및 송년회 개최 특강
〈인륜질서, 효(孝)와 예(禮)〉 유도회 회장 홍경섭,
〈충효예도의문화〉 6집 간행 배포

2009. 5. 21 홍덕문 애국지사비 및 독립유공자 추모비 참배 정화사업

2009. 7. 6 여성유도회 창립6주년 기념식 및 강좌
〈부부유별의 예절〉 유도회장 홍경섭,
〈부부의 길, 지혜〉 팜플렛 제작 배포

2009. 9. 21 유도회 월례 '유림교양강좌' 120회 실시

2009.11. 21 청소년 인성교육함양을 위한 도의교육 방송 특강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의 실천〉 동두천중학교 전교생, 강사
유도회 회장 홍경섭

2009.12. 15 제7회 효사상연찬 및 송년회 개최 특강
〈충효는 인간의 근본이다〉 본회장 홍경섭,
〈충효예도의 문화〉 7집 간행 배포

2010. 1. 10 여성유도회 월례 '여성교양강좌' 90회 실시

4) 동두천유림 활동 행적 이모저모

(1) 청소년 인성함양을 위한 도의교육 특강
– 주제 :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 대상 및 일시 : 동두천고등학교 1학년(2003. 12. 24)
– 강사 : 성균관유도회 동두천시지부 회장 홍경섭

(2) 제3회 효(孝)사상 연찬 및 송년의밤 행사
– 주제 : 〈충효예(忠孝禮)의 도덕문화〉
– 대상 및 일시 : 유림 및 시민(2005. 12. 21)
– 강사 : 성균관유도회 동두천시지부 회장 홍경섭

(3) 제4회 효사상연찬 및 송년의밤 행사
– 주제 : 〈효행의 삼도(三道) 실천궁행〉
– 대상 및 일시 : 유림 및 시민(2006. 12. 21)
– 강사 : 양주문화원 원장 이홍일

(4) 8 · 15광복절 국기달기 계몽 캠페인을 마치고….
– 장소 : 중앙로 일원(터미널↔서울병원 및 상가 방문) 4구역담당 유림회원
– 일시 : 2007. 8. 13

(5) 여성유도회 창립5주년 연찬회
– 주제 : 〈여성의 예법〉
– 대상 및 일시 : 여성유림 및 시민(2008. 7. 16)
– 강사 : 성균관유도회 동두천시지부 회장 홍경섭

(6) 청소년 인성함양을 위한 도의교육 방송 특강
– 주제 :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의 실천〉
– 대상 및 일시 : 동두천중학교 전학년(2009. 12. 21)
– 강사 : 성균관유도회 동두천시지부 회장 홍경섭

제5절 기타 종교

1. 천도교

1) 천도교의 성립

동학(東學)은 철종 11년(1860)에 한국에서 발생한 새로운 종교로 창도자는 최제우(崔濟愚)이다. 그는 경주 가정리에서 순조 24년(1824)에 태어났다. 그가 동학을 창도할 당시는 홍경래(洪景來)난 이후의 사회 혼란 속에 민심이 불안한 때였다.

최제우는 불우한 청소년시절에 고향을 떠나 구도를 하면서 전국을 방황하다가 31세(1854)에 이상한 도인으로부터 「을묘천서(乙卯天書)」라는 책 한 권을 받았다. 이후 최제우는 전국을 순회하다가 고향에 돌아와 세상을 구제하려는 결심 하에 본래의 이름을 제선(濟宣)에서 제우(濟愚)로 바꾸었다.

이때부터 최제우는 대도의 이치를 밝히고 포덕할 대법을 세우기 위하여 주문을 짓고 〈용담가〉, 〈안심가〉, 〈검가〉 등의 가사를 지었다. 또한 〈포덕문〉, 〈몽중노소문답가〉, 〈도수사〉 등을 펴면서 포덕에 착수하였다. 처음에 그는 단순히 도를 전하는 데 그쳤으나, 그 수가 늘어나자 유생들의 비난과 관아의 눈총을 받게 되어, 제자 1명과 함께 집을 떠나 남원 은적암(隱寂庵)에 여장을 풀고, 도를 닦으며 〈수덕문〉, 〈권학가〉 등 6편의 글을 지었다.

1862년에 다시 고향에 돌아온 최제우는 포덕에 열중하였다. 이때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고 인심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최제우는 이때 관의 탄압을 받으면서도 포덕에 열중하여, 교단을 조직하고 수제자인 최경상(崔慶翔)에게 도통을 전수하였다. 그리고 곧바로 최제우는 체포되어(1863년), 혹세무민(惑世誣民)의

죄명으로 1864년 참수형을 받았다.

최시형(崔時亨)은 경주 황오리에서 태어났다. 조실부모하고 불우한 생활을 하다가 35세에 동학에 입도한 후 정성으로 득공하고, 최제우의 명령에 따라 영해 · 영덕 · 예천 · 정도 · 울진 · 흥해 등 각지에서 포덕하였고, 37세에 종통을 승계 받아 동학의 2세 교주가 되었다. 최제우가 순교한 후 최시형은 태백산맥 속 산골로 숨어 다니면서 동학 재건과 사태 수습에 헌신하면서 1880년 『동경대전(東經大全)』을 간행하고 『용담유사(龍潭遺詞)』를 펴냈다.

최시형은 교세가 점차 늘어나고 교단조직이 완비됨에 따라 교조신원운동(敎祖伸寃運動)을 전개하였다. 이것은 억울하게 처형당한 교조의 누명을 씻어주는 동시에 동학의 포교자유를 얻으려는 교도의 숙원사항이었다. 신원운동은 1892년의 삼례집회와 그 다음해의 복합상소, 보은집회로 연결되면서 교도들은 보국안민(輔國安民)과 척왜양창의(斥倭洋倡義)를 외치면서 반외세운동(反外勢運動)을 전개하였다.

보은집회가 관아의 탄압으로 해산된 후 교도들은 1894년 동학 접주 전봉준(全琫準)을 중심으로 농민들과 합세하여 고부군수 조병갑(趙秉甲)의 탐학(貪虐)에 항거하여 난을 일으켰다. 전봉준이 인솔한 동학군은 백산을 점령한 후 황토현 전투에서 승리하고 기세를 올려 전라도 일대를 휩쓸었다. 정부에서는 당황하여 홍계훈(洪啓薰)을 양호초토사로 삼아 황룡촌에 투입하였으나 역시 패퇴하였고, 동학도는 마침내 전주성에 입성하였다. 그러나 청 · 일 양국 군대가 침입하자 부득이 동학군은 정부와 전주화약을 체결한 후 '12개조 폐정개혁'을 단행하였다. 집강소를 통한 개혁은 농민들의 절대적인 환영을 받고, 전라도 일대의 농민들은 대부분 동학에 참여하게 되었다.

한국에 출병한 청 · 일 양국은 결국 충돌하여 청일전쟁이 반발하고, 일본은 이때를 이용하여 한국을 강점하려고 하였다. 동학군은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을 좌시할 수 없어 재봉기하였으나, 공주 우금치전투에서 패하고, 전봉준은 순창에 피신하였다가 체포되어 1895년 처형당하였다.

2세 교주 최시형은 우금치전투에 참가하였으나, 참패한 후 영동 · 청주 등지로 피신하다가 1897년 의암 손병희(孫秉熙)에게 도통을 전수하고 원주에서 체포되어 서울에 압송된 후 처형되었다.(1898년)

손병희는 청주 출생이다. 성격이 호방하고 의협심이 강한 그는 부패한 세상에 실망하여 낭인생활을 하다가 22세에 동학에 입도한다. 이후 수도에만

전념하면서 초인적 용기로 수련과정을 극복하고 마침내 3대 교주가 되었다. 그러나 교도 이용구가 동학도를 이끌고 일진회와 연합하여 반민족적 친일행위를 자행함으로 그를 축출하고 실추된 동학의 인상을 씻고자 천도교(天道敎)라 개칭하였다.

3·1운동 후 천도교는 애국계몽운동에 주력하였고, 천도교 청년당(청우당)을 결성하고, 종합잡지 『개벽(開闢)』을 위시하여 『어린이』, 『학생』, 『신여성』, 『농민』과 기타 여러 계통의 월간잡지를 간행하는 한편 어린이운동, 농민운동, 여성운동을 활발히 추진하였다. 천도교는 이같이 사회개혁운동, 민족운동, 사회계몽운동을 전개하는 가운데 한국근대화에 크게 공헌하였다.

천도교의 기본교리는 교주 최제우의 저서를 통하여 살필 수 있다. 그 내용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① 현세주의적이다.... 내세의 가치를 부인하고, 현세에 비중을 두면서 새로운 도로 개벽할 것을 강조한다.

② 한울님의 신앙이다....『동경대전』이나 『용담유사』에서 한울님은 유일한 분, 인격적인 초월자, 지공무사(至公無私)한 분이며 사회 구제의 길은 한울님을 잘 모시고 그 도리와 참뜻을 지키고 따르는 데 있다.

③ 인내천(人乃天)과 평등관이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한울님을 그 몸에 모셨으니 한울님과 같이 존엄하다고 하며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성을 역설하였다.

④ 선악관(善惡觀).... 사람의 행위에는 귀천이 있다. 귀한 행동은 한울님의 참뜻에 맞는 것이요, 이것이 사회공동체에 기여하는 성운(盛運)의 입장이 되고, 악행은 한울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으로 쇠운(衰運)이 된다. 따라서 수양체계는 도성입덕(道成立德)하는 데 있다.

천도교는 종교운동일뿐 아니라 사회개혁운동·계몽운동·애국민족운동으로 한국 근대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2) 동두천의 천도교

동두천 지역에 천도교가 전파된 것은 동학혁명 이후로 추측된다. 당시 동학은 국금의 대상이었기에 전도활동도 비밀리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확한 연대를 고증할 수 없다.

1911년에 경성교구에서 전도사가 파견되어 윤동원 · 윤자원 · 한명규 등과 합동으로 묵은전도실(默隱傳道室)과 하도전도실(下道傳道室)을 양주 지역에 설치하였다. 1913년에는 유경(柳景)이 천도교 양주전교실을 운영하였음을 볼 때, 1910년대에 천도교가 전래된 것이 확실하다.

현재 동두천시에는 1개의 교당에 약 50명의 신도가 등록되어 있다.

〈표 4-14-12〉 동두천의 천도교 현황

종파	사찰명	대표		소재지	전화번호
		성명	직위		
천도교	동두천교구	조동길	교구장	생연동 623-9	011-313-6923

2. 대순진리회

1) 대순진리회의 성립

증산교(甑山教) 계통의 민족종단 중의 하나이다. 태극도(太極道)에서 분리되었으며, 현재 증산교 계통의 여러 교단 중에서 교세가 가장 크고 활동도 왕성하다.

1958년 태극도의 도주(道主)이었던 조철제(趙哲濟)가 사망한 후 2대 도주로 선출된 박한경(朴漢慶)과 조철제의 아들인 조영래(趙永來)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이때 박한경은 1969년 서울 성동구 중곡동으로 옮겨 교단 명칭을 대순진리회로

바꾸었다. 대순이라 함은 강일순(姜一淳)이 진멸에 빠진 천하창생을 살리기 위하여 구천에서 내려와 천하를 대순하다가 여기에 이르렀다는 전경(典經)의 구절에서 연유한 것으로 막힘이 없음, 무극, 원(圓)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진리는 강일순이 상계를 개벽하여 지상선경을 열게 됨으로써 천하창생을 건지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서울에 옮겨온 후에는 적극적으로 포교와 사회활동을 전개하여 교세가 크게 확장되고, 1971년에는 종단의 도장도 완공되었다. 1987년에는 여주에 수도장도 건립하였다. 조직의 운영은 도헌(道憲)에 따르며, 의결기관인 중앙종의회와 집행기관인 종무원이 중심기관이다. 종의회는 전국의 선감(宣監)·교감(校監)·포정(布正)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무원에는 기획·총무·교무·수도·교수부로 나뉘어 각각 직무를 분담하고 있다. 그리고 부서기구로 대순출판부, 대진학원이 있다.

중심교리에는 천지공사(天地公事)이며, 종지(宗旨)는 음양합덕(陰陽合德)·신인조화(神人造化)·해원상생(解寃相生)·도통진경(道通進境)이고, 성(誠)·경(敬)·신(信)을 수도 요체로 안심(安心)·안신(安身)의 두 율령을 수행의 훈전(訓典)으로 지상천국 건설을 신앙의 목적으로 한다.

경전은 강일순의 언행과 행적으로 이루어진 경전이 있다. 이 경전은 7편 17장 839절로 되어 있는데, 신도들의 생활 근본 지침이다.

2) 동두천의 대순진리회

대순진리회가 이 지역에 전래된 것은 1986년이다. 이때에 현재의 포덕소가 처음으로 입소식을 가졌다. 이후 교세가 점차 번성하고, 1989년에는 포덕소 건물을 건립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종단에서 대규모 종합병원인 제생병원을 건축하고 있으며, 이웃 포천군에 대진대학이 설립되어 있다.

〈표 4-14-13〉 동두천의 대순진리회 현황

종파	사찰명	대표 직위	소재지
대순진리회	동두천회관	선감	소요동 374-1

3. 원불교

1) 원불교의 성립

1916년 소태산 대종사 박중빈(小太山 大宗師 朴重彬)에 의하여 창설된 교단이다. 교조 박중빈은 전남 영광에서 출생하여 어린 시절부터 우주와 인생 문제로 고뇌하다가 26세(1916년)에 오랜 입정(入定)으로부터 출정(出定)하면서 대각(大覺)을 성취하였다.

대각 후에 그는 전혀 다른 인격을 가진 인간으로 변화했고, 그곳에서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민중에게 교화시키는 한편, 과거 성인들의 경전을 열람하고 다른 종교의 경전에서도 여러 가지 이치를 깨달았다. 그 중에서도 불교의 『금강경(金剛經)』이 자신이 깨달은 진리와 일치함을 보고 불교와 인연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와 미래의 세계교화와 생명구제를 위해서는 과거 불교만으로는 될 수 없어 새로운 불교를 구상하게 된다.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펴기 위하여 포교 여행을 떠나는 대신 저축조합설립, 공동작업과 숯장사, 방언공사(영광군 백수면 해면 방언), 엿장사, 농축장, 양잠 한약업 등 생산경영에 힘쓰는 한편 경전편찬, 신앙과 훈련 등 생활과 종교훈련을 병행하였다. 그는 신앙과 종교를 실생활과 합치시키려고 노력하였다. 그런 가운데 당시 고질적인 부조리한 예(禮)의 간소화, 미신타파 등을 실천하여 풍속을 바꾸어 근대화시키는 데 활용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소성대(以小成大), 일심합력(一心合力), 근검저축(勤儉貯蓄), 무아봉공(無我奉公)을 창립정신으로 강조하였다.

교리는 일원상(一圓相)을 우주의 근본 진리요 마음의 본질로 보아 이를 신앙과 수행의 주체로 하였다. 따라서 일원상을 신앙과 수행·자력과 타력·동(動)과 정(靜)·종교와 현실·도덕문명과 과학문명·정신과 물질이 서로 만나고 나누어진 모든 법을 통합하는 중심원리로 죄복의 근원으로 숭상하며, 현실을 죄와 벌에서 구제하고 서로 보은하는 지상낙원(地上樂園)의 건설을 기도하고 있다.

지상낙원 건설에는 수양·연구·실천의 삼학(三學)을 강조하며,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끊임없이 이를 구도(求道)하는 무시선(無時禪)의 공부에 힘쓰도록 한다. 이밖에 현실 개조와 평등 사회를 건설하는 방법으로 자력양성(自力養成), 지자본위(智者本位), 타자녀교육(他子女敎育), 공도자숭배(公道者崇拜)의 사요(四要)가 제창된다. 이를 실천하면 인권평등·지식평등·교육평등·생활평등의 원만한 사회가 형성된다고 보았다.

교단에서는 원광대학교와 남녀 중·고등학교, 농원, 정미소, 한약업, 출판사를 운영하며, 수양원·고아원 등 사회상업활동에도 힘쓴다. 경전은 교조의 친저인 『정전』과 언행록인 『대종경』을 주경(主經)으로 한다.

2) 동두천의 원불교

동두천 지역에 원불교가 정식으로 전래된 것은 1986년이다. 이때에 교당이 의정부교당으로부터 독립되었다. 교당 설립 이전에도 이미 몇 명의 신도들이 의정부교당에 출석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으나, 정확한 연대를 알 수는 없다. 다만, 의정부교당이 1963년에 발기협회를 갖고 1964년에 봉불식을 거행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1960년부터 1986년 사이에 이미 신도들이 산발적으로 활동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표 4-14-14〉 원불교 현황

종파	사찰명	대표		소재지	전화번호
		성명	직위		
원불교	동두천교당	임윤성	교무	상봉암동 16-6	866-6969

4. 증산도(甑山道)

1) 증산도(甑山道)의 성립

증산교(甑山敎)는 1902년 전라북도에서 강일순(姜一淳)에 의하여 창시된 신흥종교이다. 창시자의 호를 따서 증산교라 하나, 일제시대에는 흠치교(欽侈敎)라고도 하였다. 이 종교는 동학혁명이 실패한 후 그 이상을 실현하려는 욕구를 갖고 강일순이 중심이 되어 그들을 결집하여 종교형태를 형성하게 되었다.

교의 창시자 강일순은 혼란한 사회를 수습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은 기존의 기성종교나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며, 오직 신명(神明)에 의한 도술(道術)로써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때문에 유교·불교·선교의 교리와 음양·풍수·유교·불교·선교의 교리와 음양·풍수·복서·의술 등을 연구하는 한편 신명을 부리며 모든 것을 환히 볼 수 있는 도통공부를 하였다. 그 후 그는 전국을 순회하며 수도하여 천지대도(天地大道)를 깨닫고, 욕심·음란·성냄·어리석음을 극복하게 되었다.(1901년)

강일순이 도를 깨쳤다는 소문이 퍼지자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다. 이때 그는 하늘과 땅과 인간의 삼계대권(三界大權)을 갖고 조화로써 천리를 개벽하고, 선경(仙境)을 열어 고통 속의 중생(衆生)을 건지기 위하여 세상에 내려왔다고 설교하였다. 이 때문에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강일순을 구세주로 믿게 되었다. 교주 강이순은 1902년부터 1909년까지 7년 동안 포교활동을 하였으나, 종교명칭을 사용하거나 조직 체계를 정립하지 않고 포정소(布政所)·대학교(大學校)·복록소(福錄所)·수명소(壽命所) 등의 명칭만을 사용할 뿐이었다. 다만 그는 자신의 종교의식의 중심인 천지공사(天地公事)를 행하고 주변 사람을 상대로 교리와 사상을 가르칠 뿐이었다.

강일순이 종교활동을 한 지 5년 뒤인 1907년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의병을 모의한다는 혐의로 경무청에 체포되었다. 이들은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되었으나, 이때부터 그의 권능에 회의를 품는 무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그는 1909년 허망하게 죽고, 대부분 무리들은 실망한 채 흩어지게 된다. 그러나 일부 열성신자들은 그의 재림을 굳게 믿었다. 2년 뒤에 강일순의

미망인 고부인이 갑자기 졸도한 후 깨어나서 강일순의 성령(聖靈)이 자신에게 옮겨졌다고 하며 강일순과 비슷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강일순을 열성적으로 추종하던 사람들은 고부인 중심으로 집결하여 다시 집단을 형성한 후, 1941년에는 강일순을 교조로, 고부인을 교주로 하고, 교명을 선도교(仙道敎 : 일명 太乙敎로 개명)를 세워 분립하는 등 각 파가 독립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차경석은 교세의 번창함을 믿고 지나치게 권위를 강조하여 강일순의 가르침이나 권위를 무시하자 보천교의 간부들이 회의를 품고 탈퇴하여 새로운 교단을 세웠다. 이같이 분파가 발생하여 증산교 계통은 100여 개로 분파되었다. 1938년에 이르러 증산교는 일제의 유사종교 해산령으로 다시 분리 · 해산되더니 이후 각 교파들이 교단을 체계화하고, 민중종교로서 성장을 시도하고 있다.

기본교리는 세상을 바로잡고 후천세계의 기틀을 마련하는 길은 어느 한 종교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여러 종교의 장점을 모아 통합하는 데 있다는 강일순의 기본사상을 바탕으로 민간신앙·유교·불교·기독교와 동학의 교리를 새롭게 체계화시켜 인(仁)·의(義)·예(禮)·지(智)·신(信)을 찬양하고, 성(誠)·경(敬)·신(信)을 수양방법으로 삼는다.

증산교 각 교파의 공통된 교리는 이들이 경전으로 사용하는 『대순전경(大巡典經)』과 증산종단 친목회에서 간행한 『증산종단개론』에서 찾을 수 있다. 그 내용은 개벽(開闢)의 세계관, 신인동형적신관(神人同形的神觀)과 의인간적 다신관(擬人間的多神觀), 천지공사(天地公事)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전통적 사상을 계승하는 한편, 이것을 체계화시킨 것이며, 핵심은 인존사상(人尊思想)·해원사상(解寃思想)·민족주체사상(民族主體思想)에서 나온 것이다.

2) 동두천의 증산교

증산교 동두천 도장이 설치된 것은 1989년인데, 이미 1980년대 초부터 이 지역에는 몇몇 신도들이 증산도 신앙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증산도가 전래된 시기는 1980년 초로 볼 수 있다. 현재 동두천 지역에는 1개의 교당이 있다.

〈표 4-14-15〉 동두천 증산도 현황

종파	사찰명	소재지	전화번호
증산도	동두천도장	중앙동 597	867-1691

5. SGI (창가학회: 創価学会)

창가학회(가치를 창조하는 것을 배우는 모임)는 니치렌(日蓮)의 불법(佛法)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종교 활동이다. 이것은 1930년에 형식화 했으며 마키구치 쓰네사부로(牧口常三郎)와 도다 조세이(戸田城聖)에 의해 창가교육학회(創價教育學會, 일본어: 創価教育学会)로 창립된 종교이다.

법화경을 토대로 생활 속에 불법을 실천하려는 단체이며, 절에 가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다.(재가신도) 그러나 매 달마다 좌담회를 열어 즉흥적으로 자신의 체험담을 말하거나, 법화경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니치렌의 불법을 말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매달 중순에는 이케다 다이사쿠의 인터넷 스피치를 개최한다.

SGI는 국제창가학회(SGI : S ō ka Gakkai International)의 약자로 창가학회의 해외조직을 일컬으며 192개국(2008년 5월 현재)에 걸쳐 있다. 따라서 한국의 창가학회는 SGI 한국본부가 되며 각 지역의 창가학회도 역시 SGI한국본부의 한 지역 조직이 된다.

일본창가학회는 정치와 교육에도 참여하여 일본 공명당과 창가대학을 만들기도 하였다.

창가학회의 경전은 법화경이며 남무묘법연화경(일본어: 南無妙法蓮華経 남묘호렌게쿄)을 기도문으로 삼는다. 이 기도문은 창가학회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도문으로 신도들이 주로 행하는 근행, 창제 때마다 많이 사용된다.

동두천의 SGI는 SGI 의정부권에 속하고 있으며 현재 회당은 상패동에 위치하고 있다.

〈표 4-14-16〉 동두천 SGI 현황

종파	사찰명	대표		소재지	전화번호
		성명	직위		
한국SGI	동두천문화회관	전명종	지역장	지행동 730	864-1300

제6절 동두천의 민속신앙

1. 민속신앙[무속(巫俗)]의 개요

민속신앙은 민간신앙 · 민속종교 · 고유신앙 · 토속종교 · 향토신앙 · 민중신앙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며 무속으로 통칭된다. 보다 좁은 의미에서의 무속은 무당과 관계된 종교현상을 말한다. 정작 '무속'이란 명칭 자체는 근대로 접어들면서부터 쓰이기 시작해 무당과 관련된 습속으로 취급되었다.

2. 무(巫)의 개념

『주자어류(朱子語類)』에는 무(巫)란 "신명(神明)을 다해 춤추는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다. 한자 '巫'자의 '工' 양변에 있는 '人'자는 춤추는 모양을 취한 것이니 무당이 신에게 의탁하기 위해 가무를 필요로 한 것이다.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五州衍文長箋散稿)』에서는 "지금 우리 고을에 여무(女巫)와 남격이 둥둥 북을 치며 중얼중얼 주문을 외우고 덩실덩실 춤을 춘다 했는데, 이는 귀(鬼)를 좇고 신을 내리는 것을 일컫는다"라고 했다.

원래 무당(巫堂)은 여무(女巫)를 지칭하며 만신(萬神)이라고도 부른다. 남무(男巫)는 박수 · 박사(博士)라 부르는데, 이것은 주역박사(周易博士) · 다지박사(多智博士) 등에서 비롯되었다. 또 남무를 화랭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신라의 화랑(花郎)에서 유래된 말이다. 그밖에 광대 · 우인(優人) · 재인(才人) 등도 무당을 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무당들이 천한 일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던 탓이다. 중세사회에서 무당들은 8천(八賤)의 하나로 규정되어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신분에 속했다. 무당은 입무(入巫) 형태에 따라 단골무당과 강신무당으로 나눌 수 있다. 단골무는 곧 세습무로서 모계세습 형태로 전승된다. 강신무는 신내림을 통해 무당이 되며 신의 영력으로 굿을 집행한다. 어떤 경우에도 무당이 되려면 일정한 학습과정을 거쳐야 했다. 신어머니라고 불리는 사람의 조무(助巫) 역할을 하면서 상당 기간 노래와 춤을 비롯한 여타 의례를 배운 후에 독립된 무당이 된다.

3. 종교적 특성

첫째, 자연신앙으로서 한국 민간신앙의 전형을 이룬다. 따라서 교조(敎祖) · 교리(敎理) · 의례 · 교단(敎壇)과 같은 체계적인 종교형식을 갖추지 않고 있다. 현세구복적(現世求福的)인 신앙으로 인간의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욕구, 즉 생존과 후사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관계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구복적 동기만 맞으면 사회윤리나 합리적 사고에 관계없이 어떠한 신앙형식도 수용 · 변화시킨다.

둘째, 현세구복적 동기를 성취하기 위해 주술적 방법을 사용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무속을 주술종교라고 한다. 무속을 믿는 사람들은 복잡한 사고과정을 치르거나 모호한 상징성을 많이 사용하기보다는 의례효과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주술을 행함으로써 그 효과가 당장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셋째, 다양한 신앙형식이 융합되어 중층적인 신앙현상군을 이루고 있다. 즉 무속은 외래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한민족의 생활 속에서 자리잡아왔으며 외래종교들이 유입되자 무속과 융합을 이루기 시작했다. 신라시대에 이차돈의 순교로 불교가 공인되었다는 기록은 그만큼 전래 무속과 새로 유입된 종교가 갈등을 빚었음을 말해준다. 불교 · 유교 · 도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무속과 하나가 되었다. 절에 자리잡은 칠성각(七星閣) · 산신각(山神閣) · 삼성각(三聖閣) · 삼불제석(三佛帝釋) 등은 불교와 민간의 무속이 융합한 대표적인 예이다. 칠성신앙 · 남강노인 등은 도교적인 요소와 결합된 결과이다. 당산제와 당산굿, 서낭제와 서낭굿 같이 제(祭)와 굿이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것은 무속의례와 유교의 제가 혼용된 결과이다.

넷째, 무속은 의례 중심의 종교이다. 집안신앙이나 마을신앙 등은 모두 굿이라는 의례를 통하여 구체화된다.

다섯째, 무속의 전승 주체는 지역사회이다. 민간신앙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보편적으로 존재하지만 각 지역사회의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다. 무가의 본풀이가 역사적인 것을 표현해 공동체 성원의 삶의 내력들을 신화로서 전승하고 있음은 바로 지역성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4. 민속신앙의 형태

1) 가정신앙

집안에 당면한 대소사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집안 구성원 중의 1인이 전문적인 무격 없이 행하는 일종의 기원이거나 칠석, 백중, 동지 등 연중 절기를 당하여 집안의 번성과 축재(逐災)를 기원하는 기원, 축사(逐邪) 의식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가정에 병자가 발생하거나 흉화(凶禍)를 당했을 경우 전문 무격(巫覡)을 청하여 굿을 벌이는 일이 있는데 이는 전문적인 무사(巫事)의 범주에 들어가지만 형태적으로는 역시 가정 신앙에 포괄될 수 있겠다.

2) 동제

마을이 공유하는 소원이나 연례적 행사를 마을 전체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무속행위이다.

산신제(山神祭)나 도당(都堂)굿, 풍어제(豊漁祭), 풍년제(豊年祭), 성황제(城隍祭) 등이 이에 해당되고 전통 관례(慣例)를 유지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이 마을 굿은 현재 마을 구성원의 단일성이 약화되면서 마을 굿 본래의 전승이 약해지고 의례화하는 경향이 있다.

5. 동두천의 민속신앙

1) 동두천의 무격(巫覡)

본래 무격은 세습무(世襲巫)와 강신무(降神巫)로 구분되어 제례와 굿의 형태는 물론 성격도 무격의 종류에 따라 현저히 다른 특성을 가진다. 동두천은 한강 이북이 본류인 강신무와 한강 이남, 그것도 호남, 영남이 본류인 세습무의 분포가 연접하는 경계선으로 현재 동두천에 전래되는 마을 굿의 단골 무격의 성격은 대단히 애매하다. 동두천의 무격의 연원과 성격 등을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여 이를 확정할 수 없는데다 대표적인 마을 굿인 하봉암도당굿 역시 오래 전에 그 정확한 전승이 끊어져 이에 관련된 자료를 확보할 수 없다. 단, 하봉암도당굿의 경우 세습무의 흔적이 보이고 있어 이는 보다 정확하고 치밀한 연구를 필요로 한다.

2) 동두천 민속신앙의 현재

(1) 가정신앙

동두천은 유사 이래 오랫동안 전통적 신앙구조를 유지해왔었다. 그러나 동두천이 삼국시대 이래의 유수한 교통로인 삼방로의 연선에 위치하고 있고 포천, 양주와 연결되는 교차로를 이루고 있어 일찍부터 장시가 발달하고 외지의 인구가 빈번히 교류되어 왔는데다 특히 해방 후 현재까지 동두천이 군사거점으로 확보되면서 이에 관련된 인구의 유입이 급증하여 마을의 전통성이 급격히 파괴되었다. 이에 따라 전래 초기의 천주교와 기독교가 일찍부터 동두천에 자리 잡았고 피난민의 대거 유입은 이와 같은 외래종교의 확산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거기에 더하여 미군을 비롯한 외국군 주둔지로서 도시의 규모가 확장되어 왔으므로 주둔국 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아 동두천의 전통적 문화 정체성은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가정신앙의 범주에 드는 민속신앙도 현재는 현저한 예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소멸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⑵ 마을 신앙

동두천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로서 마을의 고립성이 강하여 마을마다 고유의 마을 굿이 오랜 전승을 유지해왔다. 물론 동두천의 문화적 전통성이 급격히 파괴되면서, 예를 들면 굿에 드는 비용을 마을 전체가 추렴하고 마을 구성원 모두가 굿에 참여하는 마을 굿 본연의 모습은 거의 찾아보지 못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마을 굿의 문화적 가치에 주목한 관계자들의 문화 행사의 면모가 강해진 마을 굿이 현존하고 있다. 현재 동두천 각지에서 행해지는 마을 굿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① 동두천하봉암도당굿



동두천 하봉암도당굿은 하봉암동에서 약 500년간 유지되어 온 마을 굿이다.

동네 주민들의 재앙을 막고 복을 기원하는 것으로 주민의 길복과 축원하는 마을축제 성격의 굿이며 경기북동부계의 강신무계지역적 성격을 띠며 전래되어 왔다.

음력 10월 상달에 날을 택해 하는데 마을에 부정한 일이 생기면 날을 다시 잡기도 한다. 이 마을 굿의 형식은 경기북동부 지역의 일반적인 열두거리를 하는데 같은 경기도 지역과도 무(巫)의식이 차이가 난다.

전승이 오랫동안 단절되었다가 자료를 발굴하여 경기도민속예술제에 출품하였던 것을 계기로 보존회를 구성하고 원형을 고증하여 시연한 결과, 현재는 동두천시향토(무형)문화재 제2호로 지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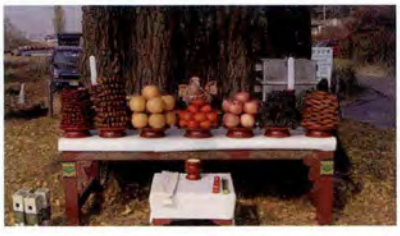
② 소요산산신제



동두천시 상봉암동에서 전승되어 오는 산신제로서 소요산의 산신을 제향하는 마을 굿이다. 소요산산신제는 매년 9월 9일에 생기와 복덕을 기리어 화주인, 화덕, 헌관, 축관 등 총 4인을 선택하여 돼지를 잡고 신곡, 신과를 차려놓고 제사를 지낸다. 그런데 어느

시대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고 제문도 누가 지었는지 알 수 없다. 추측으로 이곳이 사람이 정착한 이후 오래 전부터 산신제가 시행되었으리라 짐작할 뿐이다.

③ 행단제



조선 초부터 행하여 전해온 마을 굿으로 불현동 일대의 행단 · 송내 · 지행마을이 함께 하는 부락제 성격을 띤다. 천 년 된 은행나무에 마을의 안녕과 주민들과 무병장수 그리고 새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수제를 지낸 후 진행되는 축제 성격의 놀이는 농악, 씨름, 힘겨루기 등 세 종목을 가지고 마을 간에 경진하여 각 종목에서 장원을 뽑아 장원자가 많이 나온 마을이 그 해의 장원을 차지한다.

④ 고삿반놀이



동두천시 상패동에서 전승되는 마을 굿이다.

고삿반이란 대문 안에 상을 차려 놓고 그 위에 쌀 한 되 또는 한 말을 담고 발원하는 사람의 나전을 오려 놓고 또 발원하는 사람의 밥그릇에 쌀을 고봉으로 담고 숟가락을 꽂고 무명실을 틀어 꼬아 얹은 것을 말하는데 이때 고삿반을 외는 사람은 문밖에 서서 여러 가지 덕담을 해주고 그 쌀과 돈을 거두어 마을의 공동 기금으로 삼아 다리를 놓거나 악기를 장만하거나 기타 복리 시설에 썼다.

⑤ 지경닦이놀이



일종의 터닦기 형식의 마을 굿인데 동두천시 상패동 일대에서 전승된다.

주로 기호지방과 해서지방에서 행하는 놀이로 지표가 약한 내륙지방에서 많이 성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 놀이는 예부터 집을 짓기 위해 집터를 돋우고 다지는 집터닦기인데 이 공사과정을 마을의 경사로 승화시켜 가옥이 완공되기까지 역사장에서의 공정과정을 놀이화한 것이다. 현재 이 놀이를 시연할 수 있는 기능보유자들이 노령이어서 재연하기에 어려움이 많고 농악을 연주할 수 있는 기능인이 적은 실정이다.

3) 동두천 민속신앙의 과제와 비전

민속신앙은 신앙 자체가 미신으로 치부되던 조선시대는 물론 근대화 작업이 본격화되며 외래문물이 신문명이라는 이름으로 밀려들 때에도 그 질긴 생명력을 유지해온 우리 민족의 시원적 신앙이다. 현재 동두천에는 민속신앙을 체계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종교적 인프라가 매우 약하고 이에 대한 대내외적 공감대도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하봉암도당굿이 동두천의 향토문화재로 인정되면서 보존회를 중심으로 의식의 보존과 발전 무속인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고는 있지만 아직은 미미한 상태에 머물고 있다. 무속인들을 위한 경신연합회 등의 조직도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고 전승되는 마을 굿조차 그나마 문화행사로 조직 운영되어 본래의 신앙적 면모를 많이 상실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민중의 저변에는 아직 민속신앙의 저류가 상존하고 있어 이를 고급화한 민속인력과 결합한다면 그 발전의 여지는 크다고 보겠다. 민속신앙이 가지는 일부 부정적인 요소가 제거되고 건전한 신앙형태가 구축되어 민중의 정신적 지주가 되고, 문화유산의 발전적 계승의 주역이 되기를 바란다.















